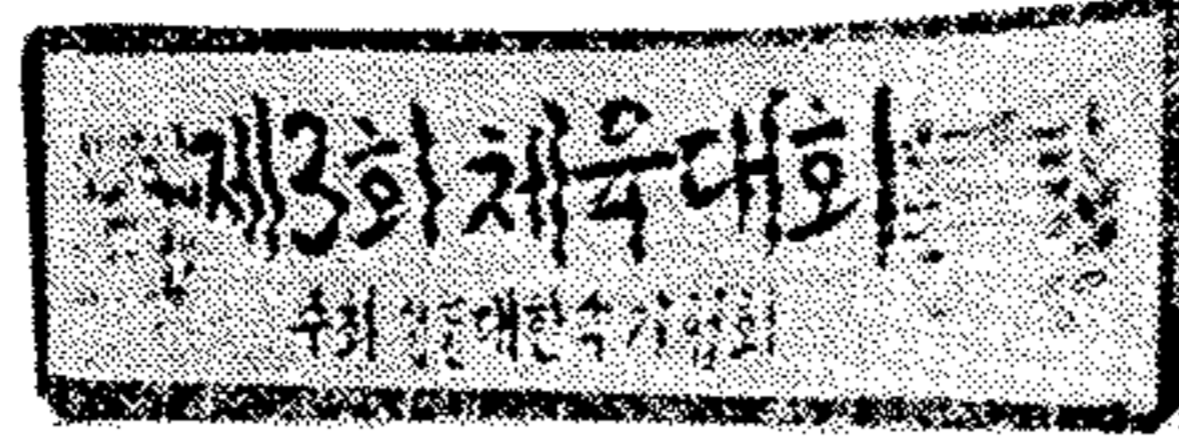


界記速

第 13 號



會協記速韓大 團法 社人



觀速記協會運動會
於南怡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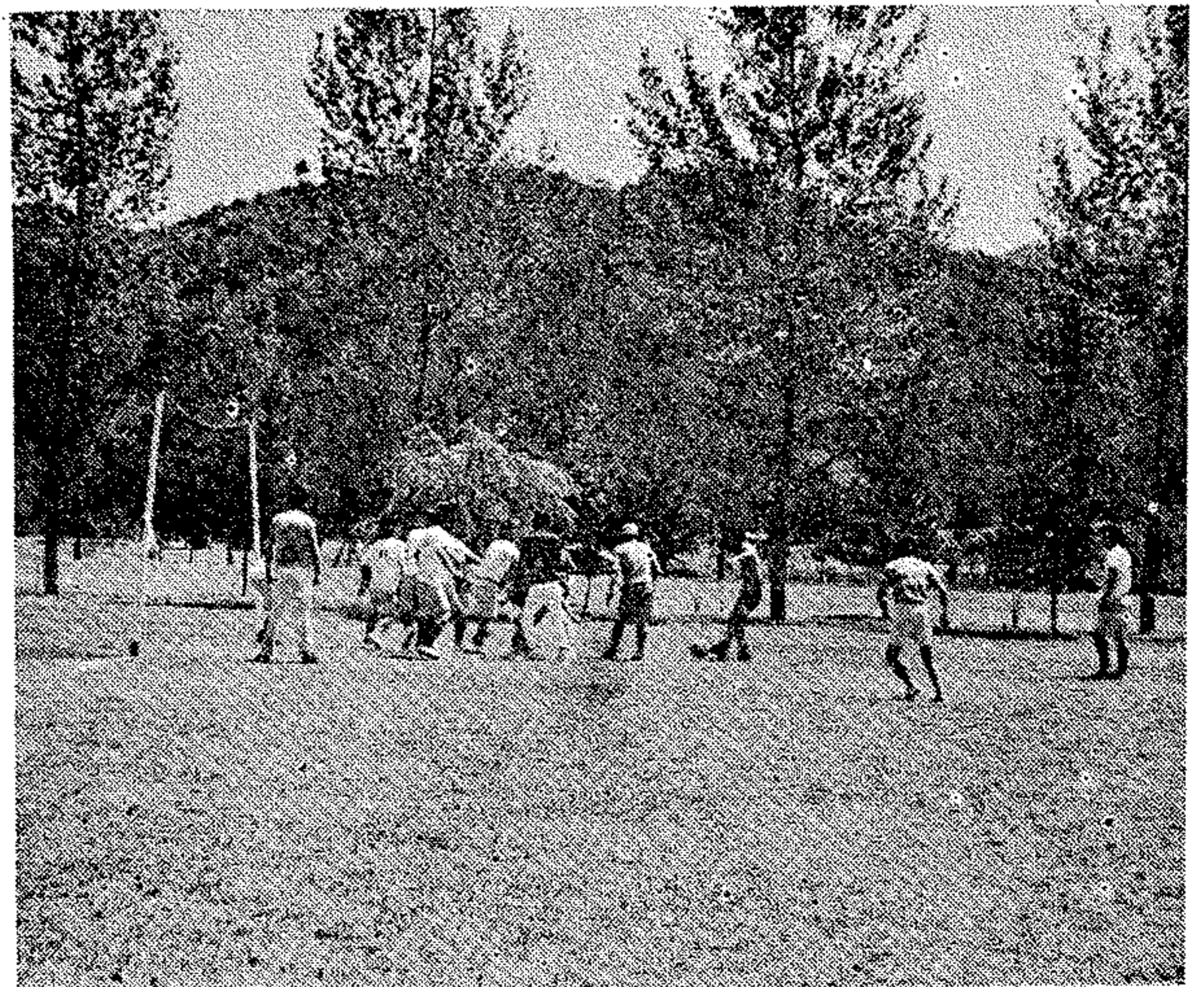
青山繞漢水
靜湖浮南怡
風薰樹林綠
日照蹴球技
青龍敢鬪戰
黃牛優勝旗
和合速記界
連綿必可期

南石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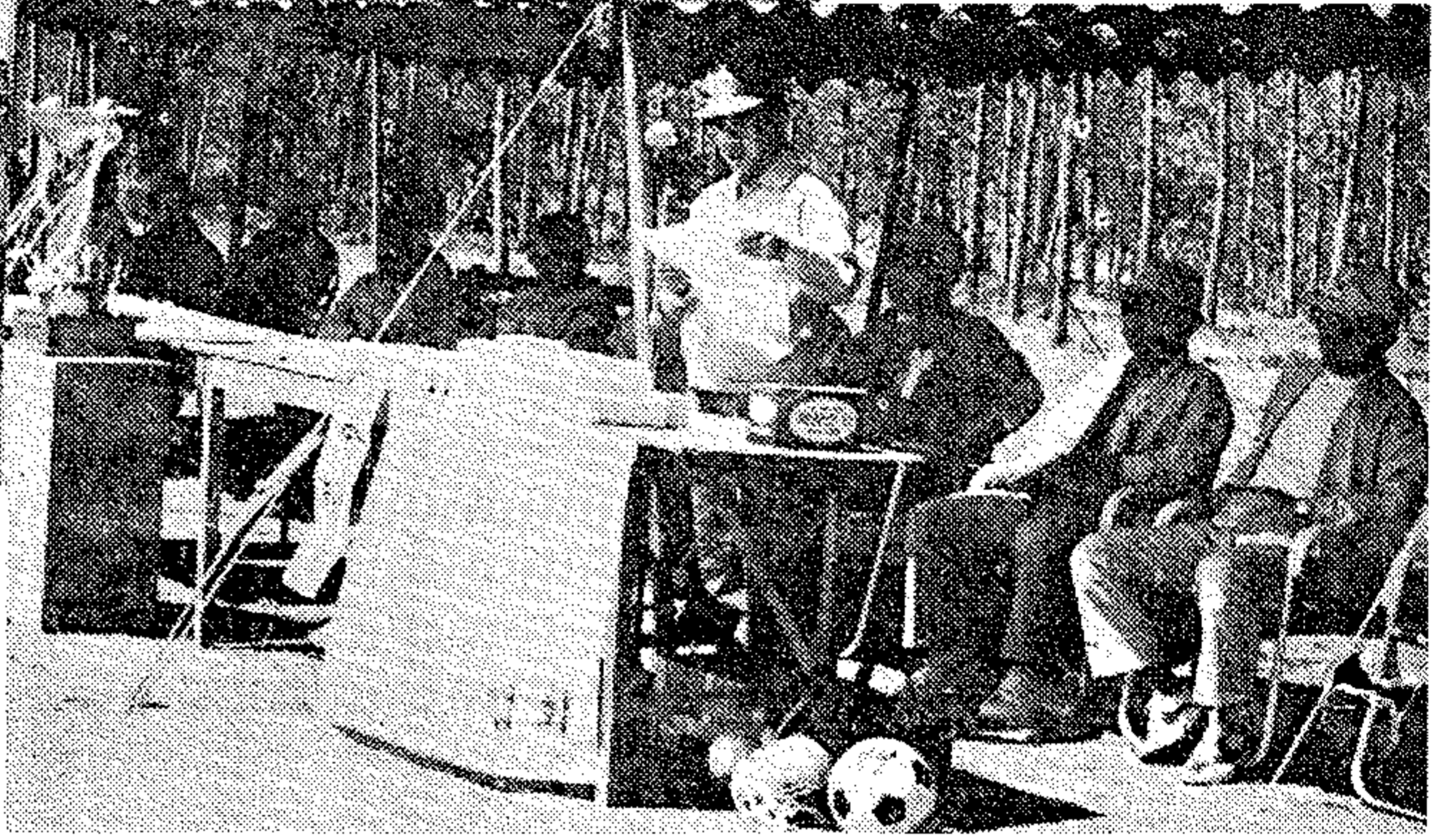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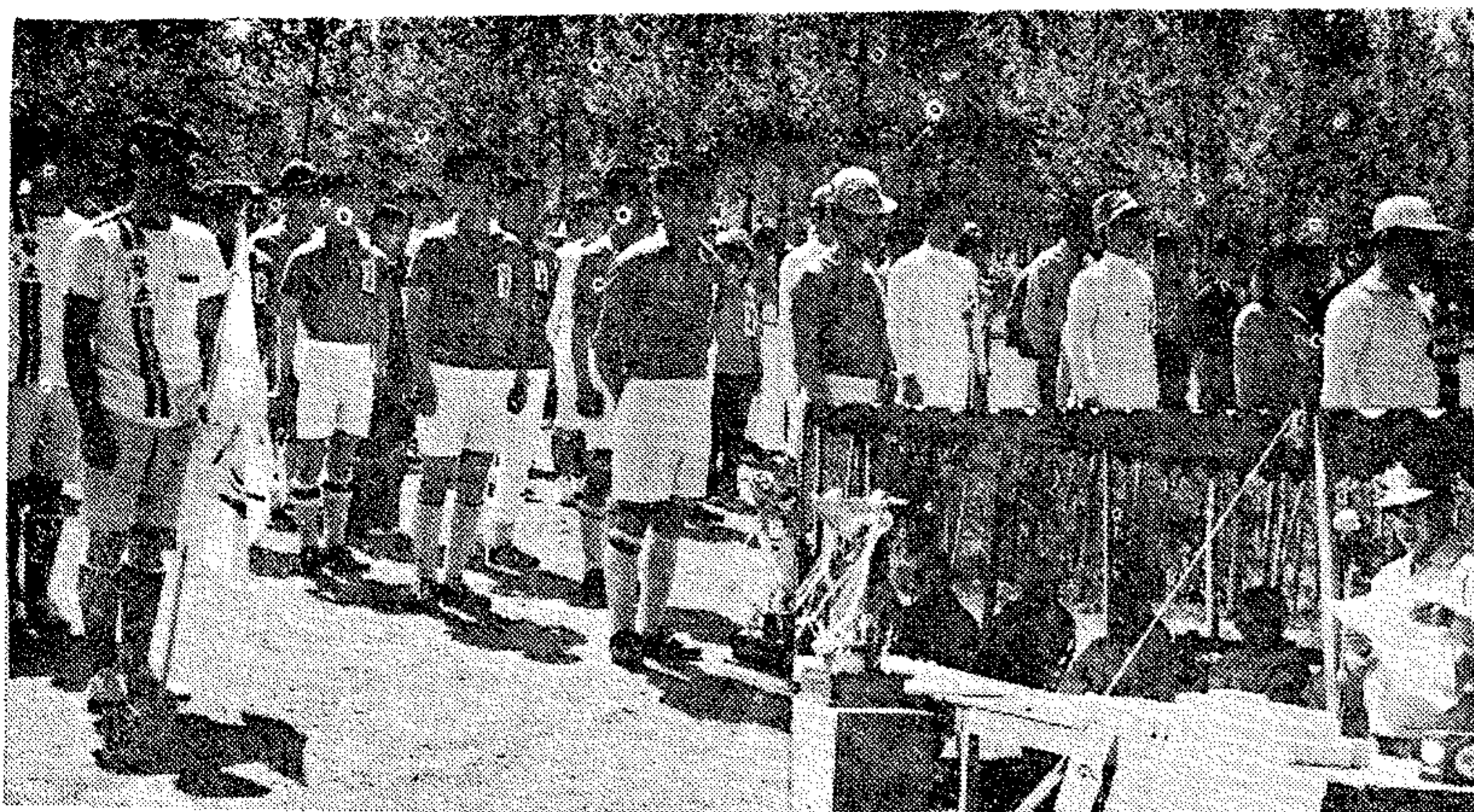


(李鎬賑 国会事務次長
兼 本協會顧問 近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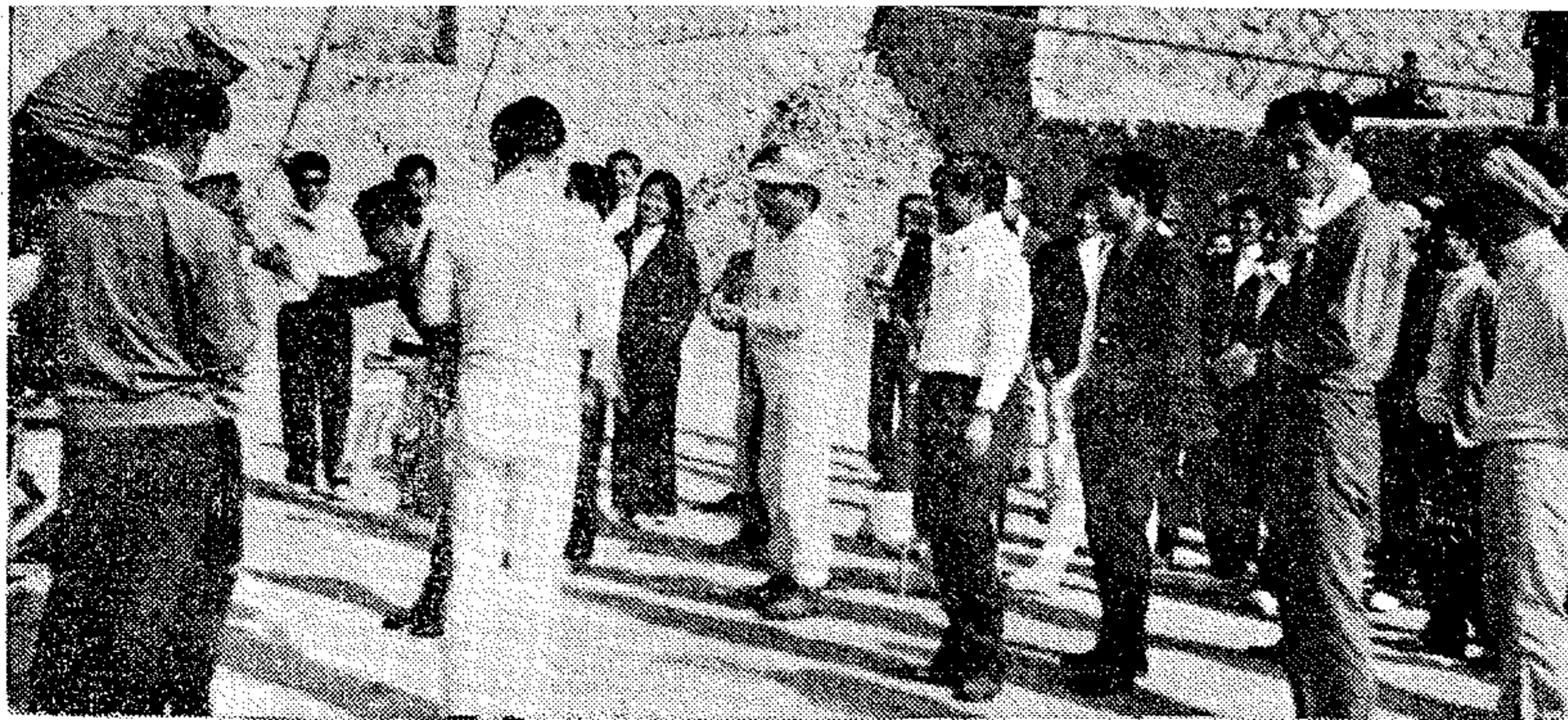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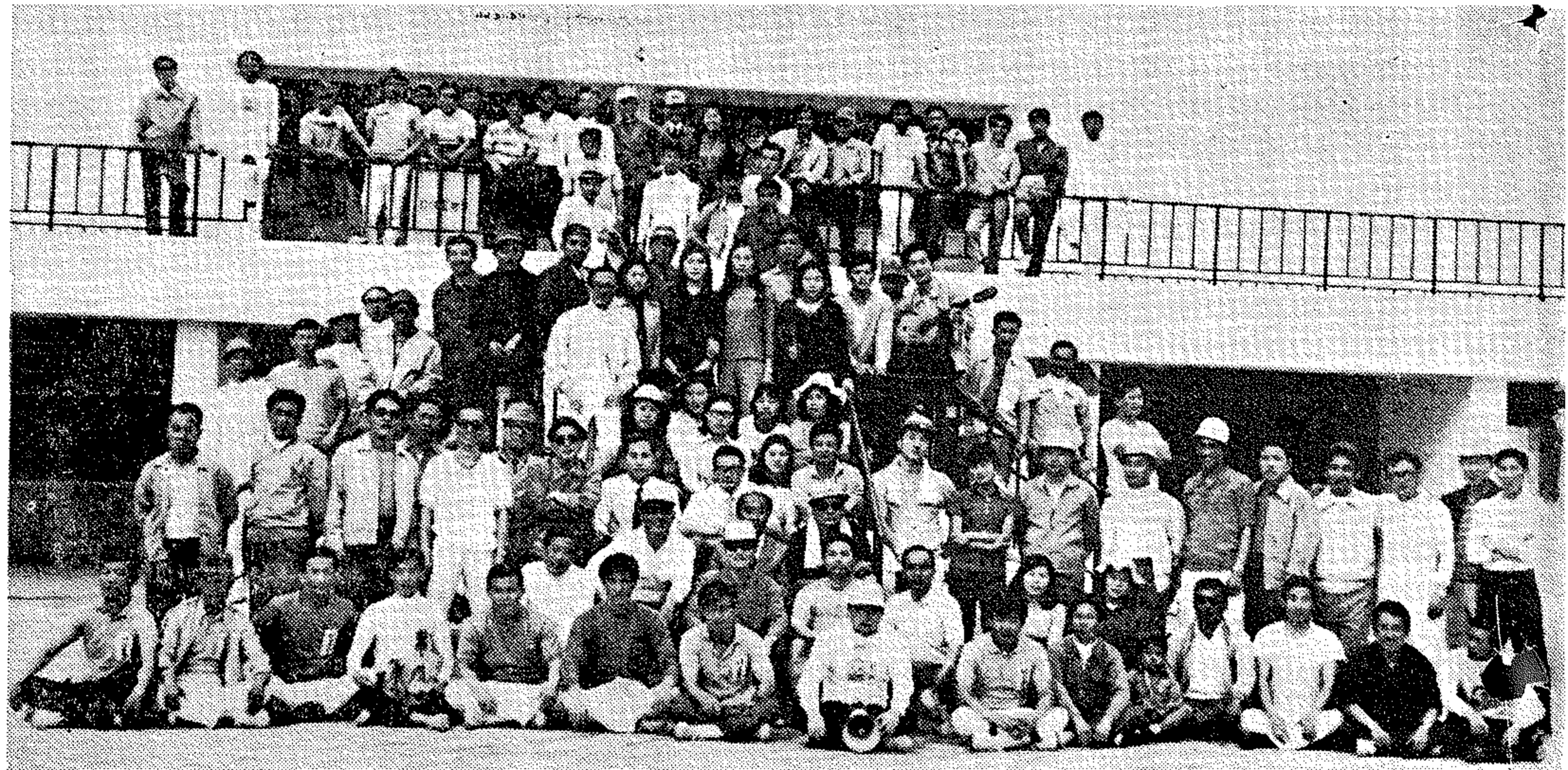
第3回 全國 速記人体育大会를 南怡섬에서 開催한바
李鎬賑 事務次長께서 即興漢詩 한 首를 주셨다.
(1973年 5月 6日 親筆↑)



龍虎相搏의
蹴球熱戰光景→



第3回体育大会
開会式 光景



第一回体育大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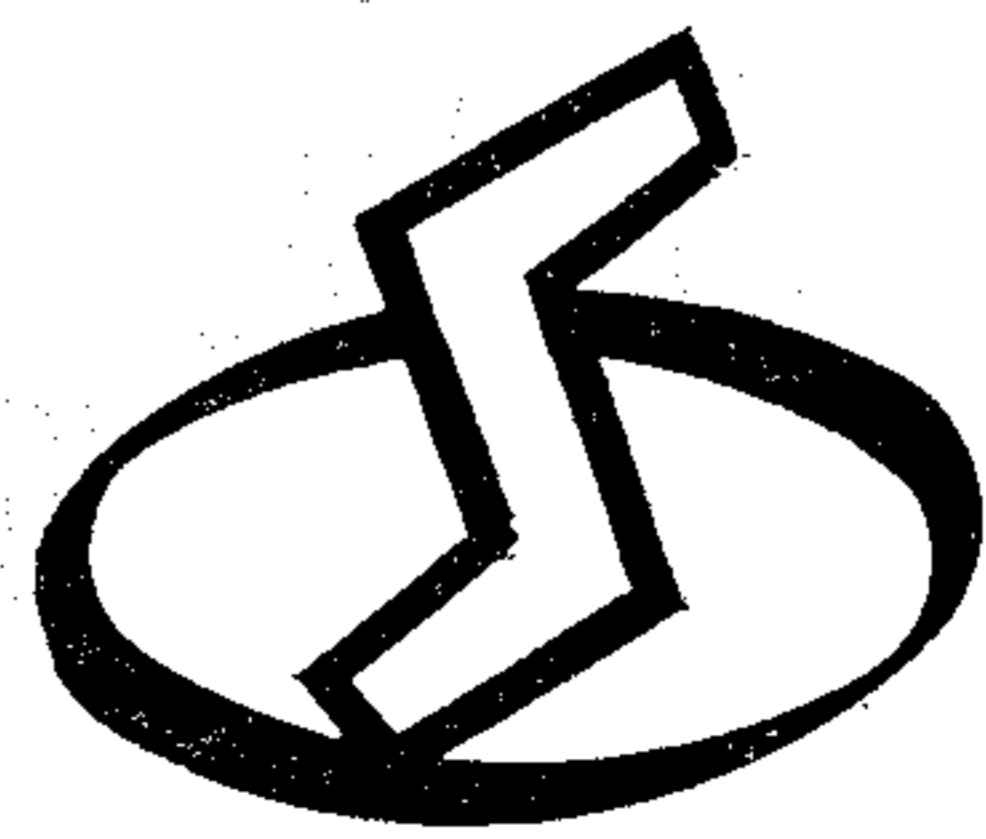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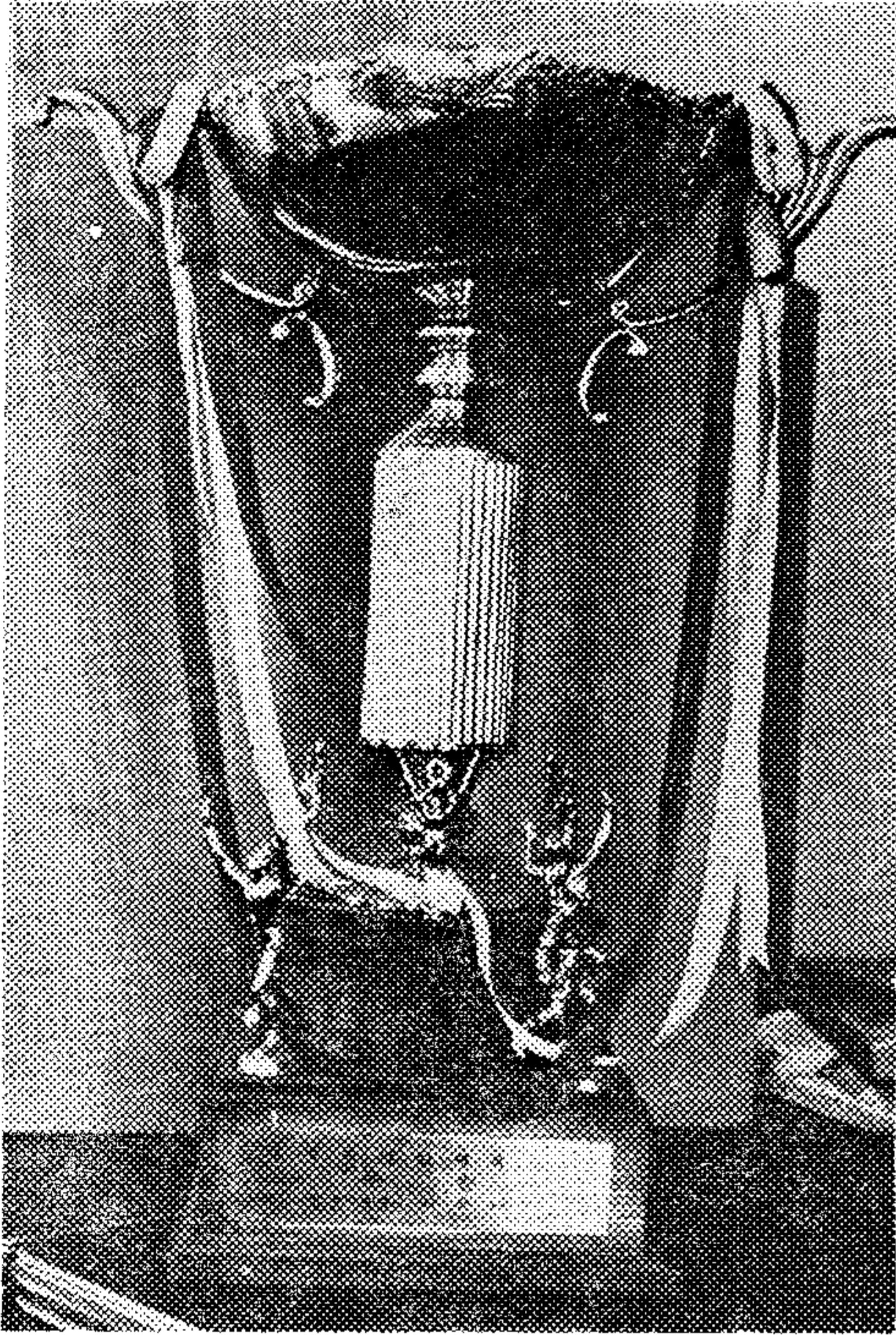
↑ 第二回体育大会紀念撮影

速記界 目次

1973. 10. 第13號

5	健全한 精神은 健康한 體力에서	會長	金 龍 泰
6	第3回 全國 速記人 體育大會記		金 致 元
	<input type="checkbox"/> 特輯：餘暇를 利用하여 內實을		
9	◇ 空間의 活用		尹 載 秀
12	◇ 有實樹를 키우면서		金 永 善
15	◇ 貴金屬과 寶石		朴 相 昱
23	◇ 冷凍原理		徐 吉 泉
26	<u>덜 쓰고도 다 읽어야 (完)</u>		姜 駿 遠
29	★ 르보：速記人이 活動하는 趣味團體散策		張 僖 晉
	<input type="checkbox"/> 國會議事會 <input type="checkbox"/> 國會議事會		
	<input type="checkbox"/> 國會議事會 <input type="checkbox"/> 國會議事會		
34	<詩> 想		金 雨 永
35	<input type="checkbox"/> 國會 速記士 (2)		楊 澈 在
50	用語 解說 (6)		研究委員會
51	會員證 및 資格證 更新公告		總務部
52	○ 소식을 알립니다		宣傳部
55	☆ <input type="checkbox"/> 研究委員會規程 資格審查委員會規程 <input type="checkbox"/> 資格審查 및 技能檢定規程		
22	第4回速記士資格技能檢定試驗合格者發表		
11	速記에 關한 相談		
25	速記 料案内		
54	速記 席		
8	原稿 募集		
1	畫 報<第3回體育大會>		
57	會務 日誌		
58	編輯 記		

題字·表紙그림 海汀 朴 泰 俊 寫真·李 應 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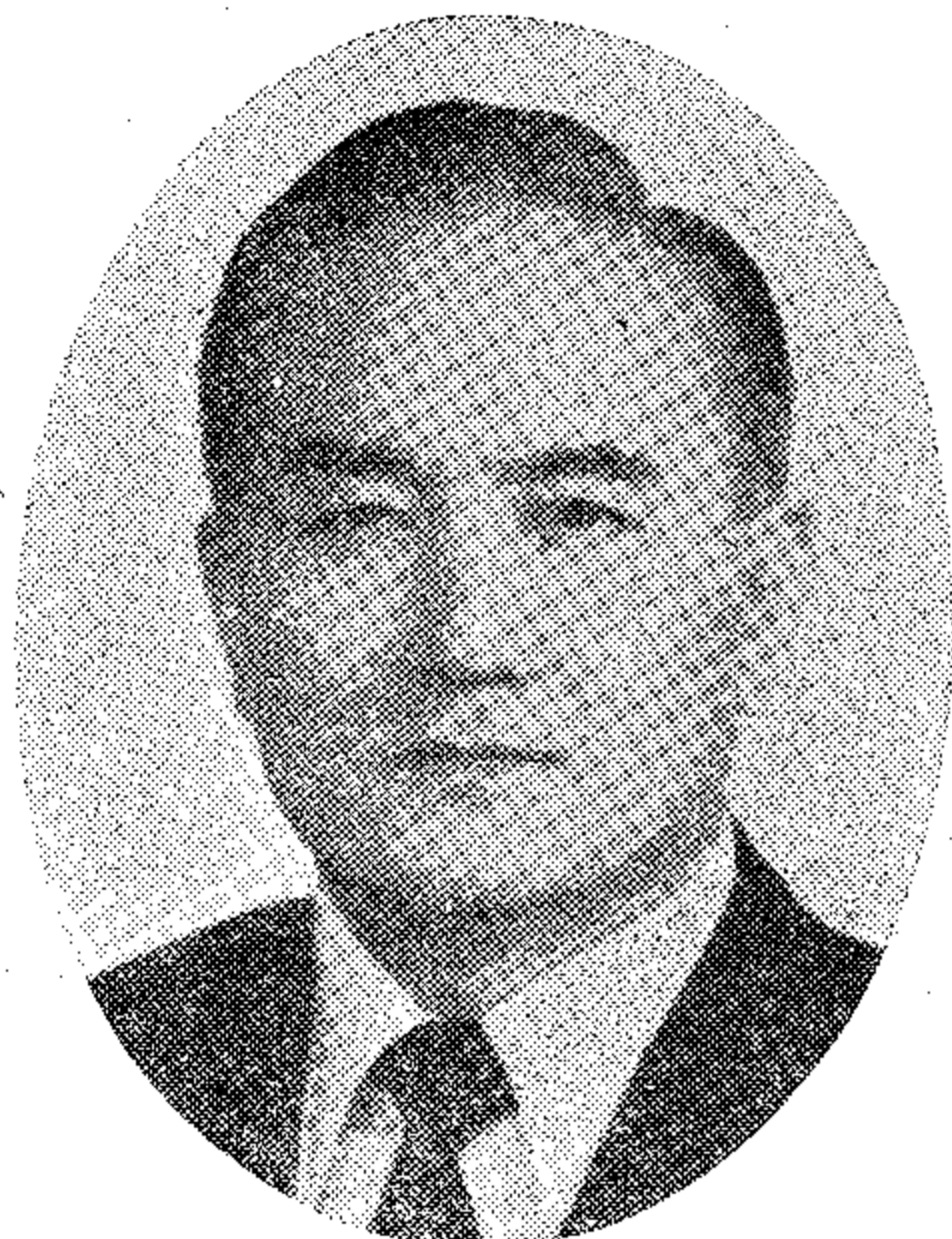


<한희마크>

健全한 精神은 健康한 體力에서

—第3回 速記人體育大會에 붙여—

會 長 金 龍 泰



오늘 第3回 速記人 體育大會에 會長인 本人이 避치 못 할 事情으로 參席하지 못하고 大會長人事를 副會長으로 하여금 代讀케 하는 것을 매우 未安하게 생각하며 회원 여러분의 諒解를 바랍니다.

오늘 公私間 분망하심에도 不拘하고 來賓 여러분께서 우리의 모임에 왕림하셔서 이 자리를 더욱 빛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萬物이 生動하는 5월 이 좋은 날을 택하여 山 좋고 물 맑은 남이섬에서 速記人體育大會를 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항상 자기 生業에 종사하느라고 各界에 흩어져 있던 速記人들이 비록 하루일망정 한 자리에 모이게 되는 것 더욱 뜻깊다 하겠습니다.

平素에 여러분께서는 公害에 쪼들은 都市生活을 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분들이 맡은 業務가 늘 緊張된 가운데서 神經을 써야 하는 速記業務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會員 여러분들은 健康管理에 남달리 留意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着眼하여 시작한 것이 本體育大會인 줄 알고 있으며, 해마다 더욱 內實을 期하는 大會가 되고 있음에 會長으로서 마음 든든한 바 있어서 비록 오늘 이 자리에 參席하지는 못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 흐뭇함을 禁할 수 없습니다.

國力培養이라는 커다란 國家的인 次元에서 볼 때에 體力은 곧 國力이기 때문에 體力단련은 艱요한 일이며 그렇기때문에 政府에서는 體育를 장려하고 여기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健全한 精神은 健全한 身體에서 우러 나온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이 모임이 짧은 하루에 지나지 않지만 會員 여러분 各自의 體力을 增進시켜줄 뿐만 아니라 會員相互間의 친목과 단결을 도모하며 여기에서 단련된 鬪志와 體力은 來日의 여러분의 活動에 새로운 活力素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자칫하면 野外의 모임은 퇴폐적 行樂으로 흐르기 쉽고 경기는 勝負에 執着되기 쉽습니다

오늘의 경기는 優勝에 力點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를 통한 강인한 鬪志, 강건한 體力을 기르는데 있다는 것을 會員 여러분은 銘心하시고 부디 「페어플레이」로 임하여 깨끗한 경기를 보여 줄 것을 당부합니다.

끝으로 오늘의 이 體育大會가 알찬 열매를 맺어 여러분의 心身에 큰 도움을 주고 즐거운 하루가 될 것을 멀리서 빌며 大會長人事에 가름합니다. (國會議員)

第 3 回 全國速記人 體育大會

金 致 元

新綠이 푸르른 5월에 漢江이 구비쳐휘
도는 南怡섬에서 本協會主催로 每年 열리
는 축구와 육상을 겸한 親善體育大會를
今年에도 盛大히 開催하였다.

여기 그 經過를 소상히 알리면서 이 푸
짐한 잔치를 기회로 親睦과 團結을 더욱
공고히 할것을 會員諸位
와 더불어 다짐하는 바
이다.

☆ ☆

1. 日時：1973年 5月 6日(日)
2. 場所：남이섬
3. 參席會員：151名
4. 競技種目：蹴球 및 陸上競技
5. 지난大會 經過報 告(理事長)

☆ 第1回體育大會

1971. 4. 17 城北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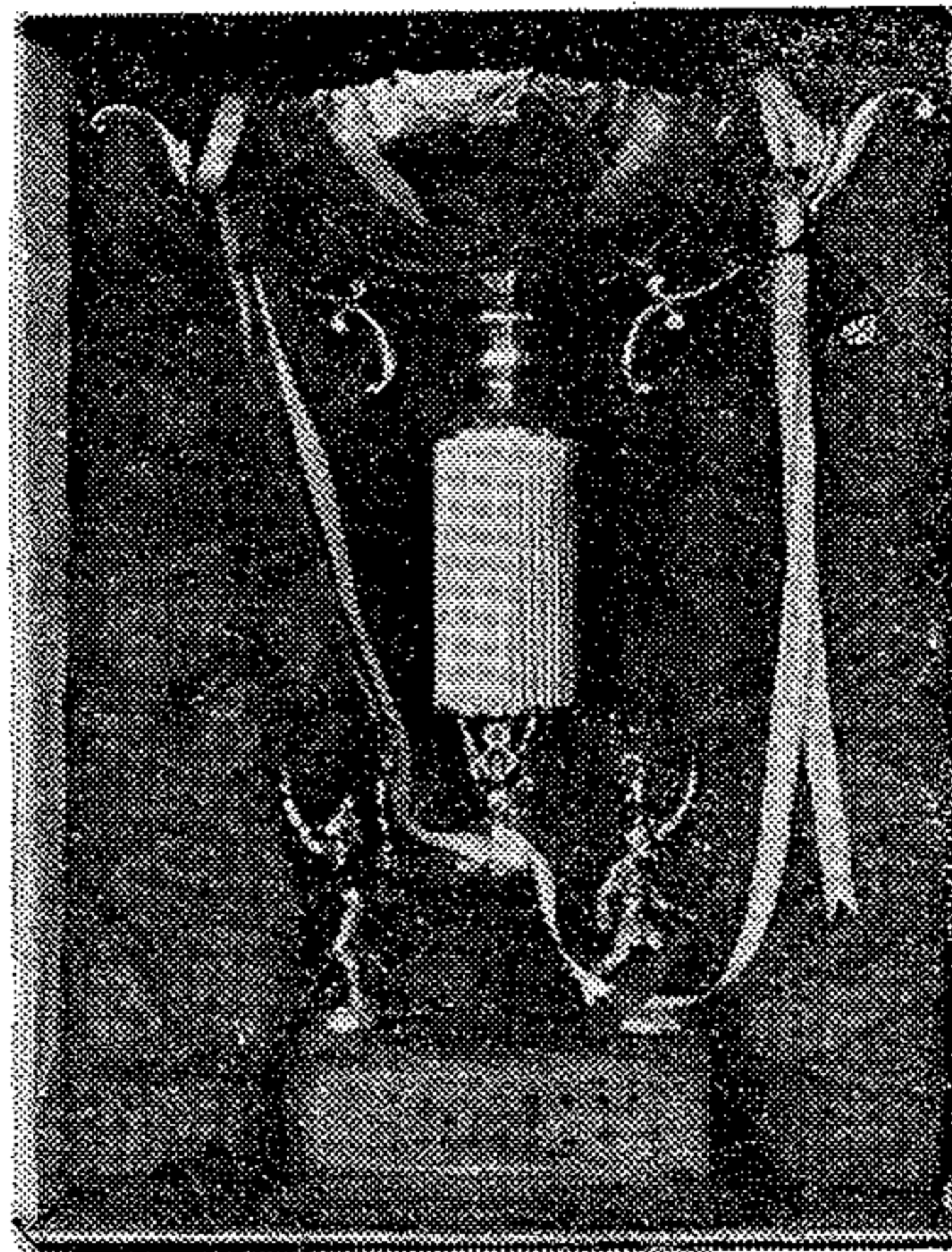
新興寺뒤 廣場에서 排球競技를 가
졌음.

參席會員：會員 116名 來賓約干名

對戰結果：優勝 第6組(組長 申世華)

準優勝 第4組(組長 崔錫模)

☆ 第2回體育大會



승리의 감격과 환희의 축배를
표현한 會長컵

1972. 5. 7 安城 공도중학교에서 蹴
球競技를, 대림동산에서 野遊會를 가졌
음.

參席會員：會員 136名

來賓·徐相濂議員 國會事務總長

京畿道知事 國會各局課長 外 多數貴
賓參席

對戰結果：優勝 청룡팀

準優勝 독수리팀

6. 本大會를 위한 贊助

丁一權議長 金一封

金振晚副議長 金一封

金龍泰會長 金一封

維政會 金一封

鮮于宗源國會事務總長

金一封

崔致煥京鄉新聞社社長

金一封

7. 大會長人事(金鎮基副
會長 代讀) 本紙卷頭
參照

8. 李鎬賑國會事務次長祝辭

速記士는 立法議院 當時부터 오늘
까지 이어온 뿌리깊은 底力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協會를 通하여 需要, 普
及, 人和團結에 힘쓰고 있는바 그 一
端으로 今日 體育大會를 주선하여 개

최함에 祝賀를 보낸다는 要旨의 祝辭.

9. 金龍泰會長의 第9代國會議員當選祝賀肖像畫 贈呈

製作概要：本肖像畫는 金龍泰會長의 著書인 「來日의 十字路」라는 作品의 內容을 담은 速記文字畫로서 1970年度 速記學術展示會當時 速記文字畫로 朴正熙大統領閣下の 尊影을 製作했던 金鍾壽畫伯의 力作임.

製作者：金鍾壽畫伯(國會速記課)

製作에 所要된 速記文字總字數：

80,500字

製作所要日數：1個月(1973. 4. 1~4. 30)

10. 安仁寧前理事長에게 感謝牌 贈呈

11. 各 팀 紹介

황소팀：國會速記課 1, 2係會員

청룡팀：國會速記課 3, 4係會員

백호팀：國會速記課 5, 6係會員

독수리팀：國會速記課編輯係會員 및 全國에서 모인 會員

12. 對戰結果

◇ 蹴球競技

優勝 황소팀 準優勝 청룡팀

共同3位 백호팀, 독수리팀

◇ 800m繼走競技

1位 독수리팀 2位 청룡팀

3位 황소팀 4位 백호팀

◇ 업고뛰기競技

1位 독수리팀 2位 황소팀

3位 청룡팀 4位 백호팀

◇ 공굴리기競技(女性)

1位 백호팀 2位 청룡팀

3位 황소팀

◇ 만물상競技(女性)

1位 백호팀 2位 청룡팀

3位 황소팀

◇ 공굴리기競技(本部席)

1位 國會事務次長팀

2位 劉龍珪國會專門委員팀

3位 速記術創案者팀

13. 準備委員：本部任員

主管 事業部長 高用培

司會 國會速記課2係長 李東一

渉外 國會速記課4係長 崔錫模

進行 國會速記課6係長 申世華

☆ 南 怡 記 ☆

○平素 餘暇를 틈내어 體力과 技術을 닦아온 各 팀의 蹴球競技水準은 가위 Semi-pro級이었다.

특히 速記界의 「펠레」로 혜성처럼 나타난 황소팀所屬의 李承哲선수의 활약은 本팀을 勝利로 이끈 原動力이 되었다.

韓國版 「말레이시아」팀이라고 불릴만큼 철통같은 수비를 자랑하던 청룡팀도 무릎을 꿇었으니까……

앞으로는 各 팀간에 우수선수의 치열한 「스카우트」경쟁이 일법도 하다고 일각에서 수근수근

○이기려는 過慾으로 「리레이코스 라인」안으로 안으로 달려드는 선수들로 因해 1等도 2等같고 2等도 1等같던 800m「리레이」경기라든지, 알벤 오리처럼 뒤뚱뒤뚱 모이 쪼러가는 장끼거나 암탉쫓는 장탉처럼 종종걸음으로 웃음을 샀던 업고뛰기 시합이랄지, 뛰는 경기라는 것은 아예 잊은듯 아랑곳 없이 마냥 예쁘게만 예쁘게만 「스텝」을 밟으며 승부를 겨룬 여자공 굴리기 「게임」이라든지, 옛 어릴적 운동회때 종이

에 써진 사람(대개 선생님이나 웃어른)을 찾기에 초조하고 급해서 동동동 발을 구르다 어찌다 그분이 나타나 주면 반가움이 어머니같고 아버지같아 꼭꼭 손잡고 같이 풀인지점으로 내달던 기억이 되살아 즐거움이 샘물처럼 솟았던 여자만물상 경기라든지, 모두가 아름다운 自然과 즐거운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 화기 가득한 한쪽의 그림이었다.

이 光景을 보시고 李鎬賑國會事務次長

께서는 우리와 自然을 읊은 卽興漢詩(畫報參照)한 首를 주시어 자리는 더욱 빛났으며 흥취는 더욱 도도하였다.

○이제는 蹴球決勝競技를 午後로 미루어 疲勞를 덜어야겠다느니, 「를」을 지키는 「스포츠 맨 쉽」을 다져야겠다느니, 競技種目이 다채로워 누구든 다같이 기뻐서 場所, 雰圍氣 모두 1流였다느니, 하는 나름대로의 평가를 내리면서 夕陽 노을 디디며 歸京을 서둘렀다. <本協會 記者>

※ 短期講習用 速記法式 成案中!

社團法人 大韓速記協會 年來의 宿願事業中의 하나인 速記術의 大衆普及과 速記人口의 底邊擴大에 큰 役을 擔當할 短期講習用速記教案의 創案作業이 1973年 3月부터 研究委員會의 主管으로 推進되어 오다가 1973年 10月 2日 金鎮基副會長, 金永善理事長, 鄭源道速記第1係長, 李東一速記第2係長 그리고 協會 幹部 여러분의 參席裡에 速記士養成所에서 該간의 研究 結果에 대한 1次發表會를 가짐으로써 今年 冬季無料講習에 對備한 短期講習用教案이 머지 않아 成案段階에 이르렀다.

그동안 14次의 小委員會를 거치는 동안 수 많은 迂余曲折을 겪으면서 難航에 難航을 거듭한 끝에 내놓는 作品이 어떨지 자못 期待되는 바 크다. <致>

原 稿 募 集

다음 제13호는 12月末에 發刊됩니다. 會員 여러분의 權益을 代辯하고 會員相互間의 紐帶와 速記研究 發表의 窓口노릇을 함으로써 速記文化에 寄與코자 함이 本會誌의 發刊취지인만큼 여러분의 어떠한 投稿도 환영합니다.

다음 要領에 의해 서슴치 마시고 會誌編輯子에게 보내 주십시오.

☆보내실 곳: 本協會 宣傳部(國會速記課第4係) Tel (72) 6140

- ◇表紙그림.....세로 가로 15cm 정도
- ◇研究論文.....200字原稿紙 20~40枚
- ◇速記實務.....200字原稿紙 15~25枚
- ◇回 想 記.....200字原稿紙 15~25枚
- ◇隨 筆.....200字原稿紙 15~20枚
- ◇詩, 時調, 散文, 기타 提言등

空間의 活用

尹 載 秀

一. 前 言

二. 時間을 對하는 觀念

1. 時間은 黃金이다.
2. 時間은 生命이다.
3. 時間은 목숨이다.

三. 時間의 活用

1. 눈
2. 입
3. 손
4. 발

四. 娛樂時間의 活用

1. 見而不視
2. 口而不說
3. 手而不作
4. 足而不動

一. 前 言

空間의 活用이라 題하였으나 이는 宇宙 間에 있어서 우리가 사는 곳에서 時間을 活用하는 것이다. 1日 24時間 먹고 일하고 자고 하는 時間中에서 活用은 勿論 以 外의 娛樂등 餘暇를 最大限으로 節約하여 活用하여 보자는 것이 題目을 붙이게 된 動機인 것이다.

二. 時間을 對하는 觀念

이 觀念은 두 가지로 나누어 진다.

첫째는 時間을 여러나라에서 黃金에 比 喩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오직 한 나라만이 時間을 生命 에 比喩를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 時間은 黃金이다.

우리는 通常 時間을 黃金에 比喩하는 例를 어디서나 듣는다. 特히 이 時間을 우리나라에 있어서 누구에 의하여 언제부 터 어떤 뜻에서 이와 같이 黃金에 比喩하 는 格言 아닌 格言이 돌고 있는지? 筆者 가 너무 愚昧한데서 온 所致라면 容恕와 아울러 多多指教를 바랄 뿐이다. 흔히 黃 金에 比喩하는 말을 자주 듣는 것은 外來 語에서 끌어 드린 것이라고 느껴져 이를 許容한다면 먼저 몇개나라의 時間에 관한 格言을 들추어 보기로 한다.

- 1) 英 語 : Time is money(gold).
- 2) 西班牙語 : Tiempo es oro (띠엔쁘 에스 오르로)
- 3) 佛 語 : Temps est or(땅 쎬 포르)
- 4) 獨逸語 : Zeit ist Geld(차이트 이 스트 겔트)
- 5) 日本語 : 時は 金なり

(註) 筆者는 1959年 現國會速記士養成所의 前身인 同養成所를 履修하고 國會速記課에 在職中 台灣大 學校大學院인 法學院에 留學 東洋法制史를 研究 碩士學位를 받고 歸國하여 現在 法制處專門委員임

以上 몇개나라에서, 時間에 관하여 格言에 內包되고 있는 뜻이야 어떻든 黃金에 比喩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을 것이다. 速斷은 禁物이요 또한 不許하겠으나 얼핏 보기에 무엇보다도 重한 것이 黃金(돈)이요 鬼神도 부릴 수 있다는 萬能을 자랑하는 拜金思想에서 온 思考라고도 보여져 이렇게 時間에 對하여 觀念化한 것이 아닌가 한다.

2. 時間은 生命이다.

여기 時間에 관한 格言에서 오직 하나의 색다른 比喩 “時間即 生命”(時間은 즉 生命이다)를 본다. 이는 中國의 格言인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大陸性을 지녔건, 島國根性을 가졌건 내노라하는 數個의 나라가 모두 黃金에 比喩하였건만 中國만이 時間에 對한 觀念을 人間의 生命에 比喩하였을까...

아마도 이에 對한 第3者의 解明이라면 무엇보다도 앞서야 할 黃金以前의 “삶의 生命이라”고 짚막하고도 明瞭한 對答으로 代身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이 黃金과 生命의 差異는 여기서 曰可曰否의 是非를 주제넘게 벌리지 아니하여도 自明할 것으로 重言附言을 避하는 바이다.

3. 時間은 목숨이다.

이 時間에 관한 우리의 格言이 “時間은 黃金이다 生命이다”가 아니고 또한 우리가 이미 어떠한 格言을 가지고 있다면 몰라도 없다면 “時間은 목숨이다”라고 말하여 보고싶다. 어떠한 自體의 格言을 가지는 것도 意義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져서 叱正을 바라면서 提起하는 바이다.

三. 時間의 活用

時間의 活用に 있어서는 눈, 입, 손,

발의 네 가지 方面에서 그 活용을 들어 보기로 한다.

1. 눈 : 눈을 다시 떠 봅시다. 그리고 바른 方向으로 瞳子를 돌립시다. 江 건너 바다 건너편도 다시 뜨고 보되 가까운 자신의 발등도 다시 한번 봅시다.

2. 입 : 입은 眞實을 말하고 칭찬은 못할 망정 非難을 맙시다. 이 입은 飲食을 하고 言語를 發하는 人體의 關門이므로 지나치게 發動하면 二元的인 憂患을 사기 때문이다. 그 하나는 病이요, 또 다른 하나는 口舌數로 兩者가 다 度가 지나치면 一身의 存亡을 左右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過多한 發動은 時間의 浪費만이 아닌 그 活용을 絶道하는 正反比例의 作用을 일으키는 것이다.

3. 손 : 손은 勤儉하고 懶怠하지 맙시다 부지런히 勤儉하게 動用하면 時間을 얻는 것이다. 이 손을 말아쥐면 주먹이 되고, 펴면 손이 되는 것으로 부지런하거나 잘 말아쥐면 그 結果는 嘉尙할 것이다. 懶怠하거나 잘못 말아쥐면 蠻勇을 부리기 쉬우므로 삼가지 않으면 時間의 活用に 沮害를 받는 것이다.

4. 발 : 標的인 길(道)을 目標로 바른 方向으로 감시다. 即 눈을 아무리 잘 뜨고, 입은 眞實을 말하고, 손이 勤儉하여도 발의 行하는 方向이 一致하지 아니하면 그 所期한 目的을 達成하지 못하고 時間을 浪費하게만 되는 所致를 招來할 것이므로 當初에 目標를 세우고 定한 標的으로 邁進하되 一直線으로 行하여야 할 것이다. 이가 곧 時間을 活용하는 네 번째 方便일 것이다.

四. 娛樂時間의 活用

우리는 日常生活에 있어서 자고 일하고 먹고하는 時間外에 娛樂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 娛樂의 定義가 恒常問題로 登場하게 되는데 무엇을 娛樂이라고 할 것인가 이는 어떤 讀書, 鑑賞, 일 노름, 수집 및 食道樂을 自己自身이 즐겨서 行하는 것이 娛樂이 아닌가 하고 불러 보고 싶다. 勿論 某 一種은 讀書요, 鑑賞이요, 工夫요, 일이요, 수집이요, 食道樂이니까 情緒나, 趣味나, 嗜好가 되지 노름이 아닌데 어째서 娛樂이냐고 할지 모르겠으나 自己自身이 즐겨서 行하는 모든 것이라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娛樂化한 것이 아닌가 하고 보고 싶은 것이다. 때문에 이 娛樂의 定義를 擬制하되 某 個人이 스스로 즐겨서 行하는 某種의 한 가지가 即 娛樂이 아니냐고 들어 보는 바이다. 예를 들어 時間을 아끼고, 남보다 빨리 듣고, 보고, 쓰고싶어 餘暇를 틈타 速記를 工夫아닌 趣味나 娛樂삼아 배워 使用하여 본 것이야말로 뜻하지 아니한 職責이 주어질 줄이야! 비단 이 뿐만이 아니요 偶然한 機會에 즐겨 배우며 놀던 某 一種의 한 가지가 專門家의 境地에 到達하여 크게 時間을 自身도 모르는 사이에 活

用하게 된 事例가 많은 것을 周圍에서 보게 된다. 그렇다면 이는 娛樂이든 아니 무엇이든 健全하다고 보아지는 것이다. 反面 눈에害롭고 心身에 害를 주는 어떤 無形 有形의 形態인 즐김이라면 이는 不健全한 娛樂으로 보아져 浪費의 對象이 되는 것이다. 여기 娛樂의 定義를 물으면서 들어 보고싶은 것은 情緒, 趣味, 嗜好나, 娛樂같지 아니하거든 그 곳으로 눈을 떠서 보거나, 입을 놀리거나, 손을 대거나, 발을 움직여 行하는 것은 處身함에 있어 이로 말미암아 浪費되는 時間은 그 活用을 沮害하고 亡身을 하는 要因이 되는 것은 말할 餘地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오락답지 않거든 위에서 말한 네 가지로서 물리쳐 보자는 것이다. 물리친다면 이야말로 一舉兩得으로 時間의 活用은 最大限으로 發揮되었다고 보아질 것이다.

이를 個條로 써보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1. 見而不視 : 눈으로 보아도 본것같이 하지 아니한다.
2. 口而不說 : 입으로 말하지(놀리지) 아니한다.
3. 手而不作 : 손을 대지 아니한다.
4. 足而不動 : 발을 움직여 行하지 아니한다.

速記에 관한 相談을 받습니다(Counselling of shorthand)

國語 및 英語 速記關係資料, 學習, 請託等 速記에 관한 모든 問議는 本協會宣傳部에서 取扱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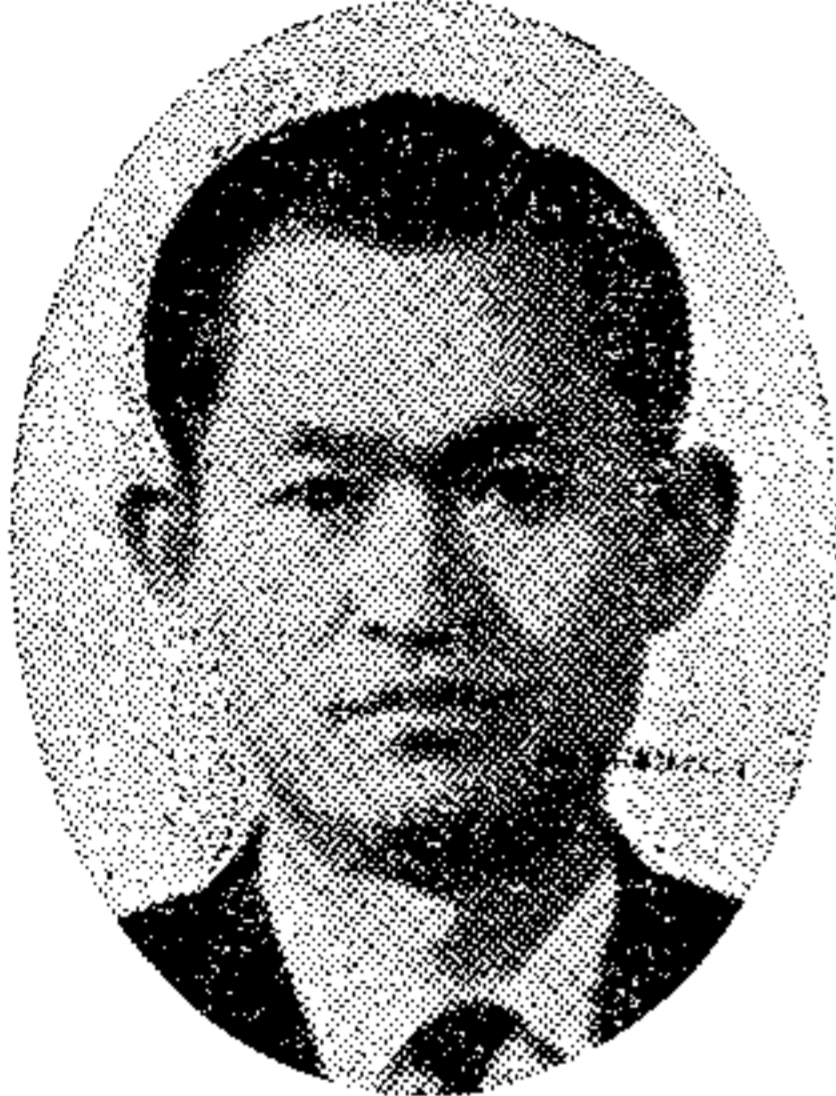
신속하고 친절하게 案内할 것이오니 會員諸位와 速記에 關心있는 많은 분은 널리 利用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相談所(Counsellor) : 本協會宣傳部 Tel 72:6140

(國會速記課 第4係)

有實樹를 키우면서

金 永 善



71·72年度에 耐虫性 밤나무 接木苗 1年生이 1株當 60원에서 70원 정도였는데 今年度에 와서 200원에서 250원까지 했다. 그 래도 苗木이 없어서

소동이 나는 상황이었다. 그外에 은행나무를 비롯해서 모든 苗木이 2배 내지 3배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왜 이렇게 갑자기 苗木의 수요가 늘었는가? 政府施策으로 새마을事業을 벌리는 것이 어느 面으로 보면 國土의 綠化事業과 같이 보일 정도로 새마을사업에서 나무를 많이 심고 있고 또 國家的으로 造景事業을 많이 하는 理由도 있지만 그 根底에는 有實樹를 심는것이 經濟的으로 利益이 된다는 判斷이 많은 國民들의 마음에 깃들기 시작한 때문이 아니겠는가 한다. 비단 有實樹뿐이 아니라 나무를 심는것이 10年을 目標로 하는 事業中에는 가장 좋은 計劃이라고 옛부터 일러왔었고 좋은줄은 알지만 그 成果가 너무 長時日 後에 나타난다는 缺點때문에 널리 經濟的 植樹가 普及되지 못했다.

몇年前에 내 故鄉 親舊가 植木을 勸하

던 말이 생각난다. 月給에 매달리지 말고 落葉松을 10萬坪만 심으라고 권하면서 그 利益의 정도를 다음과 같이 力說했다. 落葉松은 坪當 3株를 심어서 2株는 中間에 間伐하고 最終的으로 한 株만 키운다. 그런데 심은 첫해에는 肥料주고 풀 베주고 그 이듬해까지 풀을 베어 주어서 어린 苗木이 풀에 치이지 않게 해주면 그 다음에는 盜伐防止만이 할 일이 된다. 7,8年째에 가서 坪當 1株를 間伐하면 「콩크리트」잡지을때 쓰는 받침대감이 된다. 이것만 팔아도 既往의 경비는 다 빠진다. 15,6年째에 가서 또 坪當 1株를 間伐하면 이번에는 발판감이 된다 이번에는 收益을 보지만 이것도 計算外로 하자. 남은 坪當 1株는 20年만에 伐採하게 되는데 이것을 「사이」로 풀이해서 坪當 5,000원 짜리는 된다. 그러나 山에는 바위도 있고 계곡도 있고 산등성이도 있으니까 그 5분의 2만 잡아보자. 그래도 坪當 1년에 100원은 큰 다 하는 數字가 나온다. 10萬坪이면 1년에 1,000萬원씩 財産이 크는 것이 아니냐 무슨 企業을 해서 年間に 1,000萬원씩 畜財가 可能하겠느냐? 하니 結論은 나무를 심어라... 참 富者가 될려면 植木을 해야 겠다는 마음이 생길만한 얘기다.

그런데 나는 이무렵 69年, 70年度에 나무를 심고자 適當한 山을 求하고 있던 참이었다. 기준은 過去에 아람들이 나무가 큰 實績이 있고 車가 들어 갈 수 있으며 坪當 單價 10원 前後여야 한다는 것 등이었다. 그러다가 위의 기준에 가까운 山을 사게 되었는데 이 山은 東南向의 陽地 바른 山이었다. 이것을 選擇했다는 것은 落葉松을 심지 않고 쉽게 애기해서 用材林의 造林이 아니고 有實樹를 심겠다는 前提였다. 그것은 資本의 회임기간이 제일 짧은것을 찾자는 意圖였기 때문에 밤나무를 主品種으로 挾하게 되었던 것이다. 既往에는 山이나 밭둑에 밤나무가 자라면 밤이 열 때를 기다려 밤을 따 올 뿐이었는데 이런 경우 밤나무밭이라기보다는 밤나무숲이 되는 것이다. 밤나무의 性質이 喬木型이라서 巨木으로 나무가 자라고 밤은 얼마 열리지 않으며 實生苗인 경우에는 한 7年 커야 밤이 달리기 시작하고 큰 나무에 적은 量의 밤이 여는 것이다. 이런 밤나무를 나무는 작고 열매가 많이 열리는 果樹型으로 바꾸고자 밤의 主產國이라 할 수 있는 「이탈리아」와 이웃 日本에서 많은 研究를 했지만 結果적으로 失敗했다고 評價되고 있다. 이것을 水原 有實樹科學研究院의 朴教秀씨가 밤나무가 喬木型으로 크는것은 곧은뿌리 中心으로 밤나무뿌리가 크는데 原因이 있다고 보아 곧은 뿌리를 除去하고 잔 뿌리가 많이 자라게 하는 幼根逆位接木法을 開發하여 理論적으로 體系化시킴으로서 밤나무의 果樹型化에 進一步하여 밤나무 果樹園을 이룰 수 있는 터전이 마련 되었다. 幼根逆位接木法이란 무엇인가 하면 밤이 싹이 틀때

插穂를 接木하는 方法이다. 在來式方法은 산 밤을 심어서 1年 키워가지고 그 다음 해에 삼수를 접부치는것이 通例인데 이 새로운 方法은 밤에 접 부치니까 皮相적으로 是 養苗業者가 1年이라는 歲月을 번다는 利益뿐이지만 內容적으로는 밤나무가 喬木型으로 크는 原因이 되는 直根中心의 뿌리發達을 細根이 많이 뻗도록 直根을 除去하는 것이다 밤이 싹이 날때에는 콩나물이 크는것과 같이 直根이 먼저 나온다. 이것을 자르면 뿌리의 組織이 6개의 가는 뿌리가 나올 수 있게 되어 있다. 여기에 밤알을 거꾸로 해서 選拔된 삼수를 접부치면 直根의 發達은 停止되고 6個以內的 細根이 發達하여 地上部의 나무로 하여금 果樹型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다. 接木苗 1年生은 심은 當年에도 밤이 열릴 수 있는 것이며 웬만치 肥培管理를 하면 約 7年이면 1株當 한말의 밤이 열릴 수 있는 것이다. 또 이 接木苗의 植栽는 옛날 같이 나무가 클수록 結實量이 많다는 前提에서 疎式大木方式으로 10a當 12株 정도 심어서 15,6年 가야 수확을 본다는 方法이 아니고 密植小木植栽方法으로 10a當 30~40株, 심지어는 超密植栽培로 10a當 96株까지 심어서 植木한 그 이듬해 또는 그 다음해부터는 正常수확을 보도록 심는 方法을 採択할 수 있는 것이며 나무가 커감에 따라 剪枝 또는 間伐로 계속적인 다수확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또 이 다수확을 지속하기 爲하여 葉面積指數理論을 導入하는 것이다. 이는 果實의 生産과 葉面積의 多少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인데 예컨대 굴의 경우는 20내지 25개의 잎에 果實 한개의 結果가 理想的 配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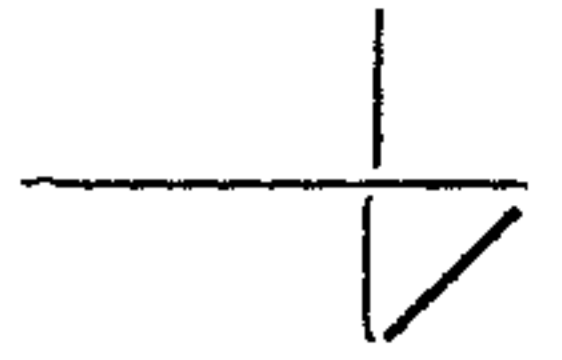
이라고 한다. 이와같은 잎과 과실의 비율은 每年 계속해서 果實을 맺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다수확의 基本的인 문제는 葉面積의 多少에 있고 葉數가 많고 葉面積이 增大하면 그 同化 養分の 生成이 많아서 많은 果實을 生産케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樹型을 옛날처럼 俗離의 연거리소나무型이 아닌 在來種 포푸라型으로 만들라는 것이다. 이것은 有效容積率의 理論으로서 나무 전체 容積에 對한 有效容積의 %를 말하는 것인데 外部나 内部의 無效容積을 最少로 줄이기 위하여 正正으로 樹冠의 幅을 좁히고 단위면적당 식재본수를 늘리고 主幹을 높이면서 直直하게 直直해서 單位面積當 最大의 葉面積을 確保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밤밭은 밤工場으로서 年年歲歲 많은 量의 밤을 生産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理論的 뒷받침을 가지고 밤나무 밭을 만드는데 그 理論을 現實化시키기 爲하여 最善을 다 할 覺悟로 일을 하고 있으나 내 覺悟와 實踐사이에는 現場 作業者라는 媒介가 있으니 더욱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더구나 이 일은 1·2년에 끝나는 일이 아니고 올해 3년째인데 이제 첫 수확을 볼 것같은 豫感이 드나 不過 얼마 안될 것이고 약 7년 커서 株當 한말 정도의 수확을 보고 약 20년이던 除去할 때가 온다는 것이다. 成長이 빠른 代身 衰退도 빠른 것이다. 이 때를 對備하여 10a當 10餘株의 호도나무를 키우면서 밤밭이 20年後에는 호도 밭으로 變貌할 것을 前提로 서서히 計劃을 세워야 한다. 거기다가 또 한가지 問題가 있다. 農業自體가 탄력성이 없는 業種이다. 거기다가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10年, 20年後를 보는 것인데 그때의 수요 가격을 어떻게 전망하겠는가. 萬若에 밤의 大豐作으로 팔리지 않는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가정에 절대 그럴 리 없다고 할 수 있을까. 1年, 2년에 대개 수확을 보는 藥草

栽培者의 경우 아무리 有望한 品種이라 해도 한가지 品種만 심는 것은 可惜하는 것이다. 적어도 有望視되는 세가지 品種以上을 選擇하여 栽培해야 確率的으로 맞기 쉽다는 前提다. 즉 農業은 탄력성이 없으니까 草決明을 심어 가지고 자라고 있는데 가격전망이 김 매는 값도 안 나올 것 같다 해서 7·8월에 갈아엎을 수는 없는 것이다. 勿論 漢藥材값보다는 實果값이 더 安定的이고 수요도 더 많고 하니까 比較的 安定的이라고 一應 判斷할 수 있지만 이것은 10年, 20年後의 수요이고 價格문제이니깐 일단 不利한 方向을 考慮아니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밤나무만 심지 말고 호도나무, 감나무, 대추나무등 人件費가 적게 드는 나무를 심든가 아니면 아주 企業的으로 矮性사과나무나 배나무 즉 管理費가 많이 드는 果木을 兼하여 보다 安定된 收入을 보도록 企劃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단순한 收入源이 아니고 休養하고 子女들의 自然공부를 할 수 있는 多目的 農園으로 키울 꿈을 그려본다. 그러나 現實은 71年度에 밤나무 3,000株를 심어가지고 現在 1,000餘株가 죽고 近 2,000株의 밤나무가 자라고 있을 뿐 營生하기 짝이 없는 산비탈에 前主人들이 가꾸어 놓은 감나무 10餘株, 호도나무 5, 6株, 뽕나무, 대추나무등 정리 안된 粗雜한 現況이 눈앞에 展開 될 뿐이다. 단 하나 믿는 것은 나무는 正直하게 肥培管理한 만큼 자라고 열매 맺어 준다는 哲學을 믿으며 어떤 人間關係에서 처럼 努力이 헛되게 되지는 않을 것을 確信하면서 3年前에 회초리같이 가는 苗木을 심은 것이 現在 2m 정도 큰 밤나무로 變한 것을 볼 때에는 흐뭇한 시간을 가질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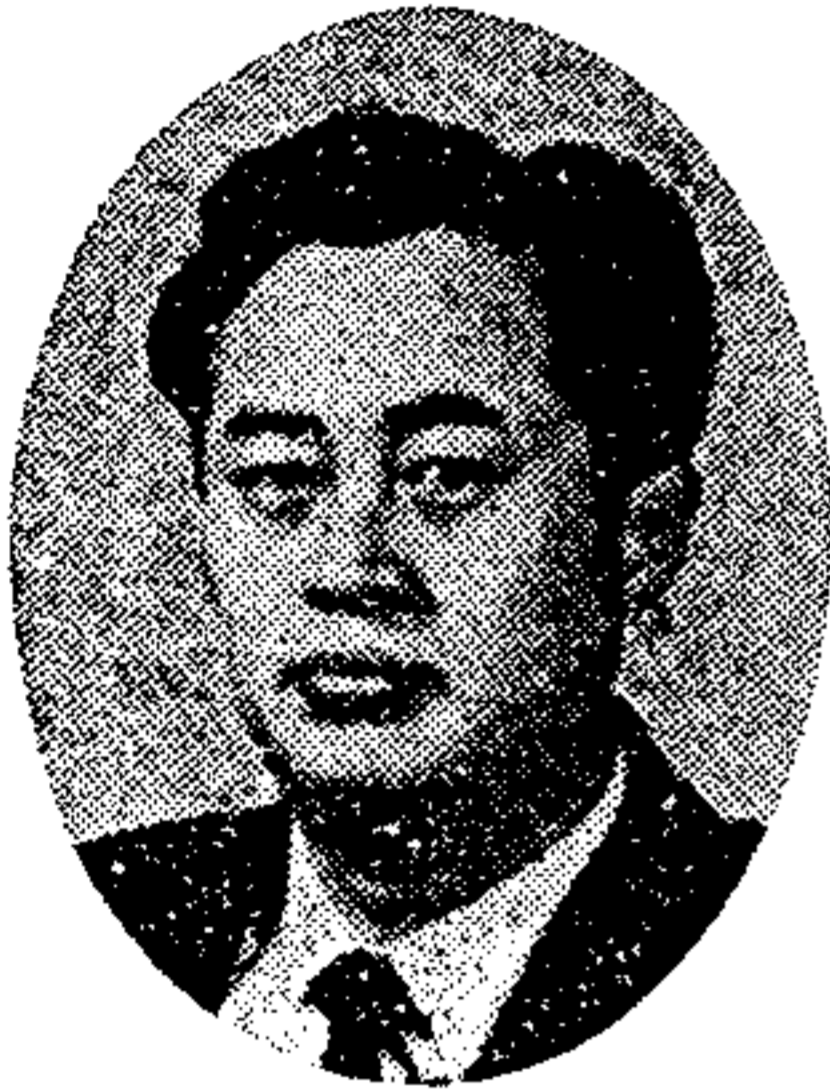
現在 收入은 없으나 希望을 주니까 그것만 해도 들인 努力의 代價는 받는 것 같다.

<本協會理事長>



貴金屬과 寶石

朴 相 昱



귀금속과 보석에 대해서는 이제 겨우 유치원생 밖에 되지않는 본인에게 우리 회원을 위해서 한마디 언급해야 된다는 편집자의 엄명(?)때문에 어쩔

수 없이 펜을 들기는 들었지만 사실 이 글이 우리 회원들에게 얼마나 도움을 줄지는 의문이 갑니다.

그러나 본인의 보잘것 없는 지식이나 마 회원 여러분의 생활상식에 다소나마 보탬이 된다면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는데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도 용기를 내어 펜을 들어보았습니다.

원래 귀금속이나 보석 하면 어딘가 우리네 생활과는 거리가 있는듯 하면서도 그 말만 들어도 매력을 느낌에는 틀림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지난해 가을 모 보석학원의 매혹적인 신문광고를 보고 평소 뭔가 여가선용을 유효적절히 해서 장내에는 좀더 발전된 생을 영위해 보고싶다는 본인 마음에 불을 붙여 학원문을 두들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석감정과 세공에 대한 권위자

가 되었다가 어느때인가는 이 방면에 종사해 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부지런히 돈을 벌게 되면 나도 한번 우리나라의 멋진 귀금속계의 일원이 되어 보아야겠다는 과욕을 안고 2개월 「코스」의 학원을 졸업했으니 이제 겨우 유치원생의 실력밖에 되지않는 셈입니다.

그러면 이 미진한 실력을 가지고 회원 여러분을 위해서 보석에 대한 정의, 종류와 귀금속에 대한 간단한 상식의 순서로 엮어 가면서 결론을 맺어볼까 합니다.

우선 보석계에서 귀금속이라면 잘 아시다시피 영원히 그 모습이 불변하는 금, 백금을 비롯해서 은 등을 말하는 것이고 보석이라면 「다이아몬드」를 비롯해서 「에메랄드」「루비」「사파이어」 비취등을 말하는 것인데 보석이라 함은 자연변화에 의하여 생성된 암석중에서도 첫째 그것이 미관적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미관을 영구히 지속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추어야만 되는것인데 지구상에 그 많은 암석이 있지만 미관적 요소를 영구히 지속할만한 암석이 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 하면 미관적 요소를 영구히 지속하려면 우선 암석이 보기에 아름답다워야할 뿐만 아니라 세월이 흘러도 그 아름다움

이 영원히 변치않아야 할 것이고 어느정도 이상의 경도(硬度: Hardness)를 지니서 지구상의 많은 물체와의 마찰에서도 소모가 되지않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제 요소를 갖춘 암석일지라도

1) 색의 종류(적색이나, 청색이나, 녹색이나등)에 따라서

2) 색의 고름, 선명도

3) 투명, 불투명등에 따라서

보석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인데 현재 지구상에서 보석으로 발견된 것은 220종류가 있다고 문헌에 나와 있지만 그중에서 실제 상품화 되어있는 것은 36종류가 됩니다. 그것을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으므로 여기서는 중요한 몇가지에 대해서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보석을 분류하자면 천연보석과 인공보석으로 분류되는데 인공보석은 다시 합성보석과 모조보석으로 구분됩니다.

합성보석이란 천연보석과 동일한 물질을 사용해서 인공적으로 만든 보석을 말하는 것이고 모조보석이라 함은 유리를 사용해서 외관이 천연보석과 비슷하게 보이도록 만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보석도 일단 상업상 귀보석과 반귀보석, 준보석으로 구분되며 귀보석중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중에서 가장 경도가 강하다는, 그리고 찬연한 휘광성을 발휘한다는 「다이아몬드」를 비롯해서 별과같은 광채를 발휘하는 성체강옥석 (스타루비, 부랙스타등), 또 수만가지의 빛이 찬란하게 움직이는 것같은 장관의 아름다움을 가진 미관적가치 최고의 「오팔」, 그리고 적(赤)색을 대표하고 젊음과 생명력을 상징한다는 「루비」, 청색을

대표하고 원숙, 안정, 중년을 상징한다는 「사파이어」, 녹색을 대표하고 평화와 지(智) 인(仁), 덕(德)을 상징한다는 「에메랄드」, 비취등을 비롯해서 아름다운 광택을 나타내는 진주, 고양이 눈 같이 반짝인다는 「갯사이」, 밤과 낮에 색깔이 다르게 보이는 「아렉산더 라이트」등이 있고, 반귀보석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나는 수정을 비롯해서(그중에서도 우리나라 자수정은 청순을 상징하는 자색의 대표보석으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보석임) 황색의 대표보석이며 紅海의 소도시 Topaz에서 생산된다는 黄色최고의 「토파스」, 「다이아몬드」의 손자벌쭝 된다는 「질콘」, 또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볼수 있는 산호와 호박, 「가네트」등이 있으며 준보석에는 취마노, 자마노등 마노 종류의 보석과 공작의 날개같이 얼룩진 공작석, 장미꽃 모양을 한 에쁜 장미석, 호랑이 눈알같이 보인다는 「타이가이」(타이거 아이)등이 있습니다.

이상의 보석들은 진주를 제외하고는 그경도가 유리보다 강한것인데 보석으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유리보다 강해야 귀한 보석층에 끼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참고로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중에 혹시 해변가를 산책하거나 산에 놀러갔을때 유난히도 아름다운 암석조각이 발견되거든 집에 가져가서 유리로 한번 그어 보아서 유리에 상처를 입히면 보석적 가치가 있는것이니 운만 좋으면 여러분도 새로운 보석의 발견자가 될수 있다는 희망적인 지혜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귀금속이나 보석을 우리는 대개 언제 구입하게 되느냐 하면 경제

적 여유가 있는분은 평소 구입할 기회가 종종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는 젊은시절 약혼때와 결혼때, 그리고 부모님의 회갑 어린이 돌이나 기타 생일기념 등을 마련 할때마다 어쩔수없이 생소하나마 귀금속 상을 출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 이런 경우 어느정도의 상식은 가지고 있는것이 구입하시게 될때 도움이 될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가장 밀접한 귀금속이라 할수있는 금(金)제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금의 순도표시는 K로 하는데 금이 99.9%이상 함유 되었으면 24K라고 하고 순도 50%의 금은 12K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4K는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순금이라고 하는 것으로 단단하지 않음) 실제 제품은 적당한 양의 다른 금속을 배합해서 만들고자 하는 제품에 알맞게 K를 설정해서 쓰는 것인데 흔히들 말하는 18금이니 17금이니 하는것이 바로 18K, 17K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제품을 살때는 최소한 몇 K짜리인가는 알고있어야 하는것이 상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금의 순도율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하지요.

24K는 100%의 금이 함유되었다는 뜻임.

23K는 95.833%의 금이 함유되었다는 뜻임.

22K는 91.666%의 금이 함유되었다는 뜻임.

21K는 87.5%의 금이 함유되었다는 뜻임.

20K는 83.32%의 금이 함유되었다는 뜻임.

19K는 79.165%의 금이 함유되었다는 뜻임.

18K는 75%의 금이 함유되었다는 뜻임
17K는 70.822%의 금이 함유되었다는 뜻임.

16K는 66.66%의 금이 함유되었다는 뜻임.

15K는 62.5%의 금이 함유되었다는 뜻임.

14K는 58.333%의 금이 함유되었다는 뜻임.

13K는 54.166%의 금이 함유되었다는 뜻임.

12K는 50%의 금이 함유되었다는 뜻임
11K는 45.833%의 금이 함유되었다는 뜻임.

10K는 41.66%의 금이 함유되었다는 뜻임.

9K는 37.5%의 금이 함유되었다는 뜻임.

8K는 33.333%의 금이 함유되었다는 뜻임.

(8K이하는 산화작용에 영향을 받아 제품으로서 사용할수 없는 정도이므로 생략함)

이상의 사실을 상식적으로 아시는 여러분께서는 실제 물건을 구입할때는 어떤것을 확인해야 되느냐 하면 귀금속상에서 물품을 샀을때 보증서를 써주는데 이때 적어도 매입자의 입장에서는 보증서에 K의 표시와 상호, 무게 이 세 가지가 기입이 되었나 확인하시고 금제품에도 상기 세가지의 각인이 보증서와같이 찍혀 있는

지의 興否를 확인하고 사셔야 다음에 어떤 경우에도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금제품에 대해서는 이정도로 해 두고 **다음은 백금반지와 은수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백금의 순도표시는 금과는 달리 %로 표시하는 것으로 95% 이상의 백금이 함유된 것을 만백(滿白) 혹은 만색(滿色)이라고 하고 90%는 구백(九白), 80%는 팔백 50%의 백금이 함유된 것을 오백(五白)이라고도 하는데 현재 시중에서 보백(普白)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시중에서 흔히 팔고있는 백금반지는 백금 지환속에 몇%라고 각인이 찍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백금」이라고만 표시가 되어 있어 금반지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금지환속에는 상호, 무게, K의 표시가 되어있는데 반해 백금지환속에는 특별히 부탁을 받고 만든제품을 제외하고는 상호, 무게, 「백금」으로만 표시가 되어있는 것이며 바로 이 백금으로만 표시되어 있다는 것은 50%의 백금을 함유하고 있다는 표시로 알고 계셔야 매입시 萬의 1이라도 도움이 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생일이나 돌때 흔히 쓰이는 은수저의 경우는 또 어떤가? 은(銀)의 순도도 %로 표시되는데 대개 기성 은수저의 경우 특별히 주문에 의해서 만든것이 아니면 상품(上品)이라는 것이 70%의 은이 함유 되었고, 중품(中品)의 경우는 60%, 하품(下品)의 경우는 50%가 들어있으며, 조잡품은 40%까지 함유된 것도 있습니다.

이러고 보면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백금반지나 은수저를 팔려고 할때 왜 제 값을 안 줄려고 하는지가 이해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귀금속분야에서는 그 주종을 이루는 금, 백금, 은수저의 정도를 살펴 보고 다음은 보석에서도 우리 생활과 밀접한 몇가지를 살펴 보겠습니다.

앞머리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지만 보석의 왕자라 할수있는 「다이아몬드」는 여성이 보석을 구입하고자 할때 제일 먼저 관심이 쏠리게 되는 보석인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질중 가장 단단함은 물론 가장 높은 굴절율을 가져 가장 많은 광채를 발휘하기도 하는 이 보석 명칭의 근원은 희랍어의 「정복하기 힘든것」의 뜻인 Adamas(「아다마스」)에서 유래하고 그것이 다시 Adamant(「아다만트」)로 변하여 현재는 「다이아몬드」 (Diamond)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우리말로는 금강석임)

그러면 이 「다이아몬드」가 무엇때문에 그렇게 高價이어야 할까 하는것을 누구나 한번은 생각해 되는데 실제양에 비하여 「다이아」 채굴에 투입되는 비용과 노동력을 따지고 본다면 결코 그렇게 비싼 것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다이아」의 보석적 가치로는 첫째 생명력 즉 섬광적 휘광성으로 말미암아 변화의 연속이 있다 하겠으며 둘째 초경성(超硬性)에서 오는 (硬度10) 영구불변성이란점 셋째 「다이아」에는 새것과 헌것 즉 신고(新古)가 불존재 한다는 것만으로서도 충분히 보석의 왕자라 할 수 있으며 고가의 가치를 지녔다 하겠습니다.

이런 「다이아」에는 그 색이 여러가지인데 무색(white)의 「다이아」와 유색의 「다

이아」(Fancy colour Diamond)로 구분되며 유색의 「다이아」는 다시 청색, 황색, 녹색, 홍색, 연색, 갈색 등이 있지만 시중에서 흔히 볼수 있는것은 거의 다 무색의 「다이아」인 것입니다.

이 무색의 「다이아」중에서도 Top white 라고 하는 것은 「다이아」자체는 무색이나 태양광선의 자외선에 의하여 인광성을 발휘해서 청색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것으로 「다이아」중에서도 최고급으로 평가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어려운 것이고 사실 외국에서도 희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이아」 자체에 색이 있는것은 청색, 홍색을 제외하고는 전부 공업용으로나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 고귀한 「다이아」의 구성 성분은 숯과같은 탄소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과연 실수요자로서는 「다이아」를 살때 어디에 기준을 두어야 겠느냐 하고 의문이 생기실 것입니다.

우선 「다이아」를 살때는 먼저 색의 유무, 「컷팅」(Cutting), 결점(하자), 무게 이 네가지를 종합해서 봐야 되는데 전기한 청색이 있는 것같이 보인다는 「다이아」는 우리나라까지 오기전에 이미 외국인 주인을 맞게 되는것이 상례여서 감히 시중에서 볼수 없으니 눈으로 보아 색이 있다하면 하급으로 취급하시고 아예 우리나라에서는 백색이 좋다는 일반상식을 갖고 계시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색만 백색이면 되는줄이나 그 보석자체의 광량(光量)이 문제되기 때문에 백색이면서도 Cutting이 소위 말하는 58면체의 America cut 이라야 이상적이라 하겠으며, 셋째는 「다이아」에 어

떤 하자(Clarity : 燈度)가 없어야 한다는 것 등인데 이것 역시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가 곤란한 것들이니 이 「다이아몬드」는 이방면에 유능한 분의 감별이 없이는 사실 속단키 곤란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보석감정을 전문으로하는 분이 배형순 씨임)

그런데 이러한 「다이아몬드」의 주요산지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아닌 「아프리카」와 소련이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다이아」무게의 표시와 가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이아」에 대한 여자들의 대화속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것이 “너 몇부짜리 「다이아」졌니?” “나 5부짜리 「다이아」졌다” “그런데 누구는 몇ct짜리 「다이아」가 있다” 하는것을 들을 수가 있는데 몇부(分) 혹은 몇ct(cart : 카라트)라고 하는것이 바로 「다이아」의 무게의 표시를 말 하는 것입니다.

1ct가 0.2g으로서 10부 「다이아」인데 완두만한 크기이고 5부라고 하는 것이 0.5ct, 3부라고 하는 것이 0.3ct인데 현재 시중에서는 0.5ct와 0.3ct가 유통의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벌써 1ct이상쯤 되면 큰 상점에서가 아니면 흔히 보기조차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시중에서 「쓰브 다이아」라고 하는 것은 0.3ct이하의 조그마한 「다이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작기때문에 단독 보석으로는 쓰이지 않고 보석의 보조용으로 쓰이는것이 상례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이아」의 가격은 다른 보석과는 달리 재미난 현상이 있습니다.

가령 1ct짜리 「다이아」가 100만원쯤간다면 2ct짜리 「다이아」는 300만원이 간다는 것입니다. 딱 보석들은 무게의 배율에 따라서 값이 올라가지만 이 「다이아」는 무게가 배(倍)일때 그 값은 3배가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2ct짜리가 300만원이면 3ct짜리는 900만원에 달 할것이니 얼마전 「에리자베트 테일러」양이 「리차트 버튼」과 별거를 선언해서 화제가 된 일도 있지만 「테일러」의 환심을 사기위해 「버튼」이 선사했다는 69ct짜리 「다이아」는 그값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천문학적 수자인데 아마 웬만한 수학 실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그 값조차 계산해 내지도 못할 것입니다.

고속버스로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2~300만원의 위자료밖에 못받는 우리네 실정을 생각하면 그저 입이 딱 벌어질 따름입니다.

다음은 「루비」(Ruby)와 진주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 보겠습니다.

「루비」도 보석의 여왕이라 불리울만큼 최고급보석의 하나로서 모든 유색의 보석 중에서 가장 고가이며 7월의 탄생석으로 사용하는 귀 보석인데 강옥석중에서도 적색으로 변종된 것이 「루비」이고 청색으로 변종된 것이 「사파이어」(Sapphire)입니다

이 「루비」는 「다이아」 다음가는 고가와 (1ct당 15萬원정도) 높은경도 (경도: 9)를 가진 멋진 보석입니다만 비둘기 깃색을 띤것이 제일 좋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산지도 우리나라가 아닌 「버마」 태국등이랍니다. 여기서 하나 덧붙여 말씀드릴것은 반토(산화 알루미늄)가 산소와 함께 고온의 불속에 용해되어 제조된 인

공 「루비」입니다.

이것은 선명한 적색에 완전무결하게 험이없어 얼핏보기에는 천연 「루비」보다 더 아름다워 인공「루비」 제조에 성공했던 옛 시절에는 굉장히 고가였으나 이제는 몇천원에 불과한데 공업용으로 정밀기계의 부속으로도 널리 쓰이고 있어 비단 보석으로서만이 아니라 공업용으로도 우리人間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Pearl)에 대한 얘기로 넘어 가겠습니다.

요즈음 보석가운데서도 널리 사랑을 받고 일대 유행을 보고 있는것이 진주인데 진주는 그 우유빛 신비로운 광채로 인해서 빛깔이 독특한 파란 「사파이어」나 붉은 「루비」등과는 달리 거의 어떠한 색과도 잘 어울리며 원(圓) 모양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와도 잘 어울립니다.

즉 진주의 장점인 그 불투명한 「크림」색은 어떠한 빛깔의 옷이나 피부색에도 잘 어울린다는 말인데 비교적 젊은 사람에게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맛을, 반대로 나이가 좀 든 사람에게는 품위와 고귀를 상징하는 보석이지만 사실 진주는 엄격히 말하면 보석 즉 돌은 아닌것입니다. 다만 그 아름다움과 손쉽게 얻을 수 없는 귀중한 장식품이라는 뜻에서 보석가운데에도 끼이고 귀하고 값이 비싼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진주는 인공적으로 키운 양식(養殖)진주이거나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모조진주에 불과하지 천연 진주는 쉽게 볼수도 없거니와 값도 굉장히 고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천연진주가 바로 조개(패류)에서 생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조개껍질의 내부에는 외투막(外套膜)이 있어 탄산칼슘을 생산하는 유백색의 막상(膜狀)이 있는데 여기에 우연히 다른 물체가 들어갔을때 그 조개는 다른 물체의 저항감을 없애기 위하여 조개껍질의 진주질과 같은 성분을 분비하여 침입한 물체를 둘러싼것이 바로 진주인것입니다. 이것은 석회질과 유기질이 서로 합친 것으로서 성분은 탄산칼슘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해수욕장 또는 등산할때와 같이 뜨거운 태양광선의 직사를 받는 장소에서 진주반지를 끼는것은 피함이 좋습니다.

그리고 70시간 이상의 직사를 받았을때는 수분이 적어지며 광택을 상실 한다는 것이고, 섭씨 100도 이상의 열에는 변질하며, 그 이상의 열이 가해지면 진주자체뿐만 아니라 그 부속도 무리가 생기며 심하면 진주가 연소까지 된다니 열이나 직사광선을 주의해야 함은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며 산성에도 특히 약하므로 진주반지를 끼고 온천물이나 식초에 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으로 알아두실만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진주는 어떤 것을 좋은것으로 보느냐 하는 것인데 은은한 「핑크」빛을 제1로 치고 다음은 은백색을 치는데 이외에도 금빛, 황색, 암청색계의 진주가 있습니다.

이런 천연진주의 산지는 주로 남태평양 지방의 도서지방에서 많이 산출되며 특히 「오스트랄리아」 근해의 진주는 그 모양이 아름답기로 세계에서 유명한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 근해에서 간혹 산출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밖에 흔히 쓰이는 양식진주라는 것은 인공적으로 조개에 약간의 수술을 가해서 바다에 넣으면 천연산과 비슷한 진주가 나온다는 것이며 양식진주라 하더라도 앞의 크기나 빛깔, 광택등으로 여러가지의 층이 있고 값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또 값이 아주싼 모조진주는 보통 유리알에다가 고기비늘을 바르거나 흰돌에 적당한 칠을 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양식진주는 어느정도 크기의 한계가 있지만 모조진주는 어떤 크기의 알로도 만들수 있고 염가이기때문에 인기가 높고 악세사리로나 장식품으로도 많이 쓰이는 것입니다.

이 진주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애용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옛 칠보중의 하나로 꼽히는 것이며 (七寶: 금, 은, 진주, 비취, 산호, 호박, 청금석의 7가지 보석을 말함) 「그리스」의 신화에서도 미와 사랑의 여신 「비너스」가 보석가운데에서 가장 좋아하고 사랑했던것이 진주였다고 하는데 「로마」시대에 진주에 얽힌 「에피소드」 한토막을 소개할까 합니다.

에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가 한창 영화를 누릴때 「로마」의 집정관 「안토니오」를 궁정에 초대할 일이 있었답니다. 그 화려한 향연의 자리에서 「클레오파트라」는 그녀의 귀걸이로 달고 있던 큰 진주를 떼어 「안토니오」의 포도주잔에 던져 넣고 같이 건배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포도주잔에 고귀한 보물을 아낌없이 던졌다는 것은 물론 「안토니오」의 환심을 사려는 「제스추어」였겠지만 진주를 강한 초에 담그면 녹아 없어진다는 것은 이미 「로마」 시대에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 보석에는 비단 진주만이 아니라 옛부터 동양의 보석이라는 비취, 서양의 보석이라는 에메랄드등 많이 있는데 이것을 일일이 열거하면 좋겠으나 본인의 미진한 실력을 가지고는 이만 해두는것이 여러분의 실증을 덜을 것 같습니다만 혹시 이 방면에 흥미를 가지신 분을 위해 보석계의 안내와 전망을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현재 서울에는 보석학원이 세군데 있으며 그중 남대문 시경(市警) 맞은편에 있는 배형순보석학원이 우리나라 보석학원으로서는 효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個月 수강료는 1萬5,000원이고 금·은 세공이나 보석탁마를 배우고자 할때는 따로 기구대와 실습비가 첨가되는데 나이가 많은 사람은 아무래도 탁마나 세공은 적격치 못한것이 저의 경험에서 얻은 바입니다.

또 보석이 다른분야와는 달리 고가인데다가 상업상의 보안이란 점에서 무료로 봉사해주고 실력을 연마하고싶어도 그 기회가 용이하지않다는 점을 참작하여 2개월 「코스」의 학원을 졸업한 후에 적어도 수개월쯤은 직접 학원 연구원으로 엮매여 있어야 개업이라도 할수있는 소지가 겨우 마련 될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인의 경우는 동기생중에 기술적으로 갖은 역경

을 무릎쓰고 이미 개업을 한 사람이 몇분 있어서 펍 도움이 될수 있는 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보석계의 현황은 70년도에 이르러 그 정점에 다달았다고 볼 수 있겠으며 그 이후로는 아무래도 침체되지 않았나 보이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활기를 띄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원래 이 보석은 국민생활 수준이 높은 나라에서 애용되고 있는 점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도 국민소득이 증대될 80년대에는 좀더 활기를 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므로 장기적으로 볼때 욕심을 낸다면 언젠가 통일이 되는 날은 보석의 불모지인 북한에서 한번 「히트」(?)를 칠것이 예견 됩니다.

이상 주마간산격이나마 귀금속이나 보석중에서도 우리의 실생활과 밀접한 것 몇가지만 골라 연결시켜 보느라고 두서나 체계없이 엮었습니다만 원래 이 방면에 대한 지식이 미흡한 채 기술(記述)을 하다보니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되지 못한점 아쉬움을 느끼며 이 정도의 졸작을 신통특 지면을 할애해 준 속기계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 글을 맺겠습니다.

註：筆者의 舊名은 光澤

(國會速記課勤務)

第 4 回 全國速記士技能檢定試驗合格者名單 (4月28日實施)

國語：1級 권영찬 박옥경 김복동 김동수

2級 박대성 오중택 이순구 이승곤 정대길 김성규 이용춘 박정호

윤호신 안영미 이미혜 정혜심 최용권 이화자 김명숙 장경숙 박병운

3級 김중환

英語：5級 이정희 한현희 이상순 이해련 김희원

冷 凍 原 理

徐 吉 泉

냉동기가 어떻게 하여 물건을 냉각시키는가는 액체상태에 있는 「프레온」, 「암모니아」와같은 증발하기 쉬운 액체를 증발시켜 그 증발열로 물건을 냉각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언뜻 이해가 안 갈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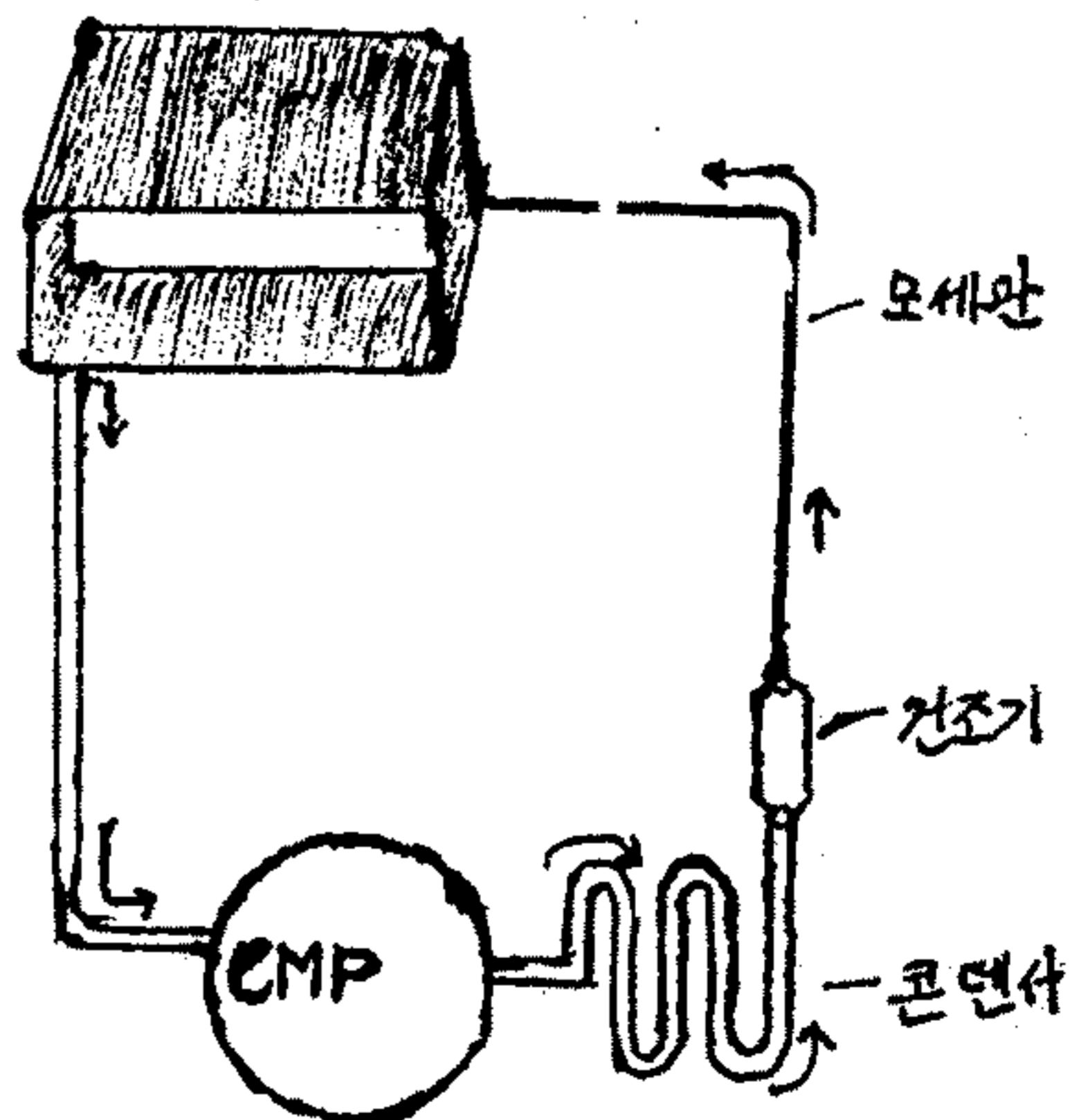
한여름 대낮에 오랫동안 내려쬐인 햇빛으로 바짝 말라버린 지면으로부터 강렬한 태양광선이 반사되어 강하게 피부에 느껴질 때가 있다. 이때 우리들은 흔히 마당에 물을 뿌리고 나면 기분이 그래서인지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다. 도대체 왜 물을 뿌리면 시원해질까? 이는 물이 증발할때 주위의 열을 빼앗아 가기때문이라 하겠다. 마치 땀을 흘렸을때 바람을 쐬면 시원한 것과 마찬가지로 원리라 하겠다.

이것은 수분에만 한하지 않고 액체상태의 모든것이 공기와 같은 「개스」로 변할때 즉 「알콜」에 적신 솜으로 몸의 일부를 닦으면 시원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다.

그렇다면 냉동기에 사용하는 「암모니아」나 「프레온」액이 신체에 닿으면 어떻게 될까? 역시 신체로부터 열을 빼앗아 증발한다. 이러한 약품은 증발하기 쉬운 약품임으로 신체의 열로 덥게하지 아니하여도 열음보다 차거운 $-30^{\circ}\text{C} \sim -33^{\circ}\text{C}$ 에서도 증발을 한다. 냉동기에서는 이냉각작용이 강한 「암모니아」나 「프레온」과 같은 약품

의 액을 냉각관내에서 기압의 차를 두고 다량으로 증발시킴으로서 냉각관이 차가워지고 따라서 냉장고도 차가워지는 것이다. 즉 냉각관내에서 증발하기 쉬운 액체상태의 개스를 증발시켜 냉장품으로부터 증발에 필요한 열을 빼앗는다. 그리하여 냉장품을 냉각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작용은 증발하기 쉬운 「프레온」이나 「암모니아개스」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기계에 의하여 이루어 지는 것이다. 전기에 의하여 「모터」가 돌고 이 「모터」에 의하여 Comp가 작동하고 이에 따라 압축된 「개스」가 기압의 차를 만들고 이에 의하여 영하에서도 액체상태의 개스가 증발

냉동실 냉각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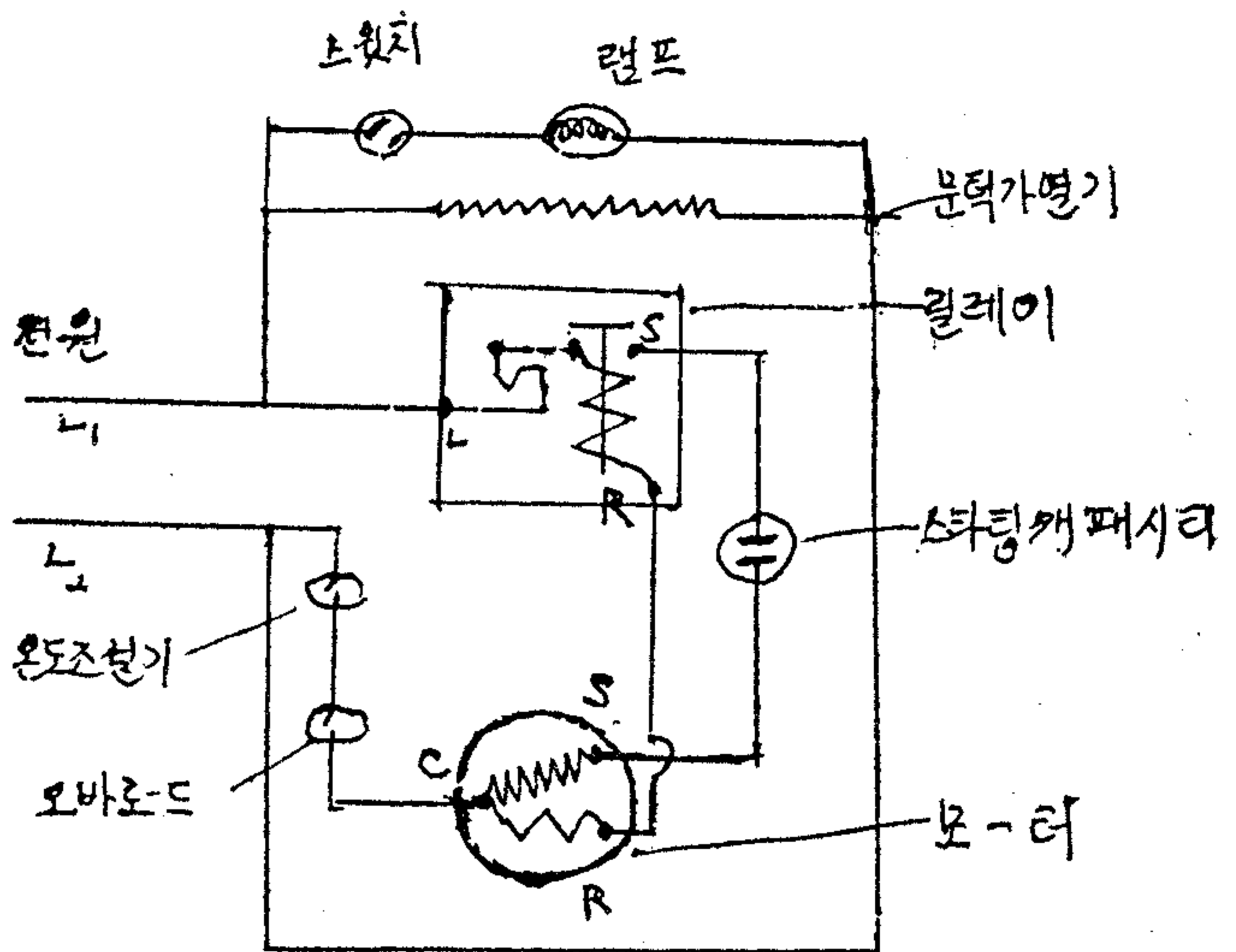


◇ 가정용 냉장고의 배관도

하여 냉각작용을 하게되고 이 작동을 제어하기위한 자동온도조절장치가 있는가하면 기계의 무리와 고장을 막아주는 잡다한 부품들이 작용을 하는 재미있는 과정이 되풀이 되고있는 기계가 냉장고라고 하겠다.

몇년전만 하여도 냉장고같은 것은 사치품으로 여겨왔으나 이제는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군림을 하게 되었다.

우리 주변에 냉장고, 에어컨이 나돌기 시작한지 5, 6년이 되었으나 원래 이같은 기기는 반영구적인 기기로서 고장이 없으며 대를 물려 사용하고 있는 예가 외국에는 허다하다. 우리의 경우도 사용방법과 기계의 성능, 원리같은것을 알고 사용을 한다면 역시 우리들도 대를 물려 줄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 할 수가 있다. 그러나 국산의 경우 부품의 불안정, 또 무리한 사용과 성능을 무시한 사용으로 인하여 가끔 고장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이는 전기부품의 고장으로 전기에 대한 상식만 조금 터득하고 있다면 별로 문제 될 것이 없다 하겠다. 그리고 보통 알고있기에 이와같은 냉장고가 고장이 나면 먼저 겁부터 먹고 또한 많은 수리비를 연상하는데 사실 많은 수리비를 요구하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이것은 우리가 잘 모



◇ 가정용 냉장고의 전기회로 <위와같은 자동장치가 작동하여 냉장고의 무리를 막아준다>

르고 있기때문에 먼저 안다는 사람들이 그러한 요구를 하는 예가 많다.

그러나 우리가 이와같은 「모터」를 움직이는 기기에 있어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전압이다. 항상 그 기기에 알맞은 전압을 공급하는데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만일 정격전압을 공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모터」에 열이 나며 심한 경우에는 타버린다. 너무 강한 전압도 기기가 타지만 약한 전압 역시 타버린다. 흔히 생각하기에는 전압이 너무 강해야 타는 줄 알고 있으나 냉장고와 같은 기기는 강한 전압에서는 자동 제어장치가 작용하기 때문에 무리한 운전은 될 수가 없다. 오히려 약한 전압인 경우 약한 전류에 의하여 「모터」의 회전이 느리게되고 또한 「모터」내의 저항에 의하여 가뜩이나 열이 나는데다가 심한 열을 더욱 발생하게 되어 이 경우에는 자동장치 역시 전압이 약하므로 움직일 수 없게 되기때

문에 더욱 더 위험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냉장고를 사용할 시 반드시 「트랜스」를 사용하여 일정치 못한 전압을 일정한 전압으로 유지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국산 냉장고의 경우 100V~110V의 전압을 유지해야 하고, 외산인 경우 110V~120V를 유지해야만 기계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

이와 같은 기기를 무리하게 가동하기 때문에 몇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한 냉장고에 대소의 고장증상이 이제부터 조금씩 나타

나기 시작하는데 이는 전기에 대하여 조금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과히 대수롭지 않은 일이며 또한 구미당기는 일이라 하겠다.

필자는 취미삼아 호기심에서 상식적으로 알고 싶어 배웠으며 다른 뜻있는 사람에게도 권장하고 싶은 전망좋은 직종이라고 생각된다.

[國會速記課勤務
國會山岳會技術部長]

速 記 料 金 案 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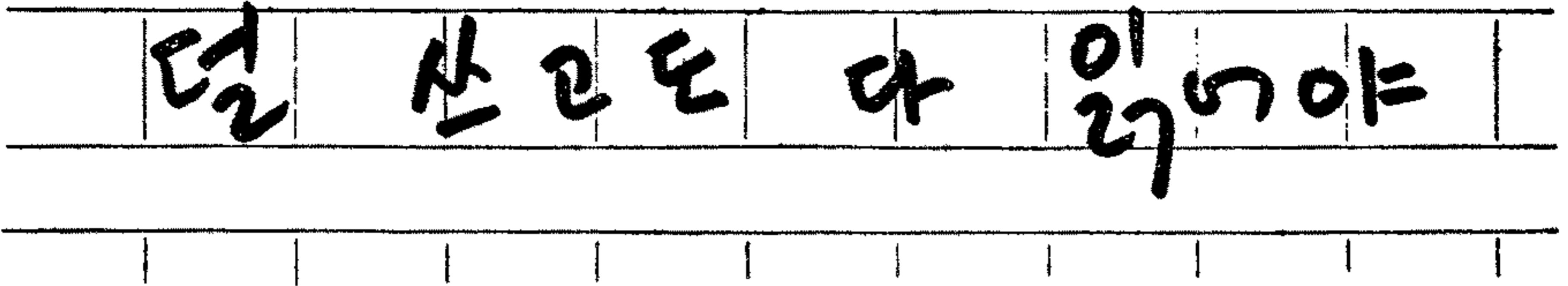
구 분	단 위	속 기 료	비 고
회의 및 강연	1 시 간	10,000원	주 주 총 회
좌 담 회	1 시 간	11,000원	대 담 포 함
재 판 및 방송	1 시 간	12,000원	
녹 음 재 생	1 시 간	10,000원	
구 술	1 시 간	8,000원	저술, 비서속가등
외 국 어	1 시 간	20,000원	영어, 일어

- 단, 1. 요지작성료 속기료 외에 매 시간당 5,000원씩 가산함.
 2. 긴급번역료 속기료 외에 매 시간당 4,000원씩 가산함.
 3. 1시간 미만의 기록시간은 1시간으로 계산함.

위 와 같 이 결 정 시 행 함.

1972년 1월 1일

사단 법인 대 한 속 기 협 회



<縮字와 略字의 體系化 문제>

姜 駿 遠

(4)

◇ 약자법의 개발

기본문자 이외에 약자를 어느 정도 받아 들이고 배격하면서 속기를 배우고 써 나갈 것이냐는 오랜 속기 연구자들의 과제다.

분량으로 영문문장 위에 나타나는 Mr. Dr. Ltd.……등 모습이 없는 어형이므로 약자인 줄 알게 하는 영어식 개념을 몇 정도만 속기에서도 만들어 쓰면 어떨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속기에서는 영문식으로 오랜 세월속에서 자연 발생한 그런 조치를 기다릴 수는 없고, 좀더 체계적으로 조속히 마무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십자가를 그려 놓고 「그리스도」라고 읽는 일은 없어야 하지만 「그렉」식과 「피트맨」식 모양으로 수자(數字)를 발음으로 쓸 필요까지는 없지 않은가 하는 것이 우리말 속기법의 처방(處方)이라고 생각한다.

「속기법중의 속기법」은 약자법이 아니고 축자법이라고 축자쪽에 우위(優位)를 두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므로 약자는 속기의 실용과정의 불가피한 잔재적(殘在)

的)조치로 규정하고자 한다.

분단(分段)약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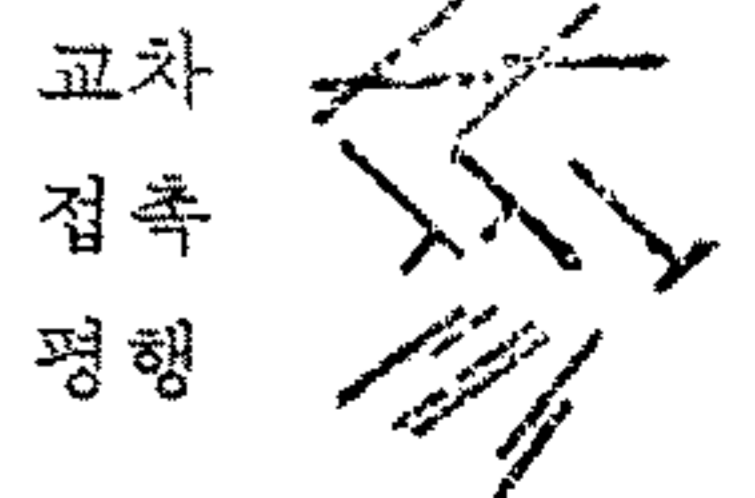
우리는 교육을 통하여 「알파베트」인쇄체나 필기체 모두 상하로 불쭙불쭙 나온 분단(分段) 인식에 젖어 왔고 또 관별 효과가 좋은 편이니 속기에서도 이를 아니 쓸 필요는 없다. 그러나 조건은 ①그것이 기본단인 중단(中段)에 써진 것같이 보이더라도 오독이 없이 지정(指定)되어야 하며 ②가급적 소수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1) 상단에는 「그것·이것·이런·저런」 따위 대명사, 부사종류와 빈출 부사 가장·대개·곧·결코·결국·반드시·매우·먼저·보통·사람·벌써·소위·말씀·무엇·물론·생각·어느·어떤·우리·이제·움직이다·따라서·다시·어디·나중·드디어·지금·특별……

(2) 하단에는 원칙적으로 한자어로서 경제·교육·한국·국제·계속·역시·계획·현재·결정·작정·견지……

교차 형식(交叉形式)

선필(先筆)을 기준한 교차 후필(後筆)의 교차·접촉·평행은 약 20가지



가 가능한데 이 많은 소재(素材)를 약자법에만 쓰기 아까운 것이 사실이므로 흔히 쉬운 방식은 기본법에 많이들 쓰인다.

그 중에서 교차·평행·접촉 상태가 좀 까다로운 것은 다음에 쓰이는 것이 보통이다.

△ 완전 교차·평행으로 속기 약자 상식으로는 다음과 같은 말을 쓴다.

아시다시피·하루속히·하루아침 : 자기 스스로·자기자신·철두철미·정정당당·성심성의·세입세출·남녀노소·음으로양으로·직접적으로·간접적으로……

없다·있다 약자

없다·있다는 특정한 조치를 하고 그앞말의 일부 발음과 교차하면 가능하다.

꺼리낌없는·보잘것없는·빠짐없이·부질없는·빈틈없이·말할것도없이·무엇무엇할것없이·누구누구할것없이·쓸데없는·영락없이·느닷없이·어림없는소리·여지없이·다시말할것도없이·터무니없는·틀림없이·두말할것도없이·여유가없는……

관용어구(慣用語句)

기존(既存) 어법에 구애되지 말고 대략 첫말의 어느 발음과 뒷말의 어느 발음을 완전 교차하고 각기 조사(助詞)는 정확히 붙인다. 영어 속기에서는 I shall go to school을 띄어쓰기를 무시하고 한 어형으로써 나가는 경지에까지 이르고 있다.

가장가까운·머지않은장래에·갈피를못잡으니·이해하고도남음이있다·경의를표하고모골이송연하다·불행중다행으로·피비린내나는·물불을헤아리지않고·소름이끼치는수포로돌아가다·소기의목적울·예를들면한걸음더나아가서·아는범위안에서·알다가

도모를일이지·어안이병병하다·연구에연구를 거듭하여·언급을회피하다·이외에아무것도아니다·유종의미를거두고·유감의뜻을표하고·유감천만이올시다·위치에놓여있다면·자타가공인하는·천만의말씀이올시다·조속한시일내에·죽을지경이다·두각을나타내다·중점을두고……

교차부사 약자

앞 발음과 끝 발음을 교차하여 조사(=영어에서는 전치사)다음으로 자주 쓰이는 다음절 부사를 쓰던 일은 영국·미국·일본등 다 하는 방식이며, 아직도 큰 착오 없이 잘 읽어지기 때문에 명백이 이어지고있는 방식이다. 일본의 어느식은 둘째 발음자는 특히 적게써서 부사라는 형태상의 품사 구분을 하여 더욱 효과를 얻고있기도 하다.

갑자기·급기야·별안간·모조리·모름지기모처럼·못내·몰래·몹시·몹쓸·비로소·어차피·오히려·오로지·요컨대·차라리·덧어놓고·도무지·도저히·도리어·하물며·하마트면·아뭏든·구태여·일부러·너무나……

극대선(極大線)약자

기본문자의 큰자보다도 훨씬 큰 모양이 특징인 극대선은 흔히 종지(終止)경칭조사「버니다·갓읍니다·엿읍니다」에 많이 쓰인다. 그런데 이 세가지 말을 직선 3방향으로 하더라도 직선 5방향·대응(大應)곡선 10방향으로 15선이 가운데 3선을 쓴 셈이니 아직도 12선이 남아 있고, 또 15선의 머리에 각종 부호를 붙인다면 상당한 소재가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이 극대선이라는 것은 자질구레

한 기본문자 길이만 쓰다가 한 번씩 쪽쪽 뺀어 손가락의 굴신(屈伸) 운동을 일으키면 서기(書記) 필동(筆動)에 유효하기도 하다. 빈출율이 그럴듯하며 그 쓰기 좋은 선을 골라 쓴다면 이로운 극대선 약자 소재는 아래와 같다.

방법·반대·방면·동포·목적·국민·국회
민족·필요·대한민국·미국·일본·발표·구라
과·세계·노력·법률·법령·대단히·대통령
발달·발전·철저절대·문제·주요·중요·민주
주의·민족주의·자본주의·공산주의……

층서(層書) 약자

각국에서 본격적으로 시험하지 않은 방법인데 가령「일상의 생활이」할 때 「일」자 바로 밑에다「생」을 2층으로 겹쳐 써서 문맥상 그것이 「일생」이 아닌 것으로만 보이면 층서임을 알게한 「층서약자」에 있어서는 비교적 원용(援用) 범위가 넓어 임장(臨場) 당용(當用)의 약자일지라도 충분히 읽어 낼 수 있는 법이다.

사회제도가·노동의 실태는·학습태도로보
아서……등 광범위하게 쓸 수 있다.

독립부호·극소선약자

소재로서는 가장 독립성이 없었던 부호와 극소선을 독립시켜서 그것이 약자임을 뚜렷이 하고, 부사·관형사·대명사 종류에 속한 것들은 대강의 범위를 정해서 축정해 두면 된다.

갖은·그만·만일·만약·잘·잘못·단·단지
또·보다·마치·마침·모두·모든·아주·아직
오직·오래·이미·참·다·더·덜·좀·좀처럼
지난·함께……

추지어법(推知語法)

「유럽」에서 속기 개발 초기에 개발되었다가 그 비과학성 때문에 쇠퇴한 법인데, 다시 논리적인 구성을 되살려 우리말에 써본 결과 일단의 성공이라고 믿기에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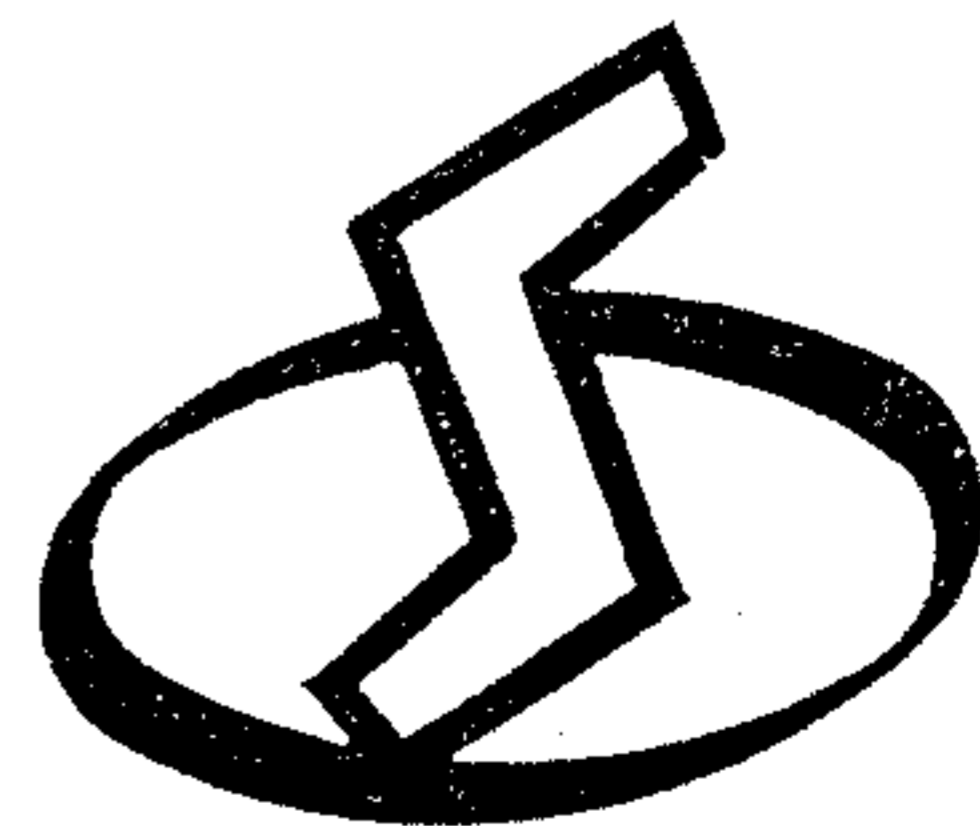
(1) ABAC형 : 그럭저럭 울퉁불퉁…
따위인데 「그럭」에다가 「저」를 생략해 버리고 「럭」만 거듭·평행·중첩을 하여 약자라는 표상(表象)을 보이면 오히려 네 글자를 고지식하게 쓴 것보다 속서 정독이 된다.

왈가왈부·애국애족·일장일단·일진일퇴·자의반타의반·이현령비현령·천부당만부당……

(2) ABCD형 : 네 음절이 다 다르다면 약자를 만들 근거가 없다고도 볼 수 있으나 ABAC형을 좀더 유추(類推)시킨 구성이며 잘 읽어진다. 「얼렁뚱땅」에 있어서 「얼렁」은 쓰고 「땅」을 「렁」에다가 교차한다.

얼렁뚱땅·엉망진창·야단법석·이상야릇·엉거주춤·심사숙고·허랑방탕·흐리멍덩……

[本協會指導委員]



낙시 등산 서도 탁구

(1) 국회낙시회

— 明靜한 물에 낙시를 드리우고

흐르는 찬스를—

새벽녘 안개를 가르며 푸른 연못이나 수로를 찾아드는 낙시인의 멋과 운치는 그대로 한폭의 산수화를 방불케 한다.

울분과 무상을 드리운 낙시줄에 달렸다면 우리네 선비님들의 옛정취와 더불어 현대를 사는 도시인의 잠재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돌출구로서만도 낙시에의 매력은 충분하다.

반복에의 작업은 인간의 본능을 유혹하고 과격하지 않은 운동량은 체력의 소모를 덜 뿐만 아니라 氣象과 물과 魚族에 대한 인간의 지혜와 의지의 도전이기 때문에 인내와 침착성과 기민한 기질, 그리고 임기응변의 판단력과 행동을 기르는 수양이 되는 동시에 스릴과 쾌감을 누릴 수 있는 레크레이션이기도 하다.

또한 자연속으로 돌아가 해방감과 안정

감을 만끽하며 인생과 사회를 관조한다는 술한 공명되는 구호아래 움직이는 국회낙시회를 잠시 두드려 본다.

1. 창립 1967년 4월

2. 조직

회장 이병욱

부회장 장옥상 강정구

총무 정원도 재무 정우용

심사 이문빈

고문 김진만(의원외) 국회의원 다수

운영위원 유용규(전문위원외) 7인

3. 회원

국회의원 및 국회에 근무하는 직원과 본회 육성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 인사로 하며 현 회원은 43명이고 이 가운데 22명이 국회속기직공무원임.

4. 목적

낙시동호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낙시를 통하여 건전한 체력향상과 정신을 수양케 함을 기본방침으로 한다.

5. 주요사업

연 4회의 정기조회(시조회·하계회·추계



<온양 수로에서>

회·납회) 및 월 2회의 월례조회·가족동반 대회·실업인친선낚시대회·3부대항친선 낚사회·한일친선 낚시대회 등이며 앞으로의 계획으로서는 적지에 저수지를 임대하여 어족을 보호하며 양식하여 회원들의 낚시터로 사용하도록 운영 관리할 예정이다

6. 업적 및 활동상황

1970년 4월 26일 우리나라 최초의 국회 낚사회 주최 3부(입법·사법·행정)대항 친선낚시대회가 경기도 평택군 만수터 저수지에서 3부각부처 200여 선수들의 출전으로 대성황을 이루었는가 하면 같은 해 한일 친선낚시대회에 출전 대이1등상 중량1등상을 획득 그 실력과 능력을 내외에 널리 과시했다.

(2) 國會山岳會

—太古의 神秘속에 淸淨한 氣像을—

1. 창립 1967년 10월 24일
2. 조직 ↓

※ 속기과 회원 52명

4. 기본방침

올바른 산악활동을 통해 새로운 등반기술을 널리 보급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더욱 돈독히 하며, 심신단련을 통해 건전한 체력을 유지하면서 직장생활을 충실히 해나가며, 해외원정등반의 기초를 닦기 위하여 암벽등반훈련 등 특수등반기술 연마에 힘을 쓰고 국내의 산악동호인들과의 유대강화에 더욱 힘을 쓸 것을 기본방침으로 삼는다.

5. 주요사업

- 가) 정기등산 월 1회를 원칙으로 하고 전회원이 참가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 나) 대외등산대회 참가
전국규모의 각종 대회에 참가한다.
- 다) 대외등산강좌 참가 및 자체 등산강좌 실시
겨울등산학교(서울산악회·설악산악회 주최), 하기산간학교(대한산악연맹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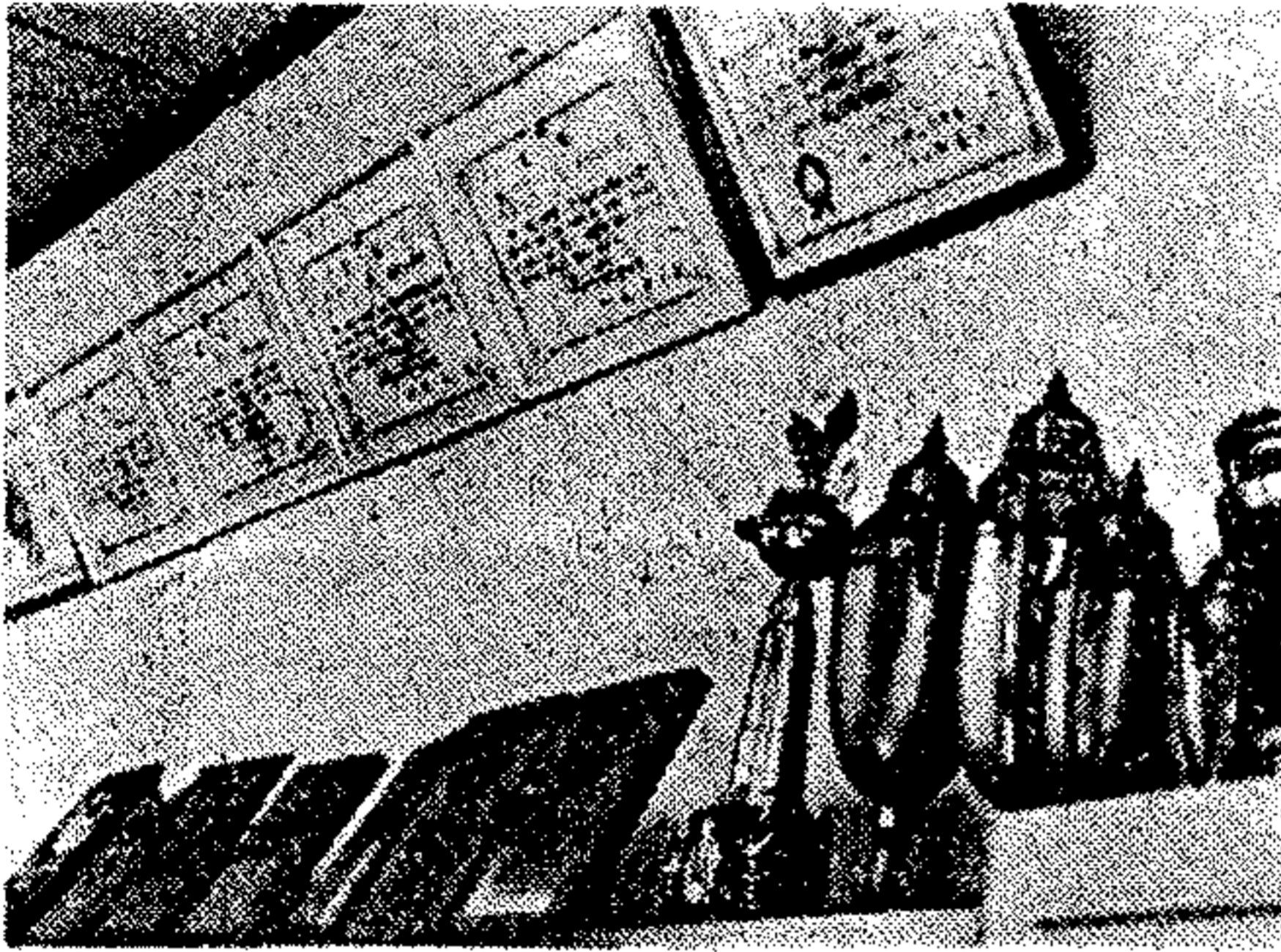


<속리산 정상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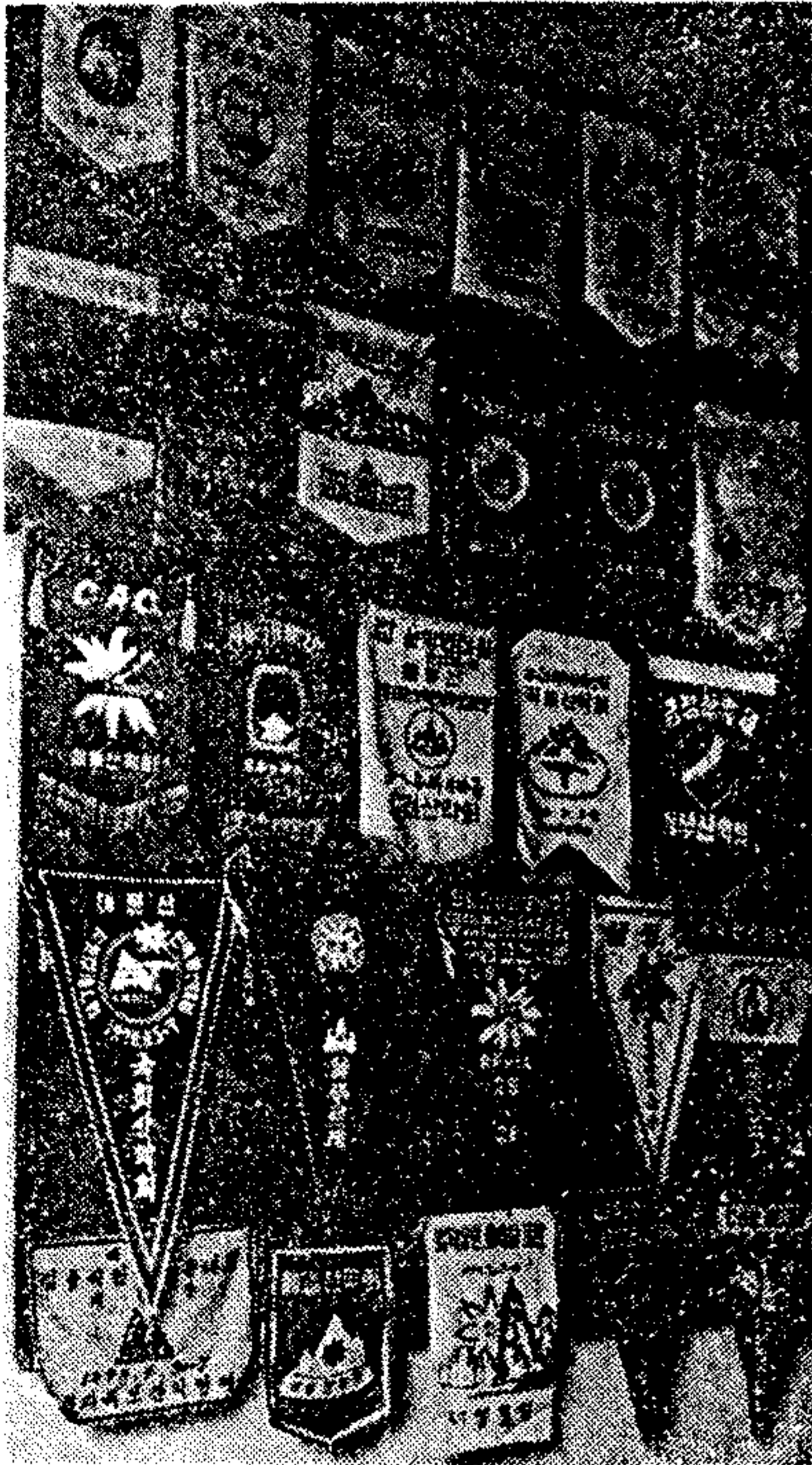
회 장 선우종원
부 회 장 이호진 권효섭
지도위원 우병규 김보환 김순영
우재충
감 사 최석모
부장·이재도(총무) 한세동(재정) 송
규보(섭외, 홍보) 서길천(기술)

3. 회원 215명(남 173명, 여 42명) ↑

- 최) 및 등산지도자세미나(대한산악연맹주최)에 참가
- 라) 국회직원 하계휴양소 설치
7·8월 하기 휴가기간중 직원들을 위하여 설치.
- 마) 장비 및 사진전시회
등산장비를 전시하여 장비사용법 지도와 사진전시를 함.



<준비한 우승배 · 패 · 상장>



<무수한 페난트>

- 바) 창립기념 각과대항 등산대회
창립이래 春秋2회에 걸쳐 各課대항자
체등산대회를 실시하여 직원들의 체력
향상과 상호친목 인화단결에 힘쓴다.
- 사) 회지 「알파인」 발간
년 1회 발간
- 아) 「록 · 크라이밍」 훈련

해외원정 등반에 필요한 등반훈련 실시(빙벽훈련 · 암벽훈련 등)

자) 장비 및 잡지 · 전문서적 구입

6. 업적 및 활동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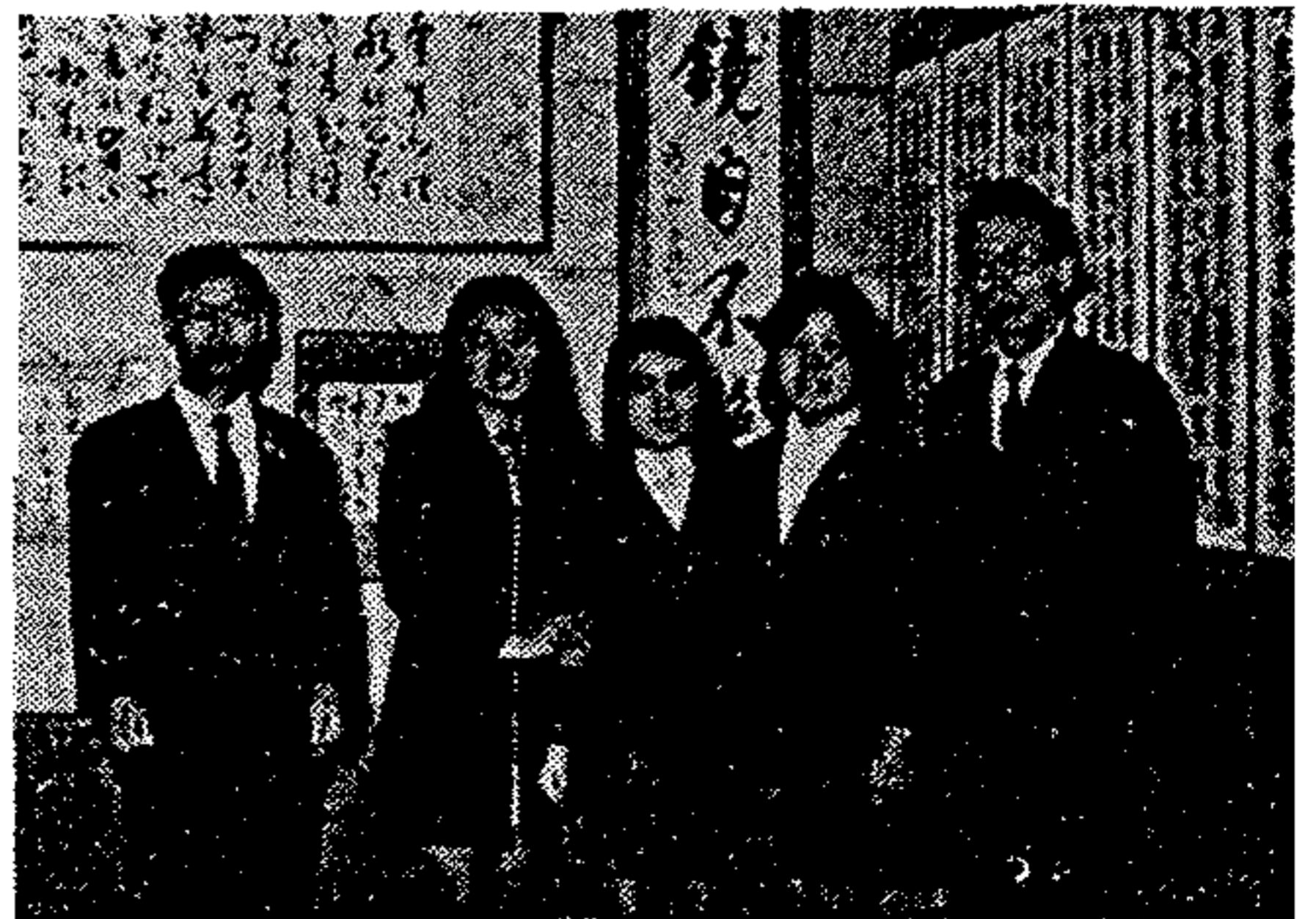
축령산의 「에덴」등산「코오스」의 개발을 비롯하여 대한산악연맹주최 등산대회(제 3회)에서 최우수상, 전국직장친선등산대회(제 4회)에서 종합최우수상, 무등산등행대회(제 5회)에서 최우수상을 획득하는 등 수상기록이 다채롭다.

한편 매 성탄절을 전후 일선장병위문등산을 실시하고 수시로 산악영화필름을 입수 회원들에게 상영한다.

(3) 國會書道會

—생활에 윤기를 주는 자기표현의 수단—

書藝는 漢字가 생긴 이래 오랜 역사를 배경으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 書體의 변천을 거듭하면서 사람의 마음의 아름다움이나 깊이를 표현하는 동양 고유의 예술로 발전해 왔다. 서양식 문명이 동양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조상들은 누구나 실용과 교양의 하나로 서예를 연마해 왔었다. 선인들의 서예는 학문적 연구외에 수양의 의미를 포함함은 물론 인격도야와도 직결되는 것으로서 선현들의 필적이 전승되어 書를 통해서 그분들의 인격에 접할 수가 있다. 근대문화생활의 내용이 서구화되면서 실용과 관련이 적은 서예는 쇠퇴일로를 걷고 일부 전문인들 외에는 거의 일상생활에서 잊어버리다시피 되었으



<朴泰俊先生 個人展에서>



<서도연습광경>

나 요즘에 와서 정서생활에 관심을 돌리게 되고 우리 것을 되찾으려는 운동과 함께 서예를 공부하려는 사람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은 반가운 일이다. 이때 때를 같이해서 국회속기인들이 13명이나 대거 참여하고 있는 국회서도회를 찾아본다.

1. 창립 1969년 6월

2. 조직

회 장 길기상<국회의사국장>

부회장 윤동보

지 도 해정 박태준선생

3. 회원 41명(남31명, 여10명)

4. 목적

국회서도회가 발족된 이래 공무원으로서 자질을 향상하고 각자의 소질을 개발 연구한 결정품을 대외적으로 발표함으로써 회원각자의 작품에 대한 조언과 비평을 받아 보다 더 향상된 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데 있다.

5. 방 침

가) 국회서도회전은 1970年度 제1회 발표로서 서도회 연차사업으로 한다.

나) 심미적인 정신을 함양하고 소질을 개발 지도한다.

다) 동료 상호간의 협동심과 상하유대를 강화한다.

라) 매회원마다 전시작품 준비를 위하여 출품작에 대하여 매주 2회이상 연수한다.

6. 활동상황

매주 화·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정기모임을 갖고 국전에 입선한 바 있는 박태준선생으로부터 서도 지도를 받는다. 어느정도의 수련기간이 지나면 사군자를 비롯한 묵화수련에 들어가게 된다.

벼루와 먹·화선지는 당회로부터 제공되고 회원각자는 붓을 준비하면 된다.

(4) 國會卓球部

國會卓球部는 國會 體育振興管理委員會傘下에 두고 있는 庭球, 柔道, 卓球等 3部の 하나로서 同委員會의 管理를 받고 있다. 이는 職場人의 體位向上을 위한 것으로 趣味團體라기보다는 心身을 단련하는 職場內 스포츠團體인 것이다.

點心時間이나 下午 退勤길에 잠시 공을 쫓아 뛰노라면 퇴적된 하루의 피로가 땀으로 배어 흘러버려 산뜻하고 쾌적한 기분이 되고 몸에 活力이 솟는 맛이란 탁구를 쳐본 사람 共通의 體驗이랄 수 있다.

살아가는 고민이나 바빠 돌아가는 정신 생활에서 벗어나 오직 희디 흰 공 하나에 몸과 마음을 집중하면서 相對者의 強弱點을 뚫는 作戰, 그리고 Speed를 구사하는 戰法터득은 沒我的 경지에 이르게 한다. 또한 이와 같이 다양하고 Speedy한 play로 말미아아 작은 공간에서 공만을 주고 받는 반복의 지루함을 느끼기는커녕

점점 탁구를 놓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확실히 中共의 卓球外交라는 政治的 各광을 떠나더라도 公害로 정신노동으로 과로에 허덕이는 現代職業人의 環境에 알맞는 實內 Sports의 하나라고 함에는 筆者도 首肯이 간다.

여기에서 競技「를」이나 方法은 紙面關係로 省略하고 다만 國會卓球部の 實績을 약간 紹介하고자 한다.

- 1972年初에 本館 4層에 1台 있던 卓球場이 3別館 4層으로 옮기면서 3台의 卓球台를 確保하고 職員들의 卓球訓練道場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
- 1972年 6月 24日 國會事務處主催로 選手選拔戰이 있었으며 選手團長에 現朱文玉總務局長, 選手에 楊澈在, 崔滉, 高太仲(以上速記課), 金雨永(資編課), 金운탁(警衛課)으로 選拔하였다.
- 1972年 6月 29日 大韓卓球協會主催로 各機關 政黨社會團體招請卓球大會(16個 팀)에 參加, 團體二位 個人3位(金운탁)로 入賞하였다.
- 1973年 4月 22日 國會選手選拔戰에서 前選手外에 盧熙南選手(速記課)가 追加되었다.

- 1973年 4月 26日 共和黨創黨記念으로 大統領令夫人盃爭奪 卓球大會(14個 팀)가 共和黨主催로 열렸던 바 現朱文玉總務局長을 團長으로 한 國會代表팀은 同大會에도 參加, 個人 2等(盧熙南選手)을 獲得하였다.

——— ☆ ———

選手들의 活動은 以上 列舉한 程度에 지나지 않으며 다만 日淺한 卓球部沿革에 比하여 同部の 潛在會員의 數나 歷史는 部組織 以前에 全職員이 部員이고 全職員이 卓球를 쳐본 경력이 있으므로 가장 많은 部員과 가장 오랜 歷史를 가진 보이지 않는 自生團體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이러한 여건은 탁구부를 어떠한 確實한 自生團體로 組織을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알찬 조직과 보다 많은 參與(同好人)와 의 사이를 좁히는 날, 全會員이 아니 全部員이 수시로 자기 체력과 정신손모를 탁구로서 조절할 줄 아는 즐기가 스며들 때 명실상부한 獨立한 탁구부가 조직될 것이라고 選手들은 말하고 있다.

이 시기에야 총장배쟁탈탁구대회가 개최되지 않을까 짐작해 본다는 귀뜸이다.



<시합을 마치고>

想

金 雨 永

<1>

칠백리 먼길 연무대에서
 디딤발도 모른채 그저 오늘만 기다렸습니
 다
 남들이 다 간 길이라기에
 철없이 따라야 했습니다
 술한 단어들을 바닷가에서
 숙이와 조개껍질 모을 때
 마냥 걸음마했습니다
 이름지어 철모 배낭 수통피 방독면.....
 오늘만 믿고 참았습니다
 원산폭격 한강철교 포복 각개전투가
 그러했고
 식사개시와 감사의 묵념과 함께
 감사히 먹었습니다로
 고평배를 움켜잡아야 했습니다
 아랫도리가 환히 보여도
 아니 끽끔 안간힘 쓰는 틈으로
 이동주보의 고구마가 눈물겹게 고마웠습
 니다

<2>

정녕 오늘을 믿고 배우고 닦았습니다
 무에서 유를 태만에서 근면을
 자의인지 타의인지 모르겠습니다
 줄음을 참아야 했고
 추위가 없고 더위 또한 몰랐습니다
 이제 가만히 첫 연가의 기쁨을 되새깁니다
 어머니를! 아버님을 숙이를 어느편을 먼
 저 부를까?
 즐거운 몇밤이 휴가의 기다림으로 지나갔
 습니다
 함박꽃 같은 웃음을 보내고 싶었지만
 눈시울엔 무지개 빛이 영롱했습니다
 주름살이 한금 더간 어머님 모습이
 내보다 더 생각 키웠습니다
 깊은 잠속에 내 얼굴을 모습을 더듬는 손길
 어머니의 근심스런 힘줄이 닿았습니다
 몇밤 뒤면 또 시집살이 간다는데——

<3>

일년여 입은 제복이 제법 익숙 해지면
 또 하나를 더 배워야 합니다
 흔한 문자 뺏다였습니다
 몇번이고 헤아리다 보면

하루밤이 악몽처럼 지나가곤 했습니다
 살며시 뒷간에서 피묻은 팬츠를 잡고
 분단된 나라의 자식임을
 울음 터트려 푸념도 뱉었습니다
 한잔 한잔
 이젠 외출의 즐거움도 맛볼수 있습니다
 토요일의 조용한 밤길을 나란히 걷는 사람
 들이
 펍 저주스럽기도 했습니다
 군인은 군인이고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라
 고
 제대자가 들려줬습니다
 XX르탕에서 택XX에서
 마구 자신을 남을
 무참히도 밟아버렸습니다
 울음을 삼키며 억지로 즐거우려 했습니다

<4>

제법이나 복잡한 고참병의 생활이었습니다
 그속에서도 군인은
 너와 내가 아니고 우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를 믿으며
 즐거운 병영생활을 참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백만불의 맞춤형을 입고 군문을 나서면
 또 낯모른 사나이가 더블 백 올려메고
 젓먹은 힘 다해 신고를 합니다
 오늘 내일 무수한 낮과 밤을
 우린 우리로서 전우애로서 영원히 통할
 겁니다
 새로운 삶을 배운 동기생 아니 동문으로
 서의 정을——

(1968—어느날의 노트에서)



編輯者註：筆者는 國會事務處資料編纂
 課에 勤務하고 있고 또한 藝林同友會會員
 이기도 합니다. 本協會의 젊은 速記人들
 이 오늘도 軍門을 두드리고 있음에 先輩
 들은 과거의 兵營生活를 돌아보며 後輩들
 의 勞苦를 理解하는 뜻으로 平素 速記人
 들과 友意를 맺어온 金雨永同人께서 貴한
 翰首를 주셨음을 附記하면서 氏께 감사드
 립니다.

國 會 速 記 士

—그 一般性向에 關한 研究—

〈2〉

楊 澈 在

目 次

1. 序 論

- (1) 設問의 作成
- (2) 設問에 對한 調査
- (3) 設問資料의 分析方法

2. 本 論 (分析研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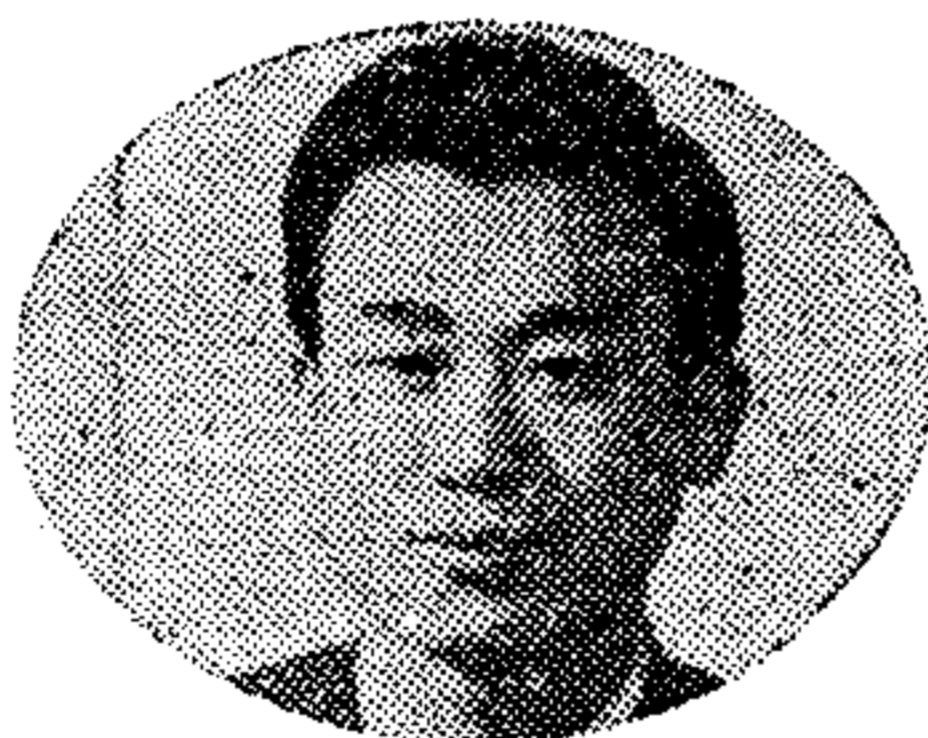
- 題(1) 生活指針
- 題(2) 餘暇利用
- 題(3) 計劃性
- 題(4) 活動의 障礙要素
- 題(5) 速記를 배운 動機
- 題(6) 適性 (速記術習得)
- 題(7) 難易度
- 題(8) 速記法式의 改良
- 題(9) 職業의 適性
- 題(10) 矜持와 長點
- 題(11) 不滿과 短點
- 題(12) 보람
- 題(13) 速記人의 性格
- 題(14) 自立度
- 題(15) 國會會議錄作成體制
- 題(16) 打字術을 利用한 翻文
- 題(17) 生活費와 待遇
- 題(18) 疲勞度
- 題(19) 道義觀

題(20) 處遇에 對한 意見

題(21) 몇가지 性向

題(12) 보람

題11에서 言及한바와같이 自己職業에 對한 肯定的 不滿에서 自己職業에 滿足치 못하는 現代職業人의 생리—같은 일의 반복에서 오는 타성적 不滿=本能的 不滿—를 勘案하고 헤아려 보아도 懷疑와 不安을 느껴(52%) 실증이 나고 태만해 진다(24%)고 많은 사람이 솔직한 응답비율은 內的條件과 外的條件으로 나누어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 같다.



매일 計劃은 세우되 일부의 實踐만이 가능하고(36%) 計劃없이 수시 메모로 活動하며(22%) 좋은 「아이디어」만 꿈꾸고(11%) 별 생각없이 지낸다(22%)는 無計劃的인 活動과 생각으로 일관하는 자신의 日常生活(題3)에서 한가지 內的原因을 찾을 수 있겠고, 創造力을 發揮하는 職이랄 수 없고(30%) 人事交流가 안 되며(27%) 昇進이 더디고(20%) 處遇가 나쁜(11%) 速記人 周邊의 좋지 않은 與件(題11)에서 한가지 外的原因을 發見할 수

가 있다.

以上の例據에 의하여 考察하건대 國會速記人들은 이러한 外的狀況의 不備에 그 원인과 責任을 너무 돌려서도 안 되고 자신의 부실에 지나치게 自責해서도 안 될 것이라는 意見이다. 왜냐하면 그 責任과 自責의 比率이 外的條件(88%), 內的條件 91%로서 內, 外條件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責任이 周邊에, 나에게 절반씩 깔려있음을 알고나서 어떻게 하여야 할까.

엄격히 말해서 적어도 他人에게 전가하

12問 선생님은 本職에 근무하면서 해가 거듭될수록,

는 責任에 너무 집착하여서는 아니되겠다 他人에게 기대를 갖기전에, 周邊을 탓하기전에 환경—풍토—개선과 자신의 계발에 「各自 스스로 능동적으로 진력한다」면 肯定的 不滿(題11에서)의 실마리를 풀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회의와 불안, 실증과 태만(本題)에서 벗어날 수 있는 處方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여 본다. 더우기 57%의 사람이 本職에 滿足하거나 史錄作成者라는 矜持를 갖고있고(題10), 16%의 사람이 보람과 즐거움으로 성실하게 근무해 나간다(本題)는 主張도 엄연히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겠기에 말이다.

應 答	區 分		性 別						在 職 年 數 別								
	總 數		男		79 對 比	女		79 對 比	5年미만		79 對 比	10年미만		79 對 比	10年이상		79 對 比
	人 員	%	人 員	%		人 員	%		人 員	%		人 員	%		人 員	%	
總 計	79	100	59	100	75	20	100	25	25	100	32	42	100	53	12	100	15
1. 보람과 즐거움 을느낀다	5	6	0	0	0	5	25	6	3	12	4	1	2.3	1	1	8	1
2. 회의와 불안이 쌍인다	41	52	37	63	47	4	20	5	9	36	12	26	62	33	6	50	8
3. 더욱 성실하게 근무해 나간다	8	10	5	9	6	3	15	4	5	20	6	1	2.3	1	2	17	2.5
4. 실증이 나고 태 만해진다	19	24	15	25	19	4	20	5	4	16	5	13	31	17	2	17	2.5
<無應答>	6	8	2	3	3	4	20	5	4	16	5	1	2.3	1	1	8	1

題(13) 速記人의 性格

速記人이 되고서 잠재적으로 性格이 어떻게 변모하였나를 各自 스스로에게 評價하도록 하였다.

좋은 面으로 性格이 변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40%—진취적이고 발전적 6% 세심하고 분명 18%, 인내와 노력형 15%—너그러워졌다 1%—이고 나쁘게 變質되었다고 개탄하는 사람이 48%—침체와 우유부단 34%, 성급하고 협소 14%—이며 國會速記人이 된 以後로 性格이 별로 變

한 것같지 않다고 본 사람이 11%로 나타났다.

또한 忍耐와 努力型이 되었다고 31%의 女性이 주장한 反面에 침체와 우유부단해졌다고는 18%의 女性이 首肯하고 있으며 前者에 對하여 8%의 男性만이 主張하고 後者에 對하여 41%의 男性이 肯定하고 있음은 女性이 速記職業에 대하여 男性보다 훨씬 適性에 맞는다 (題9에서 男性 63%, 女性95%)고 술회하면서 만족을 하고 있어 (題12에서 男性 0%, 女性25%) 이

형게 性格面에서도 스스로 밝게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在職年數別로 나타난 比率을 살펴보면 勤務年數가 짧을수록 忍耐와 努力型—5年미만 28%, 10年미만 9%, 10年以上 7%—이 되었음을 強調하고 勤務年數가 많을수록 침체와 우유부단한 性格이 된 편—5年미만 22%, 10年미만 40%, 10年以上 32%—이라고 더욱 내 세우고 있음은 本職에 대하여 별로 보람을 느끼지 않는다는(題12), 本職에 좀 不滿스럽다

13問 선생님은 速記人이 되어서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선생님의 性格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해당란은 모두 표시)

든가(題11), 59%의 사람이 願하는 職業이 아니라든가(題9) —以上 3가지의 意見에 대하여서는 題12에서 論及한 本能的 不滿을 염두에 두고 勘案하여야 할 것이다— 55%의 사람이 每日 無計劃적으로 生活한다든가(題3), 하는 諸般意見의 表出과를 比較, 勘案하여 볼때 이는 全體 윤곽속에 잠재된 문제점의 흐름으로 볼수 있어서 題12에서 論述한바 內, 外條件의 改善에 따라서 速記人性格이 더욱 밝게도, 어둡게도 나타나는 「렌즈」로 여길수 있겠다.

應 答	區 分		性 別						在 職 年 數 別								
	總 數		男		79 対 比	女		79 対 比	5年미만		79 対 比	10年미만		79 対 比	10年以上		79 対 比
	人 員	%	人 員	%		人 員	%		人 員	%		人 員	%		人 員	%	
總 計	103	100	74	100	95	29	100	37	32	100	41	56	100	71	15	100	19
1. 進 취 적 이 고 발 전 적 인 편 이 다	6	6	2	3	3	4	14	5	4	13	5	1	2	1	1	7	1
2. 세 심 하 고 분 명 한 편 이 다	19	18	13	17	17	6	21	8	6	19	8	9	16	12	4	27	5
3. 인 내 력 을 갖 게 되 고 노 령 형 이 되 었 다	15	15	6	8	8	9	31	12	9	28	11	5	9	6	1	7	1
4. 침 체 된 편 으 로 우 유 부 단 해 진 편 이 다	35	34	30	41	38	5	18	6	7	22	9	23	40	29	5	32	7
5. 성 급 하 고 협 소 해 진 편 이 다	15	14	12	16	15	3	10	4	4	13	5	10	18	13	1	7	1
6. 너 그 럼 고 도 량 이 넓 어 진 것 같 다	1	1	0	0	0	1	3	1	0	0	0	1	2	1	0	0	0
7. 별 로 변 한 것 같 지 않 다	11	11	10	14	13	1	3	1	2	6	3	6	11	8	3	20	4
<無 應 答>	1	1	1	1	1	0	0	0	0	0	0	1	2	1	0	0	0

題(14) 自立度

速記士가 되기 以前에서 지금까지 이어 오는 國會速記人들의 환경은 어떠한가를 알아 보는 것도 現 國會速記人들을 理解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 다루어 보았다.

「거의 自手成家한 사람」이 67%로서 압도적인 比率을 시현하고 있으며 순전히 自立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중에는 在

職年數가 높을수록—5年미만 16%, 10년미만 38%, 10년이상 59%—많은 比率을 나타내고 있다.

父母의 惠沢으로 現在 生活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가 女性—女性 35%, 男性 7%—들이라는 點을 생각할 때 國會速記人들은 거개가 自立을 해 왔으며 自立에 따른 고생도 감내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

겠다.

한가지 自立도와 結婚年齡에 있어서 어떠한 關係가 있을까하여 相關表를 作成하여 보니 自手成家로 일관한 型과 약간의 父母惠択型은 거의가 男性으로서 (79對比 男性 56%, 女性 11%) 35才以下에서 결혼한 사람이 各各 93%, 92%로 나타나고 있어 自立도와 結婚時期와는 無關係하며

全的으로 父母惠択型인 女性들은 거개가 30才以下에서 결혼하고 있다는 常識的인 妥當性만 發見하였다.

특히 女性中 45%가 自立한 사람으로 나타난 사실은 自立의 어려움을 이기고서 國會速記人이 되고자 忍耐를 거듭, 격심한 경쟁에서 승리한 매서운 女性들이라는 點에 웃짓을 여미게 한다.

14問 선생님은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自手成家하였다고 보십니까?

區分 應答	總數		性 別						在 職 年 數 別								
	人員	%	男		79對比	女		79對比	5年미만		79對比	10年미만		79對比	10年이상		79對比
			人員	%		人員	%		人員	%		人員	%		人員	%	
總計	79	100	59	100	75	20	100	25	25	100	32	42	100	53	12	100	15
1. 自手成家한편이다	27	34	24	40	31	3	15	4	4	16	5	16	38	20	7	59	9
2. 부모님의惠擇은입었지만自手成家한편이다	26	33	20	34	25	6	30	7	8	32	10	15	36	19	3	25	4
3. 父母님의惠擇으로生活하고있다	11	14	4	7	5	7	35	9	9	36	12	2	5	3	0	0	0
<無應答>	15	19	11	19	14	4	20	5	4	16	5	9	21	11	2	16	2

14問과 35問②의 相關表

14問		선생님은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自手成家하였다고 보십니까?												
35問②	14問答	計												無應答
		1. 自手成家한편이다		2. 부모님의惠擇은입었지만自手成家한편이다		3. 부모님의惠擇으로生活하고있다		無應答						
		人員	%	人員	%	79對比	人員	%	79對比	人員	%	79對比	人員	
	計	79	100	27	100	34	26	100	33	11	100	14	15	
	1. 25세이하에서 결혼	9	11	2	7	2.5	5	19	6.3	2	18	2.5	0	
	2. 30세이하에서 결혼	41	52	15	56	19	11	42	14	6	55	8	9	
	3. 35세이하에서 결혼	20	25	8	30	10	8	31	10	1	9	1	3	
	4. 36세이상에서 결혼	2	3	0	0	0	1	4	1.3	0	0	0	1	
	<無應答>	7	9	2	7	2.5	1	4	1.3	2	18	2.5	2	

題(15) 國會會議錄作成體制

國會會議錄의 業務體制는 두사람의 速記士가 本會議나 分科委員會에 參席하여

指定時間동안 速記를 하여 翻文을 마치면 編輯, 印刷過程을 거쳐 本會議會議錄은 익일아침 10時以前에, 委員會會議錄은 대

략 7日以內에 國會議員들에게 배부가 完了되도록 編成되어 있다.

이러한 業務編成을 國會速記인들이 스스로 어떻게 評價를 내리고 있나를 點檢하기 爲하여 統計를 作成해 보았다—한가지 分析 研究에 들어가기 前에 주의를 환기하고자 하는 것은 論者 자신이 數理的 統計를 가지고 경험을 토대로 한 순수한 學究的 立場에서 보다 發展할 수 있는 可能性 타진이라는, 國會速記人 周邊을 圍繞한 巨視的 目的으로 本題를 다루고 있다는 點을 理解하여 或 微視적으로 速記人의 一般性向 研究라는 主題와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誤解가 없기를 바라는 것이다—

現在의 業務制度에 8%의 사람이 滿足하고 있음은 다음으로 미루고 「약간 改善할 餘地가 있다(38%)」라는 應答과 「能率上 改善할 點이 많다(30%)」라고 하는 意見을 쫓아 알아볼까 한다.

먼저 「약간의 改善」에 38%의 사람이 同調한 事實에 對하여 想定할 수 있는 것은

첫째로 多量의 業務處理를 爲하여 두 사람의 速記士가 같이 하고 있는 業務를 한 사람의 速記士가 單獨責任下에 홀로 業務를 遂行하면서 다음 順番에 執務할 速記士가 어려운 말을 「메모」하는 等 補助하는 方法을 생각할 수 있겠다(英國의 速記業務體制). 그러나 이것은 우리말 구조상의 어려움에 따른 우리말 速記의 어려움—英語에 比하여 매우 어려운—으로 因하여 한 사람의 速記에 比하여 2人體制의 速記方法이 훨씬 正確度を 높일 수 있고—人間의 失手率을 減安하여— 한편 홀로 速記하는 편이 2人共同速記함에 比하여 單

位時間內的 業務處理量이 어느정도 많을 수 있음으로 약간의 翻文의 迅速化를 가져올 수 있다는 背反的 이유로서 上述한 方法은 採擇하기에 망서리게 되며 더우기 速記人 個個人의 技倆과 經驗과 知識이 均一하다고 볼 수 없는 立場을 認定한다면 더욱 어렵지 않을까 思料된다.

둘째로 業務處理의 能率을 爲하여 原稿檢討의 多段階를 줄이는 方案이다.

현재 두 사람의 速記士가 처음에 翻文을 完成하면 各自 檢討하고 다음에 責任맡은 한 사람(主務)이 두번째 檢討를 하고 관리자에게 넘어가 세번째 검토를 마친 다음 擔當會議 관리자에게 돌아가 네번째 檢討를 끝내면 編輯者에게 넘겨져 다섯번째로 檢討를 당한 뒤에 印刷所로 넘어가는 過程으로 되어 있다. 이 5段階檢討作業은 많은 時間이 消要되는 만큼 正確度는 높이 올릴 수 있는 長點이 있겠으나 多段階로 因하여 “다음 段階에서 잘 檢討하겠지”하는 責任感의 저하—소홀—도 가져올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改善의 餘地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셋째로 迅速하고 正確한 業務處理를 爲하여 資料室의 設置強化문제를 들 수 있겠다. 어려운 말들, 外來語, 具體的인 專門用語, 생소한 人名, 地名等에 대하여는 많은 常識을 갖고 있는 國會速記人들도 難關에 부딪치는 수가 많다. 圖書館을 利用하는 等 갖가지 手段을 강구하고 있지만 이러한 方法들은 모두 速記執務의 迅速을 外面하는 要因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常時 速記執務에 必要한 諸般

資料를 갖추고 速記人들의 問疑나 確認에 迅速하고 正確하게 即應할 수 있는 資料室의 設置利用이 바람직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넷째로 印刷過程의 能率化를 들 수도 있겠으나 이는 우리의 印刷技術上 文明한 先進國에 比較하여 論及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다만 印刷術의 획기적인 迅速化가 이루어짐에 편승하여 좀더 시간을 두고 擧論할 문제라고 思料된다.

다음에 能率上 改善할 點이 많다고 30%의 사람이 贊成한 사실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點은 우선 크게 要目을 들어 나누어 볼때

1. 速記段階의 機械化(機械速記)
2. 翻文(번역) 段階의 機械化
 - 1) 打字를 利用한 翻文
 - 2) 電子機器를 利用한 翻文
3. 速記와 翻文의 機械化(컴퓨터를 利用한 말의 즉시 印字化)

以上 列擧한 諸方法들을 想定할 수 있겠으나 速記段階를 機械化한다든가, 電子機器를 利用하여 翻文한다든가, 말을 即時印字化한다든가, 하는 方案은 手筆速記에 比하여 速記를 배운사람은 누구나 翻文할 수 있다는 長點外에는 正確도와 速度面에서는 오히려 낮은 편으로 나타나는 外國(日本 美國等)의 先例를 參酌하여 取하기 어렵거나(前者), 日本에서 겨우 實驗段階에 있어서— STEPS— 그 實効성에 疑問이 가는 處地이거나(中者), 아직도 未解決의 章으로 먼 將來에나 바라볼 수 있는 方案이거나(後者)하여 現在 採擇할 수 있는 方法이라고 主張하기는 困難하다고 본다.

다만 翻文時間의 短縮으로서 速記士들의 翻文作業에 打字術을 導入한다는 문제이다. 이 方法은 速記士의 速記業務와 따로 타이피스트에게 速記士들이 速記한 原文을 읽어주든지 천천히 특수녹음기에 翻文吹入한 것을 타이피스트가 들어가며 打字로 翻文하는 業務로 分離시켜 分業化하는 方案(英國 등의 例)—2元的인 業務方案—과, 速記士가 速記도 하고 打字로 翻文도 하는 一元的인 業務方案—새로운 方案—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前者의 경우는 外國에서도 흔히 採擇하고 있는 方案이기는 하되 우리나라의 實情으로 보면 翻文時間이 短縮되어 速記士의 消要人員이 줄 수 있는 反面에 그 數만큼 타이피스트가 불어나야 된다는 消要判斷이 나오고 筆者自身이 國政監查隨行時의 經驗으로 미루어 보아도 말을 들으며 打字하는 「타이피스트」의 피로도가 너무 높다는 새로운 문제점을 發見한 바 있는 것이다.

後者の 경우는 速記士가 두가지의 業務를 함께 한다는 點에서 볼 때 速記業務한가지만 가지고도 81%의 사람들이 많은 피로를 느끼고 있는데다(題21) 翻文의 打字化業務가 手筆翻文보다 훨씬 피로가 점친다는 經驗에 비추어 翻文時間의 一時的인 短縮은 기할 수 있겠지만 長期的인 能率面에서는 採擇하기 困難하다는 結論에 到達하게 된다.

그러므로 前後者의 두가지 方案은 면밀하게 長期的인 眼目을 가지고 醫學的인—臨床醫學的인—人間能力面과 우리말速記術의 特殊한 難易性を 勘案하여 檢討研究되어야 할 것으로 思料된다.

以上과같이 國會會議錄作成體制의 能率

化에 대하여 많은 速記人들이 막연하게指摘한 改善點을 찾아 筆者가 몇가지 주위에 흠어져 있는 方案을 모아 약간의 比較分析을 加하여 살펴보았다.

이는 오로지 本題에 關心있는 많은 速

15問 선생님은 「速記→번문(번역)→편집 인쇄→익일배부」하는 現 國會會議錄作成業務 體制가 능률있게 잘 편성되었다고 보십니까?

記人들의 이미 알려진 意見을 들어 풀어본 것이고 23%의 사람들이 同 改善點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고 표시한 應答과는 사실 거리가 있는 것이다.

區分 應答	總數		性 別						在 職 年 數 別								
	人 員	%	男		79 對 比	女		79 對 比	5年미만		79 對 比	10年미만		79 對 比	10年이상		79 對 比
			人 員	%		人 員	%		人 員	%		人 員	%		人 員	%	
總計	79	100	59	100	75	20	100	25	25	100	32	42	100	53	12	100	15
1. 능률있게 잘 짜여졌다	6	8	5	8	6	1	5	1	2	8	3	2	5	3	2	17	2.5
2. 약간改善할 여지가 있다	30	38	21	36	27	9	45	11	12	48	15	13	31	16	5	41	6
3. 능률상 개선할 점이 많다	24	30	22	37	28	2	10	3	4	16	5	17	41	22	3	25	4
4. 잘 모르겠다	18	23	10	17	13	8	40	10	7	28	9	9	21	11	2	17	2.5
<無應答>	1	1	1	2	1	0	0	0	0	0	0	1	2	1	0	0	0

題(16) 打字術을 利用한 翻文

翻文의 迅速을 위하여 打字術을 利用하는 것이 어떤가하는 意見을 具體적으로 求해본바 不必要하다는 見解가 54%이고 必要하다는 意見이 44%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速記原文을 打字로 翻文할 때 手筆 翻文보다 2倍程度 빨리 翻文을 마칠 수 있다는 理論的 根據— 一般的으로 速記士가 1분에 한글 漢文混用 翻文時 70字程度를 쓰고 打字術에 의한 것은 한글로만 150字程度를 打字 翻文된다는 基準—를 勘案하더라도

첫째 打字 翻文은 우선 漢字混用이 안되고(國會會議錄은 한글·漢字混用임)

둘째 現在 速記人數의 절반에 가까운 노련하고 知識이 풍부한 打字員을 採用하여야 되는 人員確保 및 增員이 문제이고

셋째 速記人自身이 打字術을 익혀 打字 翻文을 한다면 가장 理想的인 能率方案이

겠으나 集中的業務의 特異性으로 豫算國會時에 몹시 피로를 느낀다고 81%의 速記人들이 述懷하는 處地(問21)에 打字 翻文의 業務까지 접치게 되면 疾勞度는 極甚하여 長時間의 執務를 계속하기 困難하게 된다. 그리하여 打字手當을 設어 待遇해 준다 해도 過重한 激務로 正確 迅速한 業務遂行에 蹉跌을 빚게 될 우려가 있음으로 이는 能率主義라는 미명하에 速記人의 健康을 外面한 拙速方案이 되지않을까 염려스럽다.

以上の 例學에 의하여 過半以上の 사람들이 打字 翻文의 導入을 反對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다만 前題(15)에서 論及한 바와같이 우리가 한글專用的 會議錄이 作成될 時期에 가서는 숙련되고 知識이 풍부한 「타이피스트」에 의하여 打字 翻文하거나, 速記人이 直接 「타이핑」에 의한 翻文을 하거나 합이 翻文의 迅速을 爲하

여 타당할 것이라는 意見에 44%의 速記人들이 贊成을 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翻文의 迅速化方案은 곧 모든 會議錄(本會

議, 分科委員會會議錄)의 翌日發刊方案과 直結되는 것이므로 더욱 重要性이 強調된다고 하겠다.

16問 선생님은 速記를 배우고 번문의 신속을 위하여 打字術까지 습득하는 것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區分 應答	總數		性別						在職年數別								
	人員	%	男		79 對比	女		79 對比	5年미만		79 對比	10年미만		79 對比	10年이상		79 對比
			人員	%		人員	%		人員	%		人員	%		人員	%	
總計	79	100	59	100	75	20	100	25	25	100	32	42	100	53	12	100	15
1. 이상적이라고 보지만 별로 필요 를 느끼지 않 는다	43	54	25	42	31	18	90	23	20	80	26	19	45	24	4	33	5
2. 필요하다	35	44	33	56	42	2	10	2	5	20	6	22	53	28	8	67	10
3. 잘 모르겠다	1	2	1	2	2	0	0	0	0	0	0	1	2	1	0	0	0

題(17) 生活費와 報酬<問17, 18, 19, 20 22>

速記人들이 各自 집안에서 消費되는 生活費(問17)와, 報酬와의 關係(問18), 赤字의 補充策(問19), 및 文化生活面(問20), 社會保障制度가 不完全한 우리 還境下에서 家庭醫療費關係(問22)等 主로 各家庭의 살림꾸리기 戰線을 가볍게 살펴본바 結論으로 悲觀적이고 憂鬱하고 서글픈 「데이타」로 가득차 있다는 사실이다.

即 4~7만원의 生活費가 드는 사람이 가장 많은 比率(問17의 64%)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報酬보다 3분의1 내지 2분의1을 上回하는 生計維持費로서 報酬가 每月經費의 3분의2 乃至 2분이1밖에 되지 않는다고 55.5%의 사람이 털어놓고 있음에 비추어(問18) 俸給이 生活費에 못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좀더 說明을 加하자면 俸給으로 生活이 充分하다는 사람이 逆說적으로 5%이며 이 가운데 4%가 女性. 俸給으로 겨우 生活할 수 있다는 사람 26.5%를 除外하고는 모두 生

活費不足을 절감하고 있으며 在職年數가 많을수록 더욱 심각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赤字를 어떻게 메꾸어나가고 있을까? 別對策 없이 赤字生活에 허덕이고 있다고 솔직하게 是認하고 있는 사람이 24%이고 여러가지 内外與件으로 밝히기를 꺼려하는 사람이 32%나 되고 있다(問19) 그리고 請託速記等 自力으로 4%의 사람만이 赤字를 解決할 뿐 40%의 사람이 他人의 도움을 받고 生活하고 있는 것이다.

以上の 統計를 보더라도 自力 他力의 報酬外도움이 따로 주어지지 않는 限 各개의 速記人들이 一般行政公務員으로서 내핍생활에 허덕이는데에다 또한 行政職群內의 速記職列이라는 妙한 制度에 묶여 (사실 職이 微分化된 現國會人事規則은 職의 統一化를 기해가는 政府方針 및 國家公務員法에 逆行되는지의 與否가 疑問임) 사실상 行政職 아닌 技術職으로서 固定陞進의 機會조차 몹시 鈍化된 狀況

(題11)으로 말미아마 失意에 빠져 職에 대한 보람도 希望도 肯持도 衰盡하고 있다(題10, 題12)는 사실을 直視할 수가 있다.

이러한 與件속에서 職務의 能率方案을 꾀한다고 所期한 바 結實을 맺을 수 있을까? 懸案의 문제점들을 타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만 筆者는 어떠한 화려한 甘言과 麗句로 가득찬 方策들이라도 以上 叙述한 바 待遇와 門戶의 開放策을 外面한 것이라면 一時 糊塗策은 될지언정 根本 解決策은 되기 어려우리라고 감히 確信하여 본다.

문제의 畫面을 옮겨 問20을 살펴보자.

自宅에 文化生活을 즐기는 사람은 1% 뿐, 60%의 사람이 無住宅인 것이다. 이 가운데 衣食住生活에 쫓기고 있는 사람이 41%의 比率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家庭을 責任진다고 할 수 없는 25%의 女性을 빼면 75% : 41%로서 60%程度의 男性들이 生活에의 辛苦를 치루고 있는 것이

다.

그리고 生計費中 醫療費가 차지하고 있는 比重을 한가지 알아본 結果 生活費의 5~10%内外의 醫療費가 든다는 사람이 76%로 나타나고 있어 4~5만원의 生活費라면 3,000~5,000원의 醫療費가 든다는 셈이다. 以上の 應答은 우리 周圍의 사정을 考慮하건대 豫防醫療費라기보다는 病後治療費라는데 문제점이 있으며 이러한 支出費目은 教育費等과 더불어 家長을 괴롭히는 要素가 되고 있다.

貧困과 疾病의 追放, 教育費와 無住宅에서 解放되는 날 最少의 生計維持가 될 수 있다고 보겠고 이럴즈음에야 文化施設을 利用한 文化生活을 享有하게 될 것이 아니겠는가 헤아려 본다.

다만 19%의 사람들이 住宅等이 마련되지 않은 逆境속에서도 나름대로 情緒와 文化生活을 즐기고 있어서 이들의 높은 精神的 安定과 生活觀의 뚜렷함에 경탄과 찬사를 보내고싶다.

17問 선생님은 公私活動費와 집안 생활비등 일체를 포함해서 月 平均경비는 얼마나 되십니까?

區分 應答	總數		性 別						在 職 年 數 別								
	人 員	%	男		79 對比	女		79 對比	5年미만		79 對比	10年미만		79 對比	10年이상		79 對比
			人 員	%		人 員	%		人 員	%		人 員	%		人 員	%	
總 計	79	100	59	100	75	20	100	25	25	100	32	42	100	53	12	100	15
1. 1만원이하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2만원이하	3	4	1	2	1.5	2	10	2.5	1	4	1	1	2	1	1	8	1
3. 3만원이하	18	22	12	20	15	6	30	7	9	36	12	6	14	7.5	3	25	4
4. 4만원이하	13	16.5	12	20	15	1	5	1.5	4	16	5	9	22	12	0	0	0
5. 5만원이하	28	36	25	43	32	3	15	4	4	16	5	20	48	25	4	34	5
6. 7만원이하	9	11.5	8	13	10	1	5	1.5	0	0	0	6	14	7.5	3	25	4
7. 9만원이하	1	1.5	1	2	1.5	0	0	0	0	0	0	0	0	0	1	8	1
8. 9만원이상	1	1.5	0	0	0	1	5	1.5	1	4	1	0	0	0	0	0	0
<無應答>	6	7	0	0	0	6	30	7	6	24	8	0	0	0	0	0	0

18問 선생님은 위에서 밝히신 매월경비가 선생님의 봉급으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區分 應答	總數		性 別						在 職 年 數 別								
	人 員	%	男		79 対 比	女		79 対 比	5年미만		79 対 比	10年미만		79 対 比	10年이상		79 対 比
			人 員	%		人 員	%		人 員	%		人 員	%		人 員	%	
總計	79	100	59	100	75	20	100	25	25	100	32	42	100	53	12	100	15
1. 충분하다	4	5	1	2	1.5	3	15	4	2	8	2.5	1	2.5	1.5	1	8	1.5
2. 겨우충당할정 도다	21	26.5	14	24	18	7	35	8.5	9	36	11.5	8	19	10	4	33.5	5
3. 매월경비의2/ 3밖에안된다	32	40.5	30	51.5	38	2	10	2.5	4	16	5	24	57	30	4	33.5	5
4. 매월경비의1/ 2밖에안된다	12	15	12	20	15	0	0	0	2	8	2.5	8	19	10	2	17	2.5
5. 매월경비의1/ 3밖에안된다	3	4	2	3.5	2.5	1	5	1.5	1	4	1.5	1	2.5	1.5	1	8	1.5
<無應答>	7	9	0	0	0	7	35	8.5	7	28	9	0	0	0	0	0	0

19問 선생님은 위에서 밝히신 매월경비가 선생님의 봉급으로서 부족하다면 무엇으로赤字를 메꾸십니까?

區分 應答	總數		性 別						在 職 年 數 別								
	人 員	%	男		79 対 比	女		79 対 比	5年미만		79 対 比	10年미만		79 対 比	10年이상		79 対 比
			人 員	%		人 員	%		人 員	%		人 員	%		人 員	%	
總計	79	100	59	100	75	20	100	25	25	100	32	42	100	53	12	100	15
1. 별대책없이赤 字生活에 허덕 이고있다	19	24	16	27	20	3	15	4	5	20	7	11	27	14	3	25	4
2. 가족중봉급생 활자의혜택을 받는다	12	15	9	15	12	3	15	4	2	8	2	9	21	11	1	8	1
3. 가정부업으로 메꾼다	12	15	12	21	15	0	0	0	0	0	0	8	18	10	4	33	5
4. 청탁속기수입 으로메꾼다	3	4	3	5	4	0	0	0	0	0	0	1	2	1	2	17	2.5
5. 부모의혜택으 로메꾼다	8	10	4	7	5	4	20	5	6	24	8	2	5	3	0	0	0
<무응답>	25	32	15	25	19	10	50	12	12	48	15	11	27	14	2	17	2.5

20問 선생님은 어느정도로 안정된 가정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區分 應答	總數		性 別						在 職 年 數 別								
	人 員	%	男		79 対 比	女		79 対 比	5年미만		79 対 比	10年미만		79 対 比	10年이상		79 対 比
			人 員	%		人 員	%		人 員	%		人 員	%		人 員	%	
總計	79	100	59	100	75	20	100	25	25	100	32	42	100	53	12	100	15
1. 내소유의주택 을갖고있으며 비교적안정된 문화생활을하 고있다	1	1	0	0	0	1	5	1	0	0	0	0	0	0	1	8	1
2. 내소유의주택 은갖고있지만																	

만족한文化生活은 못하고있다	20	25	19	32.5	24	1	5	1	4	16	5	9	22	11.5	7	59	9
3. 내소유의주택은장만하지못하고있지만내정확한문화생활을누리고있다	15	19	9	15	12	6	30	7	5	20	6	9	22	11.5	1	8	1
4. 아직집안문화生活은커녕衣食生活에만히달리고있다	32	41	29	49	37	3	15	4	6	24	8	23	54	29	3	25	4
<무응답>	11	14	2	3.5	2	9	45	12	10	40	13	1	2	1	0	0	0

22問 선생님의 가정의료비지출은 생활비의 몇%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區分 應答	總數		性 別						在 聯 年 數 別								
	人員	%	男		79 對 比	女		79 對 比	5年미만		79 對 比	10年미만		79 對 比	10年이상		79 對 比
			人員	%		人員	%		人員	%		人員	%		人員	%	
總計	79	100	59	100	75	20	100	25	25	100	32	42	100	53	12	100	15
1. 생활비의 5% 내외	29	37	22	37	28	7	35	9	9	36	11	14	33	18	6	50	8
2. 생활비의 10% 내외	31	39	26	44	33	5	25	6	8	32	10	18	43	23	5	42	6
3. 생활비의 20% 내외	8	10	6	10	8	2	10	3	2	8	3	5	12	6	1	8	1
4. 생활비의 30% 내외	4	5	4	7	5	0	0	0	0	0	0	4	10	5	0	0	0
<無應答>	7	9	1	2	1	6	30	8	6	24	8	1	2	1	0	0	0

題(18) 疲勞度<問21>

前題 醫療費支出과 다소 關係가 있을수 있겠고 速記執務로 因하여 職業病을 誘發할 수 있는 것인가를 알아볼 爲本題를 提示하였다.

豫算國會等 過重한 速記業務를 繼續할 때 19%의 사람만이 身體上에 支障을 받지 않고 勤務할 수 있으며 81%의 사람이 몹시 疲勞를 느끼고 특히 이 가운데 18%의 사람은 速記執務로 因하여 특유의 「스트레스」症狀이 온다고 苦哀를 털어놓고 있다.

「말이 空間에 흐르자마자 可聽即時 擴散되어 없어져버리는 말소리, 이 순간의 말소리를 훌륭한 記憶組織, 知識에 의한 聯想作用, 反射組織에 이르는 손놀림等으

로, 高速度로 精密하게 글자로 表記해 내는 作業은 職業病을 일으킬 수 있는 要因이 숨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常識的 論理는 이제 經驗的인 統計로 證明되고 있다. 勿論 題(15)에서 論及한 바와 같이 醫學的인 面에서도 하나의 研究課題가 될 수도 있겠다.

題(19) 道義觀<問23>

手段方法을 가리지 않고 財力을 쌓고 昇進하고싶다는 慾望過度型은 2%

良心을 外面하고서, 他人에게 被害를 끼치고서까지 榮達을 누리고싶지 않다는 君子型은 91%로 압도적

改治舞台의 記錄實務에 從事하는 이들이 或 「마키아벨리」的 過慾이 矚目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一般의 疑惑을 쫓아

21問 선생님은 豫算國會執務等으로 過重한 業務를 계속할 때

應答	區分		性 別						在 聯 年 數 別								
	總 數		男		79 對 比	女		79 對 比	5年미만		79 對 比	10年미만		79 對 比	10年이상		79 對 比
	人 員	%	人 員	%		人 員	%		人 員	%		人 員	%		人 員	%	
1. 總 計	79	100	59	100	75	20	100	25	25	100	32	42	100	53	12	100	15
2. 身體上에 아무런 지장을 느끼지 않는다	15	19	12	20	15	3	15	4	6	24	8	7	17	9	2	17	3
3. 신체상에 약간은 지장을 느낀다	24	30	19	33	24	5	25	6	7	28	9	12	28	15	5	41.5	6
4. 몹시 피로하다	26	33	18	30	23	8	40	10	8	32	10	13	31	16	5	41.5	6
5. 속기 집무시에 느끼는 특유의 스트레스 현상이 나타난다	14	18	10	17	13	4	20	5	4	16	5	10	24	13	0	0	0

反應을 打診한 바 너무나 차분히 스스로 素의 推測은 誤解에 不過했다고 본다. 의 本分과 道義觀이 정립되어 있음에 平

23問 선생님은 다음 사항중 긍정이 가시는 경우를 체크해 주십시오.

應答	區分		性 別						在 聯 年 數 別								
	總 數		男		79 對 比	女		79 對 比	5年미만		79 對 比	10月미만		79 對 比	10年이상		79 對 比
	人 員	%	人 員	%		人 員	%		人 員	%		人 員	%		人 員	%	
1. 總 計	79	100	59	100	75	20	100	25	25	100	32	42	100	53	12	100	15
2. 무슨 방법으로든지財力을 쌓고昇進하면 만족한다	2	2	1	2	1	1	5	1	0	0	0	1	2	1	1	8	1
3. 他人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어떻게든財力을 쌓고昇進하는 것은 좋다	28	35	22	37	28	6	30	8	7	28	9	16	38	20	5	42	6
4. 良心을外面하 고서財力을 쌓고昇進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	44	56	33	56	42	11	55	14	15	60	19	23	55	29	6	50	8
<무응답>	5	7	3	5	4	2	10	2	3	12	4	2	5	3	0	0	0

題(20) 處遇에 대한 意見 <問24>

59.5%의 사람들이 現俸給을 가지고 生計費가 안 된다(問18)고 하여 이들의 意見을 追跡해 본 結果 家族手當의 新設要望이 55% 速記手當引上要求가 41%로 나타났다. 더우기 家族手當은 在職年數가 더 할수록(5년미만 32%, 10년미만 66.5

%, 10년이상 67%) 手當新設을 絶對히 要望하고 있다. 이는 家族과 教育費의 增加等으로 捰捰이가 불어남에 따른 必然的인 理由라는 點은 보다 自明한 일인 것이다.

여하튼 問題는 96%의 사람이 家族手當을 新設하고 速記手當을 引上하여 實質的

인 生計維持가 될 수 있는 生活給의 保障을 熱望하고 있다는 심각한 사실이다.

년이 지났거나 報酬의 差等이 微細한 程度로 支給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報酬體制의 矛盾을 안고 있기도 하다.

또한 現報酬體制는 처음 들어왔거나 10

의 矛盾을 안고 있기도 하다.

24問 선생님은 현보수체제에 대하여 어떤 意見을 갖고 계십니까?

區分 應答	總數		性 別						在 職 年 數 別								
	人 員	%	男		79 對 比	女		79 對 比	5年미만		79 對 比	10年미만		79 對 比	10年이상		79 對 比
			人 員	%		人 員	%		人 員	%		人 員	%		人 員	%	
總計	79	100	59	100	75	20	100	25	25	100	32	42	100	53	12	100	15
1. 가족수당을 실했으면 좋 다	44	55	38	74	47	6	30	8	8	32	10	28	66.5	35	8	67	10
2. 速記手當을 올렸으면 좋 다	32	41	20	34	26	12	60	15	14	56	18	14	33.5	18	4	33	5
3. 현보수체제 로 만족한다 <무응답>	2	3	0	0	0	2	10	3	2	8	3	0	0	0	0	0	0
	1	1	1	2	1	0	0	0	1	4	1	0	0	0	0	0	0

題(21) 몇가지 性向<問25, 26, 27, 28>

47%의 사람이 事業家가 되었으면, 19%의 사람이 教育家가 되었으면 하고 希望하고 있고 長官이나 國會議員이 되었으면 하는 사람은 단 5%로 「아이로니칼」하다

每日 朝夕으로 대하는 新聞 時事에 밝아야 하는 速記人들이 新聞의 內容中 文化面을 가장 關心있게 보고있고(33%) 다음에 政治面을 읽고 있다(30%).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經濟面을 가장 下位로 꼽고 있는 點(18%)이겠다. 經濟적으로 運轉하는 못하나 固定收入에 依存하는 俸給者들, 이들이 어찌면 安逸함에 사로잡혀 經濟動向의 時事에 鈍感한 것이나 아닐까 여러모로 생각해 볼 일이다.

各個個人的 趣味. 山이 좋아 山에 가는

25問 선생님이 희망하는 이상적인 직업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이 39.5%, 낙시를 즐기는 사람이 12.6%, 書道에 耽溺하는 사람이 12.6%, 기타 바둑, 정구, 탁구等 趣味들이 다양하지만 다만 山, 낙시, 書道를 취미로 삼는 사람들의 모임이 가장 활발하다고 보아진다.

적당한 運動과 情緒活動으로 餘暇를 보내고 있다는 題(2)와 一貫性이 있는 統計이기도 하다.

親知 또는 친척의 慶吊事에 時間이 許諾하는대로 參席하는 사람이 68%로 個人的 親睦과 紐帶에 신경을 쓰고 있다. 換言하면 速記人들은 比較的 人事性이 밝고 社交的인 「타일」이라고 여겨지며 많은 速記人들이 서로 親睦하여 도우며 生活해 간다는 事實은 速記人들만의 強點일 수도 있으리라 判斷해 본다.

區分 應答	總數		性 別						在 職 年 數 別								
	人 員	%	男		79 對 比	女		79 對 比	5年미만		79 對 比	10年미만		79 對 比	10年이상		79 對 比
			人 員	%		人 員	%		人 員	%		人 員	%				
總計	79	100	59	100	75	20	100	25	25	100	32	42	100	53	12	100	15

1. 速記士	4	5	0	0	0	4	20	5	2	8	3	1	2.5	1	1	8.5	1
2. 國會議員	3	4	3	5	4	0	0	0	0	0	0	3	7	4	0	0	0
3. 長官	1	1	1	2	1	0	0	0	0	0	0	1	2.5	1	0	0	0
4. 事業家	37	47	34	57	43	3	15	4	7	28	9	22	52.5	28	8	66	10
5. 教育家	15	19	10	17	12	5	25	6	7	28	9	6	14	8	2	17	3
6. 藝術家	7	9	2	3.5	3	5	25	6	4	16	5	3	7	4	0	0	0
7. 軍人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8. 運動家(體育)	1	1	1	2	1	0	0	0	0	0	0	1	2.5	1	0	0	0
9. 其他	9	11	6	10	8	3	15	4	5	20	6	4	9.5	5	0	0	0
<무응답>	2	3	2	3.5	3	0	0	0	0	0	0	1	2.5	1	1	8.5	1

26問 선생님은 신문의 어느 기사를 더 관심있게 보십니까?

區分 應答	總數		性 別						在 職 年 數 別								
	人 員	%	男		79 對 比	女		79 對 比	5年미만		79 對 比	10年미만		79 對 比	10年이상		79 對 比
			人 員	%		人 員	%		人 員	%		人 員	%		人 員	%	
總計	79	100	59	100	75	20	100	25	25	100	32	42	100	53	12	100	15
1. 政治面	24	30	19	32	24	5	25	6	4	16	5	14	33	18	6	50	8
2. 文化面 (스포츠 초기사도포함)	26	33	15	25	19	11	55	14	14	56	18	11	26	14	1	8	1
3. 社會面	15	19	11	19	14	4	20	5	5	20	6	7	17	9	3	25	4
4. 經濟面	14	18	14	24	18	0	0	0	2	8	3	10	24	12	2	17	2

27問 선생님은 아래에 열거한 모임에 가입하신 곳이 계시면 체크하여 주십시오(해당란은 모두 표시)

區分 應答	總數		性 別						在 職 年 數 別								
	人 員	%	男		79 對 比	女		79 對 比	5年미만		79 對 比	10年미만		79 對 比	10年이상		79 對 比
			人 員	%		人 員	%		人 員	%		人 員	%		人 員	%	
總計	119	100	83	100	105	36	100	45	38	100	48	56	100	70	25	100	32
1. 國회낙사회	15	12.6	13	16	17	2	6	3	1	2.6	1	10	18	13	4	16	5
2. 國회산악회	47	39.5	30	36	38	17	19	21	23	60	29	18	32	22	6	24	8
3. 國회서도회	15	12.6	7	8	9	8	22	10	6	16	8	5	9	6	4	16	5
4. 國회유도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5. 國회정구부	1	0.8	0	0	0	1	2	1	0	0	0	0	0	0	1	4	1
6. 國회탁구부	6	5	5	6	6	1	2	1	1	2.6	1	4	7	5	1	4	1
7. 기타國회내임 의단체	7	5.9	5	6	6	2	5	3	0	0	0	4	7	5	3	12	4
8. 기타國회외임 의단체	13	10.9	9	11	11	4	11	5	6	16	8	4	7	5	3	12	4
<無應答>	15	12.6	14	17	18	1	3	1	1	2.6	1	11	20	14	3	12	4

28問 선생님은 친지 또는 친척의 慶弔事(결혼, 돌, 문병, 조상등)에 어느정도 참석하
시는 편입니까?

應 答	區 分		性 別						在 職 年 數 別											
	總 數		男			女			5年미만		79		10年미만		79		10年이상		79	
	人	%	人	%	79 対比	人	%	79 対比	人	%	79 対比	人	%	79 対比	人	%	79 対比	人	%	79 対比
	員	%	員	%	対比	員	%	対比	員	%	対比	員	%	対比	員	%	対比	員	%	対比
總 計	79	100	59	100	75	20	100	25	25	100	32	42	100	53	12	100	15			
1. 시간이 허락하 는대로 참석한 다	54	68	46	78	58	8	40	10	13	52	16	30	71.5	38	11	91.5	14			
2. 선택해서 참석 한다	20	25	11	18.5	14	9	45	11	10	40	13	9	21.5	11	1	8.5	1			
3. 별로 참석하지 않는다	5	6	2	3.5	3	3	15	4	2	8	3	3	7	4	0	0	0			

<다음호에 계속>

斷 想
여기서 뜻

混沌이 마음속에서 춤출때 사람은 彷徨하는가 보다. 그래서 焦燥하고 不安하여 安절부절하는 悶골을 하기도 하고 비실비실 웃으며 必탈길을 가듯 위협스런 모습이어서 남을 놀라게도 하나보다. 이렇게 답답하고 자기 몸 가누기가 주체스러워 苦惱와 몸부림으로 세월을, 靑春을 呑아먹는다던가? 대개는 이만큼 살면서 나는 무엇을 하였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 나갈 것인가. 아 아니 도대체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삶의 意味를 골똘히 생각하는 버릇이 이러한 사람들에게 스며들게 마련이기도 하다.

希望이라는 분홍빛 誘惑이라든가, 가시달린 仙人掌같은 野望이라든가, 푸른 잎사귀를 활는 기분이 불쑥 돌게 하는 出世慾이라든가, 高級 아이스크림같은 麗人에게 눈독을 드린다든가, 그리고 그리고 심술스럽고 고집스런 名譽란 소힘줄에 최후로 매달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열기설기 뒤엎혀 사람을 잿빛 eros의 昏迷에서 맴맴 돌리다가 그저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비정한 順理(眞理)를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참으로 人生을 살다 살다, 나를 아려다 아려다 처절한 失敗만 거듭하는 이 풀 수 없는 疑惑의 바다에서 noah의 方舟를 타려는 人間의 意志를 불나비라고 불려보자. 뚜렷해 보려 애쓰고 돋보이려고 안간힘쓰는 우리의 周圍를 누구든 마음에 간직한 良心같은 本能이라고 해 두자. 그래도 人間의 마음속에 깊숙히 깔려있는 未知에의 追求熱은 무엇이라고 할까? 머리를 모아 가만히 생각을 하고 동산에 올라 아래를 아래를 내려다 보며 눈을 부릅떠 보아도 서로 서로 말들을 늘어놔 보아도 짙은 안개가 나를 나를 우유빛으로 물들여 봐 이내 나는 「虛構」의 먹칠로 遁甲해 버린다.

먹빛은 먹빛은 나의 故郷, 靑春은 바람개비, 慾望은 짓푸른 마음의 회오리, 시벨건 靑春도 시퍼런 慾望도 셋노란 미움도 먹빛 내 故郷서는 그저 그저 暗黒일뿐.....

나는 어둠을 밝히는 별속에서 人間이 물들이는 은갓 불나비 行爲가 결국 어둠(宇宙)에 깔리는 形象을 본다. 반짝 반짝이는 한 밤의 별들처럼.

「뜻」은 어디에 있나 「뜻」은 어디에 있나 <在>

用語解説 (6)

研究委員會

○「테헤란」協定 : 세계의 産油國들이 60년에 창설한 OPEC(석유수출국기구)가 71년 2월 「테헤란」에서 「아람(아라비아인 아메리칸) 오일」회사와 석유공사(公示)가격인상에 관해 체결한 협정.

①「페르샤」灣의 원유 공시가격을 「배럴」에 35「센트」 인상하고 ②「이락」, 「카다르」 「아부다비」국의 소득세율을 55%로 인상하며 ③「석유」회사는 71년 6월과 72~75년 사이에 매년 1월 1일 「1배럴」에 2.5%의 「인플레이」만큼과 그위에 5「센트」를 덧붙여 공시가격을 인상하고 반대급부로서 OPEC는 75년 말까지 원유공급을 안정시키고 일체의 수출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내용

○PPM과 PPB : PPM은 Parts Per Million의 약자로 100만분율을 표시. 단위 용적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물질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로 대기 또는 수질오염 등 오염물의 농도표시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PPB는 Parts Per Billion 10억분율을 표시하는 단위 1PPB는 1PPM의 1000분의 1이다.

○假給金 : 증빙서류가 구비되지 않았거나 計定項目이 결정되지 않았을 때 임시로 지출하는 경비를 假支給金 또는 假給金이라 한다.

○住居地域 :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일상주거생활을 위한 지역으로 설정되는 곳.

근거는 도시계획법에 두고 있다. 주거지역은 다시 주거전용지역,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細分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VOA : 미국의 해외방송인 「미국의 소리」 Voice of America의 약칭. 국무성 소속 미국 정보처가 운영.

○可處分所得 : 처분할 수 있는 소득. GNP에서 자본소모충당금과 간접세를 뺀 후

정부보조금을 합친 것이 국민소득이며 국민소득에서 정부소득과 법인소득을 뺀 것이 개인 소득이다. 개인소득에서 다시 ①정부경상이전(벌금, 공립학교 공납금등) ②직접세 ③해외경상이전(외국에 대한 송금)을 뺀 것이 가처분소득이다.

○孤兒바이러스(orphanVirus) 이름을 알 수 없는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총칭.

○端株 : 去來單位에 미달되는 株.

○DDD(Direct Distance Dialing) : 장거리자동전화 방식

○메이저 : 국제석유자본 [엑손(舊名은 「스탠더드 뉴저지」), 걸프오일, 텍사코, 스탠더드캘리포니아, 모빌, 로이얼 더치 셸, 영국석유(BP), 프랑스 석유(FP)]

○반더 포겔(Vander Vogel) : 철새라는 뜻. 1901년 독일에서 비롯된 이 운동은 도보여행과 야외활동으로 미지의 땅을 돌며 자연, 문화, 역사, 지리, 산업등 광범위한 산지식을 섭취, 건전한 인격을 함양하자는데 목적이 있다.

○王洪文 : 文化大革命期間中 頭角을 나타낸 前上海織物工場 勞動者. 上海에서 비밀경찰類의 活動에 종사한 者로서 1973年 8月24日부터 25日까지 열린 十全大會에서 毛澤東 周恩來에 이어 第3人者로 뛰어 오른 人物. 30代의 청년으로 中央委副主席

○支準附利 : 한국은행이 支準金에 붙여주는 利子. 支準金이란 市中銀行과 特殊銀行등 예금은행이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예금수신액중 일정액을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예치하는 支拂準備預置金을 줄여서 쓰는 말.

○닉슨·라운드(Nixon round) : GATT(관세무역일반협정)를 中心으로 世界 여러나라가 무역의 증대를 위한 關稅 및 非關稅 장벽의 완전철폐, 또는 감소를 위해 일정기간을 설정 協商함을 뜻한다.

71.8.15. 닉슨 美國 大統領에 의해 제의되었기 때문에 「닉슨라운드」라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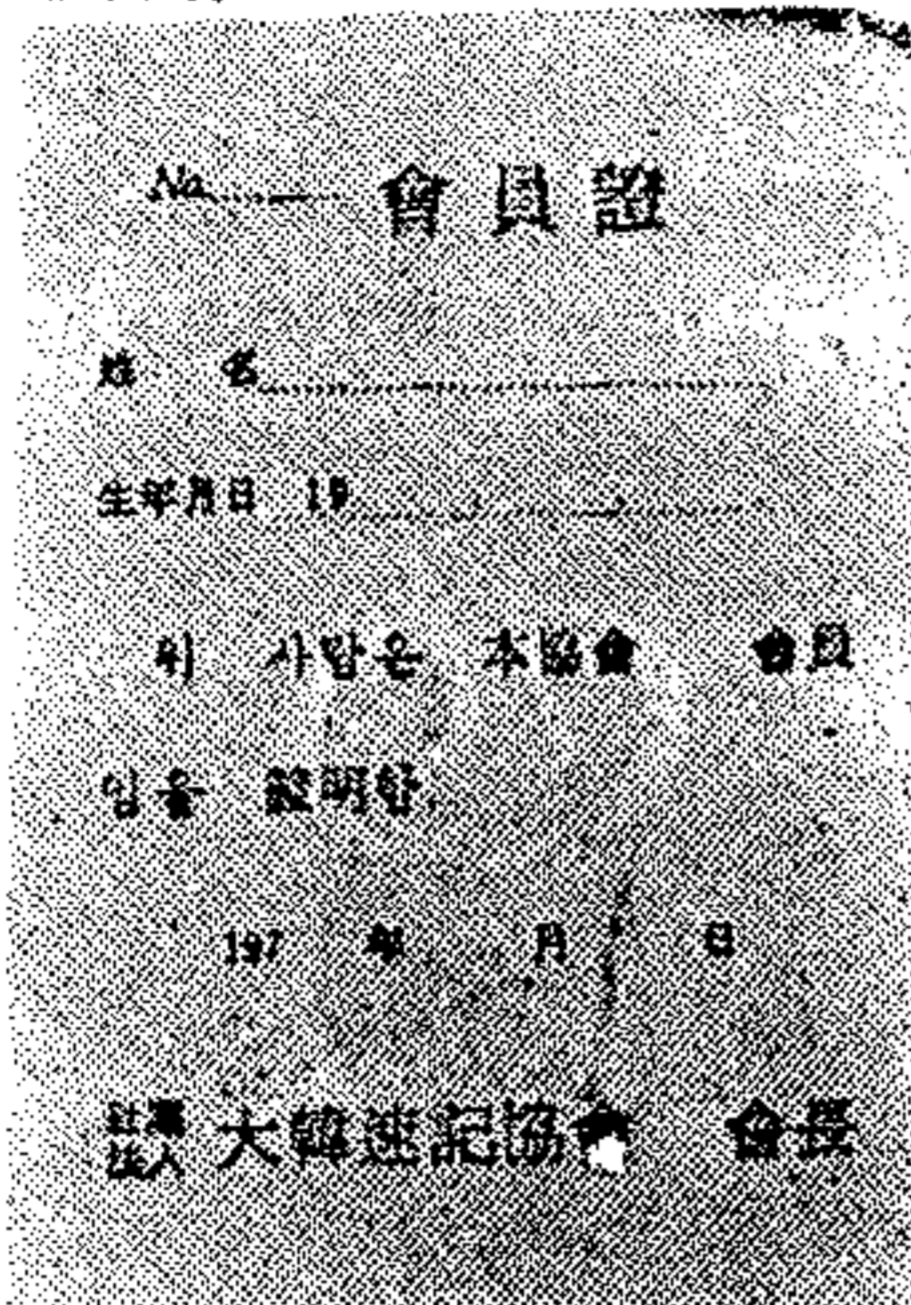
60년대 초에는 케네디 大統領에 의해 제의된 「케네디라운드」協商이 성공적으로 진전되어 한동안 自由貿易의 바람이 불었으나 60년대 말 금「달러」파동으로 와해되었다.

◇ 公 告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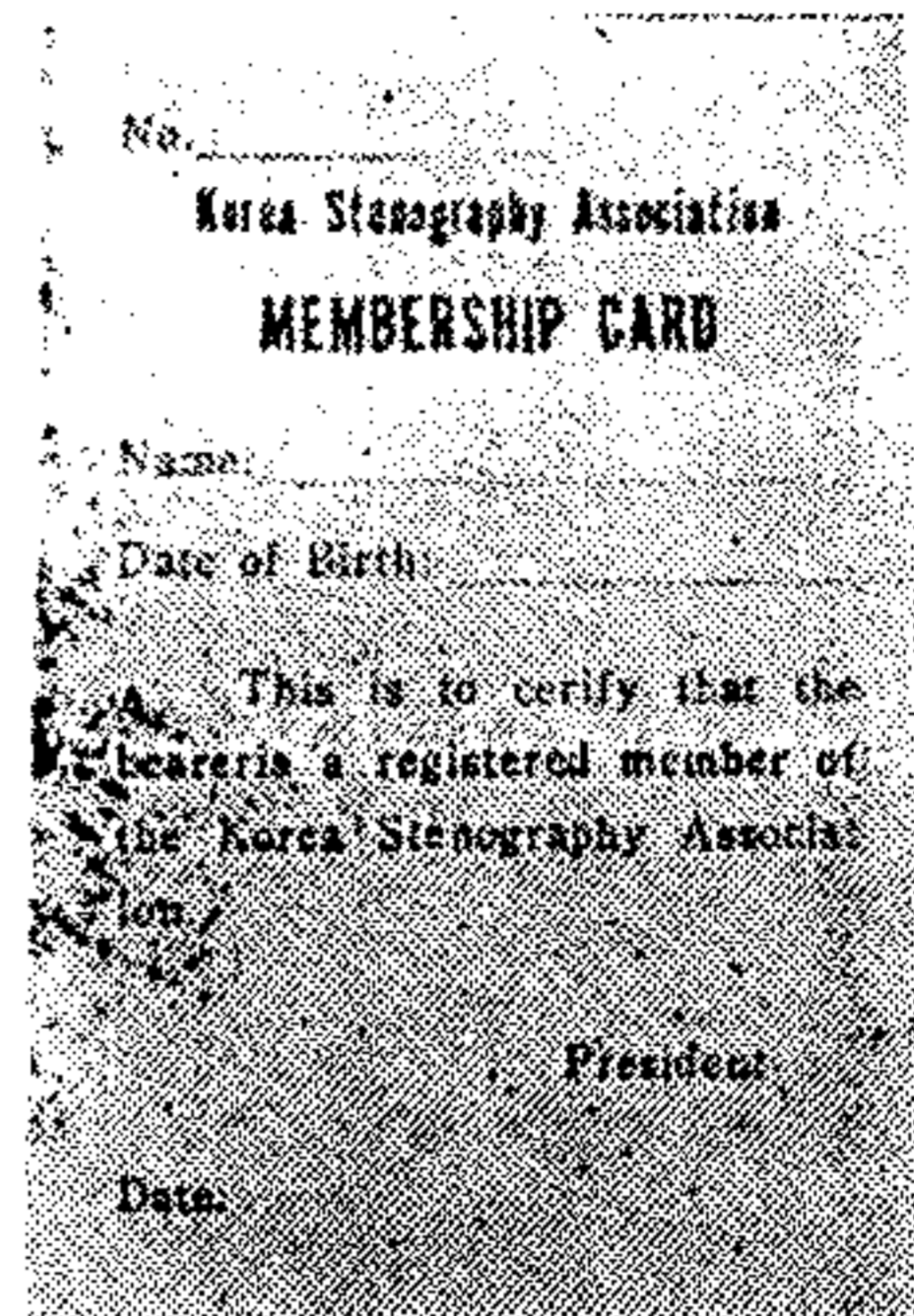
會員證 및 資格證 更新

1973年 9月 20日字로 當協會 會員證 및 資格證을 更新하였기 公告합니다.
舊會員證 및 資格證은 同日字로 無效이오니 交付申請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會員證(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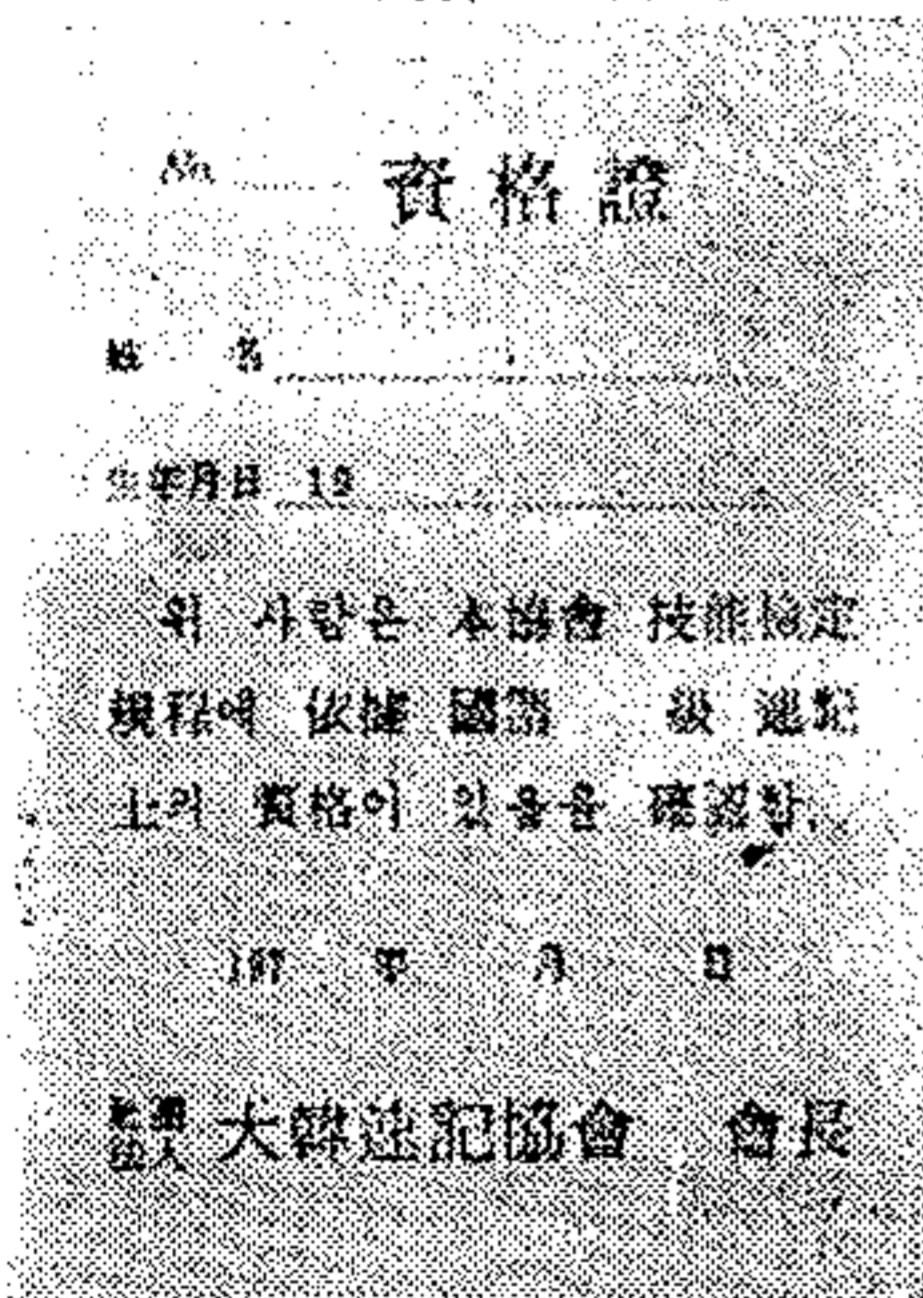


<國 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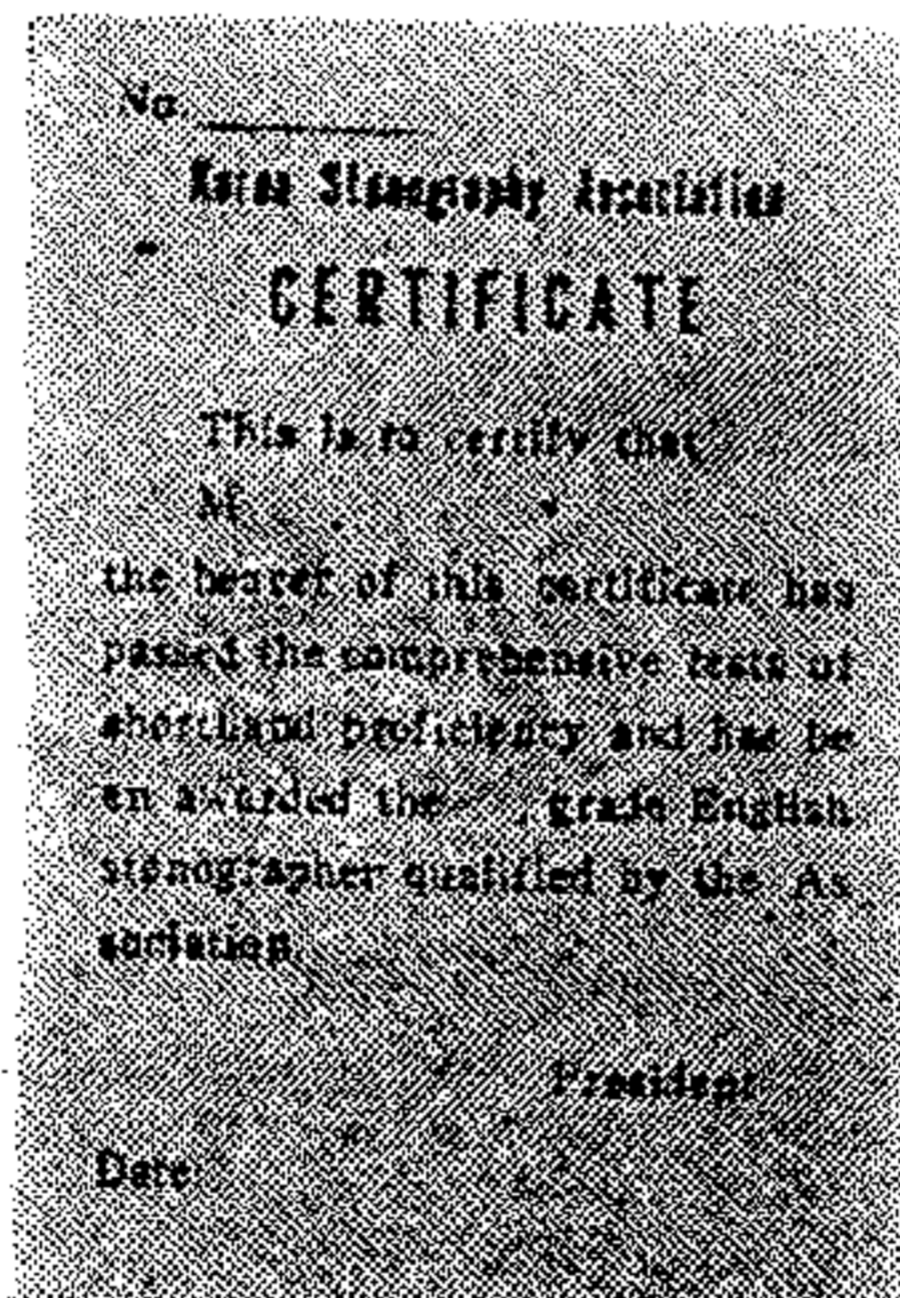


<英 語>

2. 資格證(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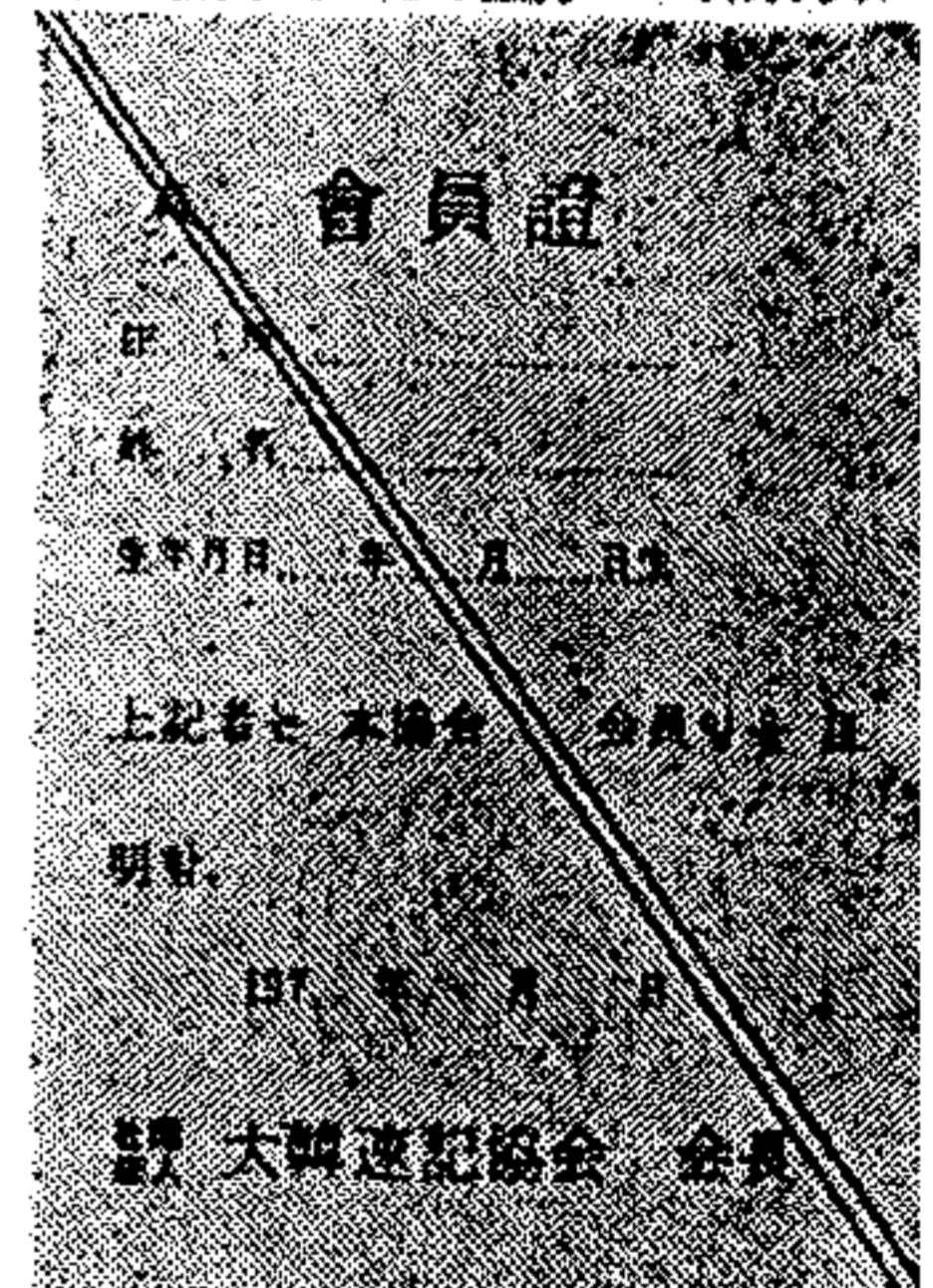


<國 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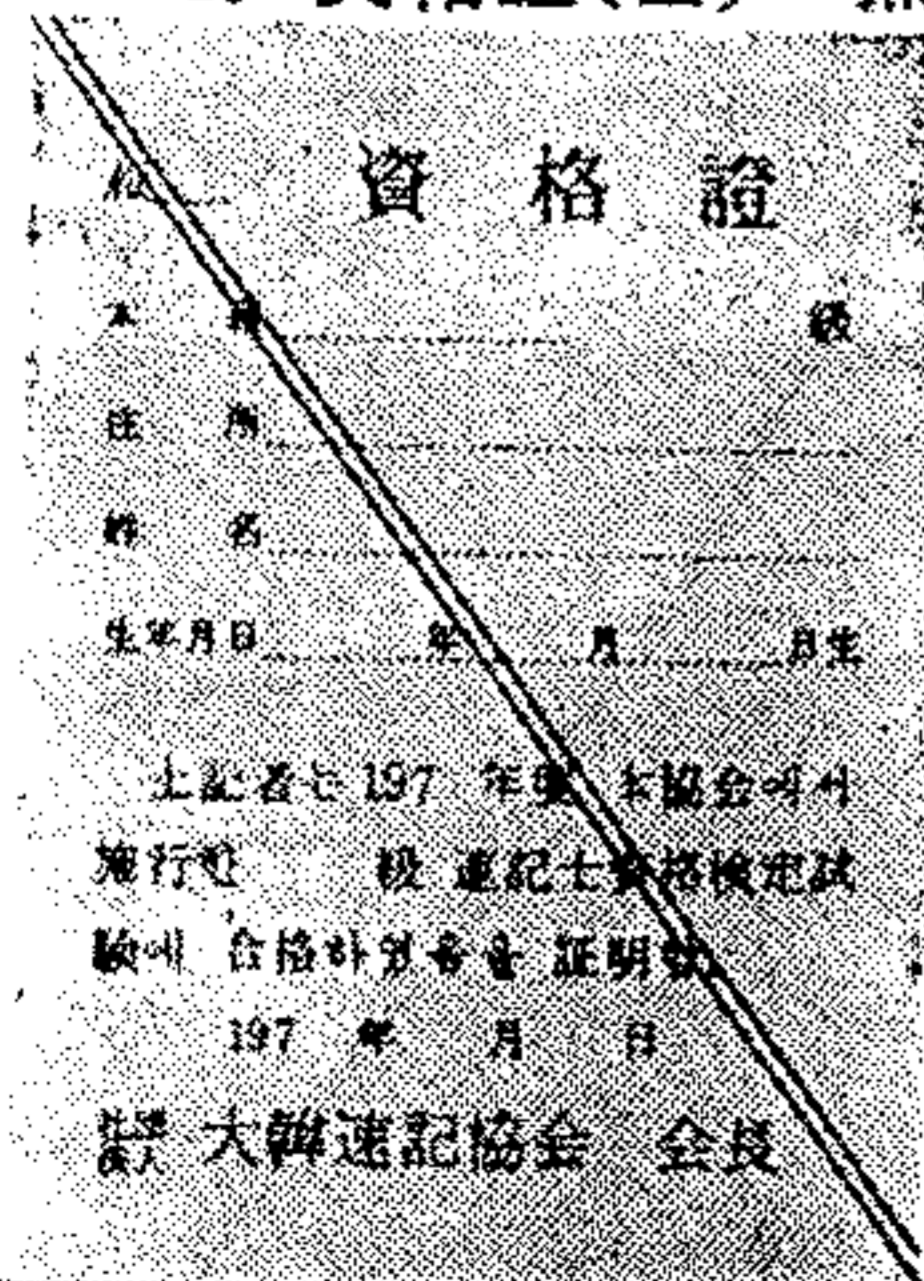
<英 語>

3. 會員證(舊) : 無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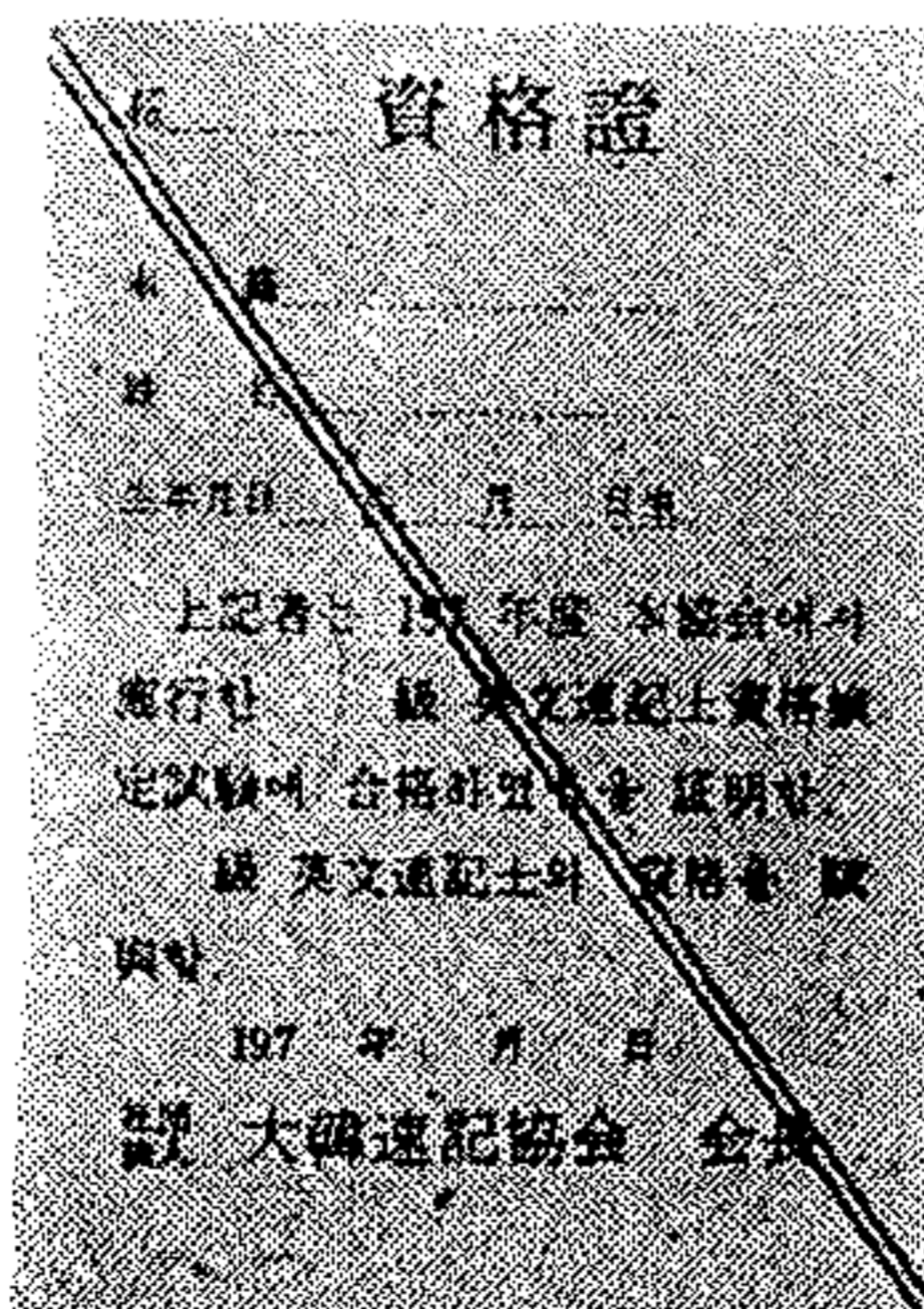


<國 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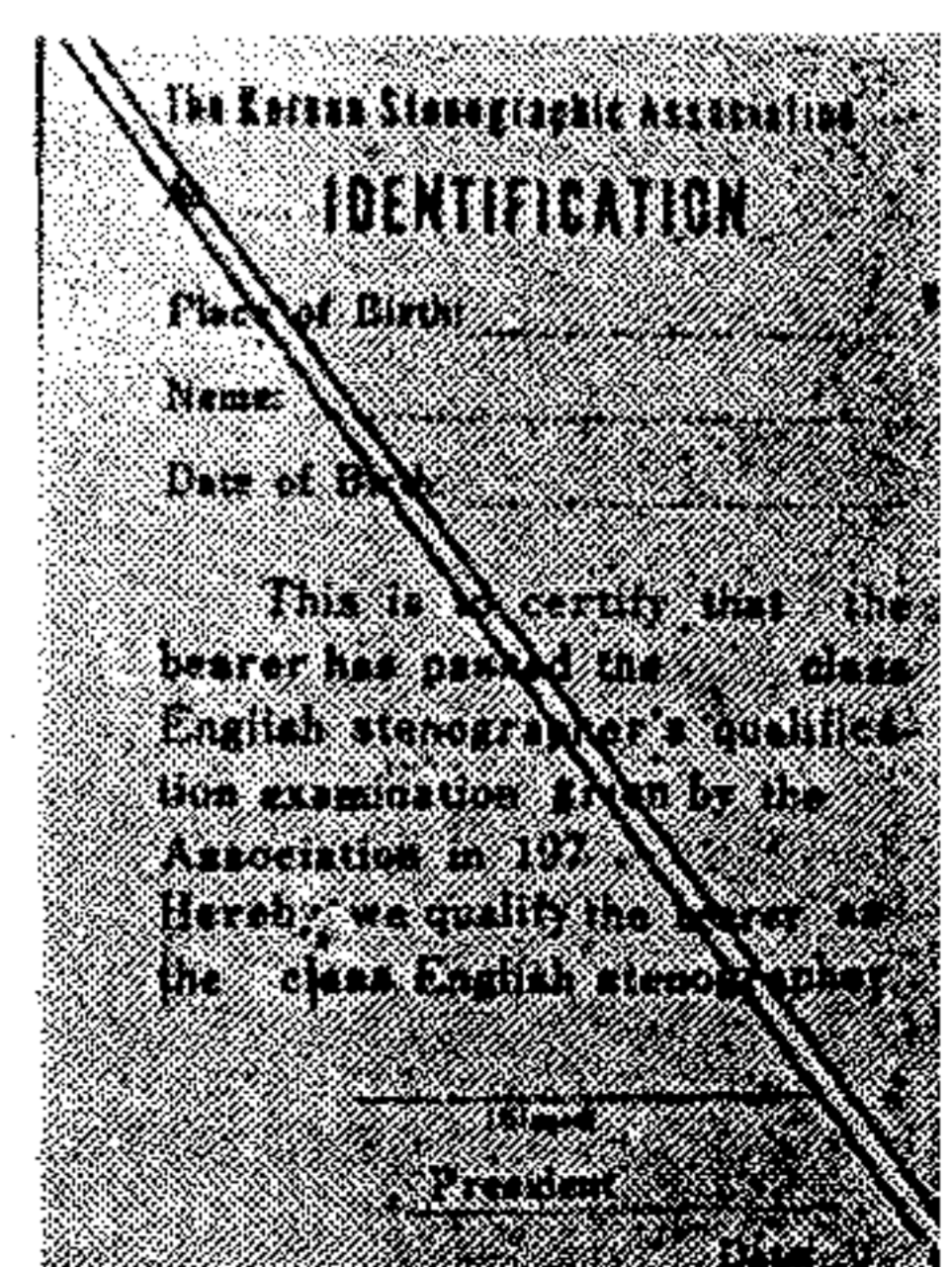
4. 資格證(舊) : 無效



<國 語>



<英 語>



<英 語>

消息을 알립니다

宣 傳 部

【1】國會事務處에서 10餘年동안 勤務하던 崔秉秀會員은 73年 5月1日자로 靑瓦台警護室로 職場을 옮겼습니다.

【2】5月25日자로 國會速記課에 勤務하는 朴順必會員이 軍入隊關係로 休職하였습니다.

【3】5月25日, 26日에 걸쳐 實施한 73年度 國會速記職公務員公開競爭採用試驗合格者를 알리면서 紙上으로 祝賀를 보냅니다.

高	錫	光	金	福	童
朴	正	鎬	金	彩	榮
金	敬	海	金	銀	淑
李	英	愛	柳	承	寬
金	銅	洙	權	寧	燦

【4】6月19日 午後2時에 國會速記課長 離就任式이 있었습니다.

새로 오신 速記課長은 前에 速記擔當官으로 계셨던 金鎮基(本協會副會長)氏이고 崔興俊課長은 가까운 國會文教公報委員會行政室長으로 補任받아 가시게 되었습니다.

○ 離任의 말씀(崔興俊氏) : 速記課에서 가장 오랫동안 일해온 金鎮基氏가 後任으로 온데 대하여 滿足하면서 教育界에 投身해온 自身이 文公委員會로 가게 된 이번 人事에 대하여 總長께 敬意를 표한다.

經濟的인 先·後進의 문제보다도 精神的인 發展性向을 따져보면 自己일에 열심인 사람들의 社會는 先進일 것이요, 서로 남에게 關心을 쏟아 혈투는 社會는 後進일 것으로 精神的인 先進國이 되자. 또한 人和를 돈독히 하자.

○ 就任의 말씀(金鎮基氏) : 崔興俊課長의 탁월한 行政力과 指導力에 의한 速記課의 推進事項을 어떻게 大過없이 이끌어 갈 것인가 두려운바 여러분의 협조와 합심을 기대한다.

○ 특히 速記課에 오랫동안에 걸쳐 編輯責任者의 한 사람으로써 勞苦를 아끼지 않은 柳炳星書記官의 人事에 일동 뜨거운 拍手로 그의 承進轉任을 祝賀하였습니다.

끝으로 司會를 보신 鄭源道速記第1係長께서 우리 課를 親庭으로 아시고 앞으로도 더욱 親庭식구들을 성원해 주시기 바란다는 要旨의 答辭아닌 代辯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5】李康萬會員은 勞動本廳에서 京畿道城南市 산재사무소로 轉任되었습니다.

【6】姜萬根會員은 監查院에서 總務處廳舍管理事務所運營課로 轉任되었습니다.

【7】軍에 服務中이던 金昶鎭會員이 除隊하여 6月23日 國會速記課로 復職하였습니다.

【8】會員加入

4月 2日 이대봉 : 陸軍少領, 陸軍本部秘書室勤務

4月25日 朴正鉉 : 青瓦台警護室勤務

6月12日 김동수 : 國會速記課勤務

〃 김복동 : 上同

〃 권영찬 : 上同

〃 박정호 : 上同

〃 유승관 : 上同

※ 名譽會員

7月 3日 吳壽東 : 國會速記士養成所勤務

〃 金敬順 : 國會事務處管理課勤務

【9】6月16日 國會議員休憩室에서 本協會의 外國語速記部를 強化하기爲하여 英文速記關係者들과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參席者 : 理事長, 總務部長, 外國語部長 本協會未加入 英語速記士6人 傭서버(학생)7名
計 16名

主要Memo

〈1〉 金永善理事長은 英語速記實務者들이 本協會에 加入함으로써 유대 및 친목을 가지고 情報交換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가를 打診하기 위한 모임이라고 說明하고 本協會의 沿革을 紹介하였다.

〈2〉 盧英民外國語部長도 國際會議의 消化策으로써 팀워크구성과 既成外國語速記人의 團結協力等 內實을 기하여 이에 對備하자고 強調

〈3〉 韓德順(호남정유)氏는 팀워크구성이 라면 週1회 모여서 英語速記에 關한 情報交換 및 資質向上을 기하자고

〈4〉 유문신(「차타드 뱅크」 서울支店)씨는 1. 第3國人英語의 히어링不足 2. 새로운 略法에 대한 情報未熟 3. 韓國人英語速記士들에 대한 「매니저」들의 認識不足을 打開해야 한다고 力說

〈5〉 理事長은 피차의 不足을 서로 補完하는 意味에서 결속과 親睦이 重要하다는 要旨의 結論을 내렸다.

【10】 英文速記士 會員加入

1973年6月16日자로 10年 乃至 20餘年の 速記經歷을 갖고 國內英語速記를 擔當해온 優秀한 英語速記士들이 아래와 같이 加入되었음을 알리면서 歡迎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國內에서 開催되는 國際會議의 英文速記分野를 本協會會員으로써 全擔하리라 믿어 기대와 아울러 마음튼튼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1. 유문신(女) : 「차타드」은행서울지점장실 근무
2. 韓德順(女) : 호남정유수석부사장실 근무
3. 金東福(女) : 조선호텔총지배인실 근무
4. 田仁淑(女) : IBM KOREA INC 근무
5. 안순희(女) : 美國제일은행지점장비서실 근무

【11】 慶 吊

- 〈1〉 金永善理事長 母親喪 1973. 4. 10
- 〈2〉 金基英會員 父親喪 1973. 5. 14
- 〈3〉 盧壯愚會員 父親喪 1973. 6. 10
- 〈4〉 宋鍾學會員 父親喪 1973. 8. 19
- 〈5〉 姜駿遠指導委員 回甲 1973. 6. 17
- 〈6〉 徐浩正會員 結 婚 1973. 4. 18
- 〈7〉 尹壽鉉會員 結 婚 1973. 5. 26
- 〈8〉 高太仲會員 結 婚 1973. 5. 28

【12】 訪 問

6月13日 石村式創案者인 石村善左氏(63才)가 本協會를 訪問하엿습니다.

日本國의 前衆議院速記士였으며 現在는 日本速記協會教育委員으로 있는 氏는 基本文字의 高速化문제, 翻文의 手筆與否等 우리 速記界의 一般現況을 알아보았읍니다.

速 記 席

○ 9月20日 開院을 앞두고 各常任委員會에서는 會議場整理의 最終點檢을 하느라 분주한 中인데 某委員會를 들르니 速記席이 議席中央地여야 하느냐 遠心地냐

로 意見을 나누다 中央位置로 落着되는 寸劇.

某 常任委員長의 뜻에 따라 가끔 議席中央에서 記者傍聽席으로까지 소외당하는 例도 있어 政府答辦일 경우 작고 가는 말을 휘어잡아 記錄하기에 눈과 귀 그리고 머리를 기우려 초신경일 때가 있는 것이다.

永遠히 保全되는 記錄文書를 作成한다는 矜持와 使命感만으로는 완벽한 記錄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不聽地域(會議場구석)에 놓여진 速記席일 경우임을 理解해 주시기를.....

○ 國會速記課에서는 開院前 約 두달에 걸쳐 每日 200字原稿紙에 매어쓰지 않고 5枚씩 漢字쓰기를 하여 實務에 對備한 전열을 정비하고 速記實務鍊習도 마친바 있는데 이 「漢字쓰기」가 議事局全體 即 약간 無關하달 수 있는 課에까지 派及되어 個人의 漢字實力向上이라는 各自 나름대로의 目的이라면 몰라도 教育(?)이라면 未安感이 앞선다고 主張한 사람의 一辨.

會議錄의 漢字使用範圍를 規定하고 用語便覽을 調查研究하여 發表하러는 本速記課는 「일하는 課」로써 一新되고 있다는 衆評을 듣고 있다.

과연 우리는 일하고 또 일했다고 後輩들에게 들려 줄 날도 멀지 않으리라 생각해 본다.

<澈>

研究委員會規程

1970. 1. 26 制定
1973. 4. 10 改正

第1條 本規程은 速記學 및 速記術發展과 研究에 關한 事項을 規程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研究委員會(以下“委員會”라 稱한다)는 理事會에서 選任하는 8人以內的 委員을 둔다.

第3條 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研究한다.

1. 既存 速記法式의 改良發展에 關한 事項
2. 速記學研究에 關한 事項
3. 機械速記研究에 關한 事項
4. 速記術向上 및 速記業務改善에 關한 事項
5. 其他事項

第4條 委員會에 創案者 若干名을 諮問委員으로 理事會의 承認을 얻어 委員長이 推戴할 수 있다.

第5條 委員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斯界의 權威者를 招聘할 수 있다.

第6條 委員長은 會務를 掌理하며 委員會의 議長이 된다.

第7條 幹事는 委員中에서 互選하며 委員長을 補佐하고 委員長의 有故時에는 그 職務를 代理한다.

第8條 委員會의 會議는 委員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때 또는 理事長이나 委員 3分の1 以上の 要求가 있을때 委員長이 召集한다.

第9條 委員會의 會議는 委員 3分の2 以上の 出席으로 開議하고 出席委員 3分の2 以上の 贊成으로 議決한다.

附 則

本規程은 1970年1月26日부터 施行한다.

附 則

本規程은 1973年4月10日부터 施行한다.

資格審査委員會規程

1973. 4. 10 制定

第1條(目的) 會員의 資格審査 및 懲戒에 關한 事項과 技能檢定에 關한 事項을 管掌하기 爲하여 社團法人 大韓速記協會內에 資格審査委員會 (이하 “委員會”라 稱한다)를 둔다.

第2條(構成) ①委員會는 理事會에서 選任하는 8人以內的 委員으로 構成한다.
②委員會는 委員長 1人과 幹事 1人을 둔다.

③委員長은 理事會에서 選出하며 幹事는 委員中에서 互選한다.

第3條(委員長과 幹事の 職務) ①委員長은 委員會를 代表하며 會務를 統理한다.

②幹事는 委員會의 會議錄作成 및 委員會의 庶務를 處理하며 委員長 有故時 그 職務를 代理한다.

第4條(機能) 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審査處理하여 理事會에 報告한다.

1. 會員의 資格에 關한 事項
2. 會員의 懲戒에 關한 事項
3. 技能檢定에 關한 事項

第5條(會議) ①委員會의 會議는 委員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때 또는 理事長이나 委員 3分の1 以上の 要求가 있을때 委員長이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②委員會의 會議는 非公開를 原則으로 한다. 그러나 利害當事者는 委員會의 決議에 依하여 參席할 수 있다.

第6條(議決) ①委員會는 委員 3分の2 以上の 出席으로 開議하고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②委員長은 表決權을 가지며 可否同數인 때에는 決定權을 가진다.

第7條(運營細則) 委員會의 運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委員長이 따로 定한다.

附 則

이 規程은 1973年4月10日부터 施行한다.

資格審査 및 技能檢定規程

1969. 5. 1 制定
1971. 7. 8 改正
1973. 4. 10 改正

第1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規程은 會員의 資格審査 및 懲戒에 關한 事項과 技能檢定에 關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章 資格審査 및 懲戒

第2條(會員의 資格) ①國語速記에 있어서는 速記士資格 2級以上 또는 國家公共團體의 速記職에 從事하는 者로서 協會의 諸般義務의 遵守를 受諾한 者를 正會員으로 한다.

②英語速記에 있어서는 英語速記를 專業으로 하는 者로서 協會의 諸般義務의 遵守를 受諾한 者를 正會員으로 한다.

③會長은 이 條項의 規制를 받지 아니한다.

第3條(會員의 懲戒) 會員中 다음 各號에 該當하는 事由가 發生하였을 때에는 3月以上의 停權 또는 除名할 수 있다.

1. 社團法人 大韓速記協會 定款第7條의 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한 때
2. 本協會의 事業을 妨害하거나 害를 끼쳤을 때
3. 本協會의 名譽를 毀損하거나 會員相互間의 不僞를 招來케 한 때
4. 會費를 3月以上 納付하지 아니한 때

第3章 技能檢定

第4條(技能檢定の 目的) 速記의 社會的 役割의 重要性에 비추어 그 機能을 充分히 하게 하기 爲하여 基準을 定하고 그 基準에 相應하는 能力을 認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5條(檢定基準) 1級내지 8級으로 定하고 內容은 別表와 같다.

第6條(檢定方法) 檢定方法은 實技試驗을 原則으로 한다.

第7條(公告) 試驗施行 10日前에 公告하여 一般이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第8條(試驗施行) 檢定試驗은 年1回 以上 施行하여야 한다.

第9條(合格決定)各級에 있어서 合格者는 100點 滿點에 95點以上인 者로 한다. 但 不合格者中 90點以上인 者는 應試級數의 次級을 認定한다.

第10條(施行細則)이 規程施行에 必要한 事項은 細則으로 定한다.

附 則

① 1973年4月10日現在 正會員으로서 國家또는 公共團體의 速記職에서 滿5年 以上の 實務經歷을 가진 者는 資格審査委員會의 審査를 거쳐 1級速記士資格證을 수여할 수 있다.

② 前項의 規定은 1973年6月30日까지 有效하다.

③ 이 規定은 1973年4月10日부터 施行한다.

◇別 表◇ ☆ 國語速記

급수	속도(1 분)	번문시간	정 확 도
1	320자 이상	15분이내	95점이상
2	300 "	"	"
3	270 "	"	"
4	240 "	"	"
5	200 "	"	"
6	180 "	"	"
7	150 "	"	"
8	120 "	"	"

☆ 英語速記

급수	속도(1 분)	번문시간	정 확 도
1	250단어 이상	15분이내	95점이상
2	200 "	"	"
3	180 "	"	"
4	150 "	"	"
5	120 "	"	"
6	100 "	"	"
7	80 "	"	"
8	60 "	"	"

會 務 日 誌

73. 4. 7 第1次 資格審查委員會
 1. 資格審查委員會規程制定 및 技能檢定規程 改正
 2. 第4回 速記士技能檢定試驗實施의 件
4. 10 第3次 研究委員會
 研究委員會規程中改正의 件
4. 10 第43次 理事會
 1. 第1次 資格審查委員會에서 決議된 案件 審議
 2. 第3回 速記人體育大會開催의 件(執行委員會構成)
4. 28 第4回 全國速記士技能檢定試驗 實施
 國語：43名應試 英語：10名應試
5. 4 協會「마크」製作(噴지 配付)
5. 6 第3回 速記人體育大會 開催
 場所：南怡심 參加人員：151名 競技種目：蹴球, 리레이
 蹴球優勝：황소팀 準優勝：청룡팀
5. 9 會誌「速記界」12號發刊 菊版 59面 1,000部
5. 10 第2次 資格審查委員會
 1. 第4回 全國速記士技能檢定試驗合格者 發表의 件
 2. 會員級數查定
 3. 外國語會員 入會의 件 等
5. 11 第4回 全國速記士技能檢定試驗合格者發表
 國語：4名(1級) 英語：5名(5級)
5. 28 監查院監查 收監(國庫補助分一'70~'72—文化公報部會議室에서)
5. 29 KBS「직업인의 순례」프로에 參席(理事長, 宣傳部長)
6. 16 外國語(英語)速記士 會員加入에 關한 懇談會(國會議員休憩室에서)
6. 21 第3次 資格審查委員會
 國語：5名 外國語：5名 會員加入의 件
7. 3 第44次 理事會
 1. 第3回 速記人體育大會決算報告
 2. 第13回 放學講習開催의 件
 3. 會員加入의 件
7. 10~14 第13回 放學講習受講願書接受(速記課 第3係事務室)
7. 16 第13回 放學講習 開講
 場所：東邦速記學院, 韓國學院
 受講人員：國語234名 英語52名
8. 4 第13回 放學講習修了
 修了人員：國語141名 英語35名
8. 5 宣傳部에서 編輯委員會 構成
 編輯委員 梁源龍 金基英 趙隅石 崔滉
9. 7 編輯委員會 開催

〈總務部 提供〉

編
輯
記

불꽃처럼 강렬하게 만발한 사르비아, 滿開의 極致를 이룬 다알리아의 소담스러움이 코스모스처럼 담백한 마음속에 이글거린다. 여름과 가을의 滿白으로 어우러진 집 뜰에서 흙을, 하늘을 번갈아보며 일렁이는 바다를 그린다.

意慾과 實現의 乖離에 自嘲하면서 末漫의 拙編을 내 놓는다.

裁判速記의 實務要領이라든지, 「民族의 證言」式으로 人物中心의 速記歷史를 試圖하러든지, 速記業務를 主題로 읽을거리를 마련하라는 編輯委의 會論에 힘이 부친채 本紙第13號가 出刊된 것이다. 이들의 力点記事를 뒤로 미루면서 다만, 特別히 先輩同僚들이 어떻게 時間活用으로 內實을 기하고 있는가를 모아 보았다. 모두 速記人周邊의 實例라 다소 刺戟劑구실이 되지 않을까 期待해 본다. <澈>

체육대회를 벌렸던 남이섬은 북한강 물줄기가 산그림자를 안고 구비도는 仙景이었다. 물건너 섬에 올라서면 길옆에 南怡將軍의 무덤이 있다. 당세의 패기남아련만 몇 줌의 흙과 남은 詩碑에 그 이름을 의지하고 있을 뿐 유흥객들의 구경거리 조차 되지 못하는 것이다.

백두산 돌맹이에 칼갈고 두만강 물을 말에 먹여서 다차기까지 나라를 평안케 함은 한 개인의 못이룬 포부만이 아니라 즐기찬 民族의 비전이라고 생각했다.

젊은 우리 가족들이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왔는가 하면 그 후진들은 뒤를 이어 군문에 들어갔다. 입대한 이들에게는 명예로운 군생활이 되고, 제대한 동료들의 앞날에는 영광 있으라. <致>

누군가가 秘密을 지키는 일과 억울한 일을 참는 것만큼 餘暇를 善用하기가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이번 號에는 速記人이 餘暇에 活動하고 있는 趣味團體들을 探訪해 보았다.

季節이 영그는 田園엔 뭐랄까, 똥똥! 充滿과 確信으로 풍요롭다.

그리고 뜨겁던 地熱을 이겨낸 農夫의 곶집을 위해서도 癸丑年은 꼭도 豊年이기를 바랄 뿐이다. <張>

季刊 速記界 <第13號>

1973年 10月 1日 發行
 發行人 金 龍 泰
 編輯人 楊 澈 在

社團 法人 大韓速記協會

서울特別市 中區 太平路 1街 60-1

Tel (72)6140 (75) 6940 · 6987